

지역특성화프로젝트 <동네한바퀴>

2018년 우리들의 이야기,

세렌디피티

serendipity

지역특성화프로젝트 <동네한바퀴>

2018년 우리들의 이야기,

세렌디피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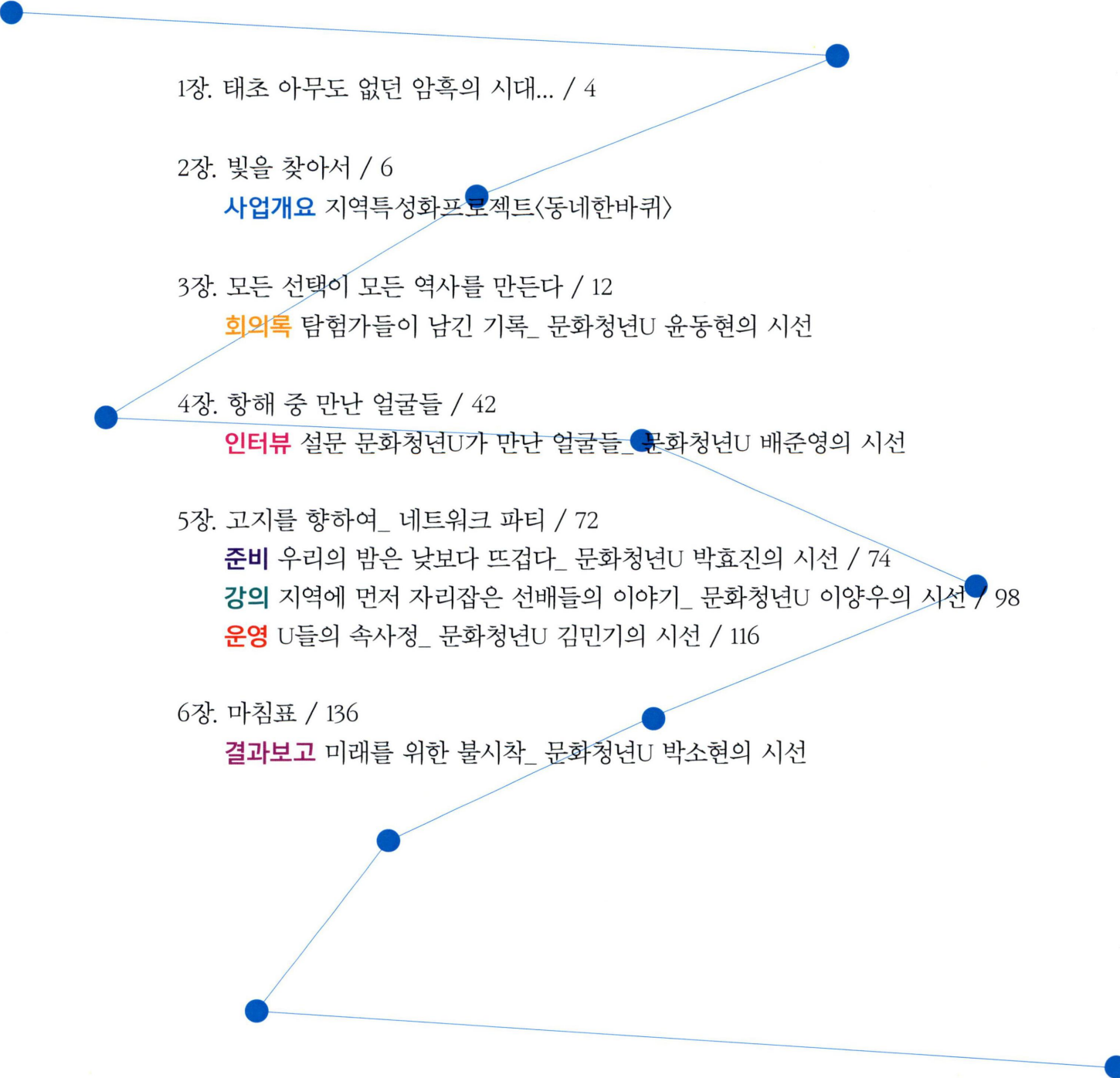
serendipity

세렌디피티(serendipity)

- 뜻밖의 발견(을 하는 능력)
- 의도하지 않은 발견
- 예상치 못한 발견
- 운 좋게 발견한 것

자연과학 분야에서는 세린디피티를 '우찰력(偶察力)'이라고 한다.

'목적을 가진 행동은 목적 이외의 발견도 가져 온다'



1장. 태초 아무도 없던 암흑의 시대... / 4

2장. 빛을 찾아서 / 6

사업개요 지역특성화프로젝트<동네한바퀴>

3장. 모든 선택이 모든 역사를 만든다 / 12

회의록 탐험가들이 남긴 기록_ 문화청년U 윤동현의 시선

4장. 항해 중 만난 얼굴들 / 42

인터뷰 설문 문화청년U가 만난 얼굴들_ 문화청년U 배준영의 시선

5장. 고지를 향하여_ 네트워크 파티 / 72

준비 우리의 밤은 낮보다 뜨겁다_ 문화청년U 박효진의 시선 / 74

강의 지역에 먼저 자리잡은 선배들의 이야기_ 문화청년U 이양우의 시선 / 98

운영 U들의 속사정_ 문화청년U 김민기의 시선 / 116

6장. 마침표 / 136

결과보고 미래를 위한 불시착_ 문화청년U 박소현의 시선

1장. 태초... 아무도 없던 암흑의 시대

청년의 시간은 기성세대의 시간과 다르다.

끊임없이 ‘인싸’를 양산하고자하는 메인스트림에서 벗어나 있는 ‘아싸’가,

향후 지역 곳곳에서 진정한 아싸로 자리 잡고, 그것이 그 지역의 독특한 문화가 되길 바라는 마음.
그것이 본 사업의 시작이었다.

태초... 아무도 없던 암흑의 시대!



2장. 빛을 찾아서

사업개요

지역특성화프로젝트<동네한바퀴>

사업개요

지역특성화 프로젝트 <동네한바퀴>

●사업기간 : 2018년 3월 ~ 12월

●사업내용 : 경기도를 중심으로 모인 청년들의 창의적 일거리창출을 위한 3개년 프로젝트
(1차년도- 재미있게 성장하고 싶은 청년들의 네트워킹)

단체 배경

‘문화청년U’

- 경기도문화원연합회는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사업의 교육과정을 거쳐 준비된 젊은 문화기획자들을 ‘문화청년U’로 조직화했다.
- 지역특성화프로젝트 <동네한바퀴>는 문화기획자로서의 자기전망을 가지고 있는 청년단체 ‘문화청년U’가 중심이 되어 경기도의 동네한바퀴 돌아보자는 콘셉트로 사업을 추진한다.
- 청년들이 모인 배경은 다음과 같다.
 - 문화라는 공통소재의 관심사를 가진 청년들이 모여 서로 다름이 새로운 도전이 된다.
 - 재미있게 성장하고 싶은 청년들의 생각이 섞여 지역사회에 영향을 끼친다.
 - 사회의 시선과 편견으로부터 벗어나 다양한 생각들을 나눈다.
 - 지역에서 스스로 일거리를 창출하여 일자리 문제를 자생구조로 해결하고자 한다.

기획 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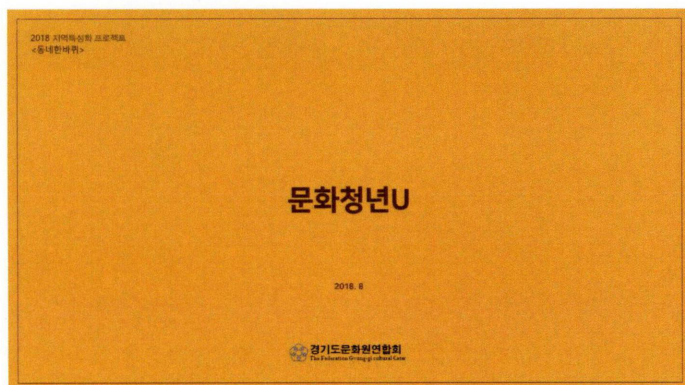
- 지역 문화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문화원에는 현재 청년이 설 자리가 없다.
- 경기도문화원연합회는 그동안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통해 길러진 청년문화기획자를 중심으로 지방문화원의 청년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 ‘문화청년U’의 시작점에서 네트워킹 행사를 통해 타단체의 고민과 경험을 듣고 방향설정을 하고자 한다.
- 변화를 빠르게 인지하는 청년의 관점에서 향후 지역의 새로운 특성화 콘텐츠를 발굴하여 문화원의 청년사업을 주도한다.

추진 목적

- 청년들의 시각에서 기획, 실행, 결과보고의 전 프로세스 경험
-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청년들의 네트워크연대 구조 마련
- 참여하는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내용을 기획단계에서부터 프로그램에 반영함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행사마련
- 향후 청년들이 일자리가 아닌 일거리로서 스스로 자립하여 활동 할 수 있는 기반 마련

기대효과

-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단체들이 모여 관계를 형성하고 각자의 다름 속에서의 자기 발견을 통한 내발적 비전 수립
- 문화를 매개로한 경기지역 청년단체들의 밀도 높은 관계형성과 일거리 생산 등 향후 지역 네트워크 기반 형성
- 향후 청년들이 주체가 되어 새로운 감성의 지역이미지 발굴
- 문화매개자로서 '문화청년U'의 역량강화와 다양한 영역에 대한 시야 확대 계기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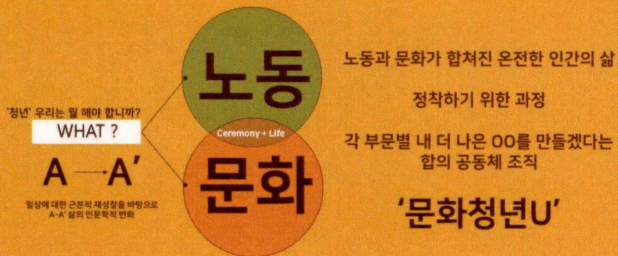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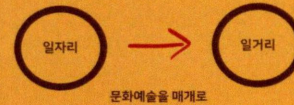


[관점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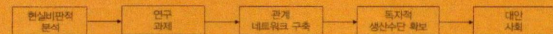
결국 핵심은 “지역(동네)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을까” 이다.

[관점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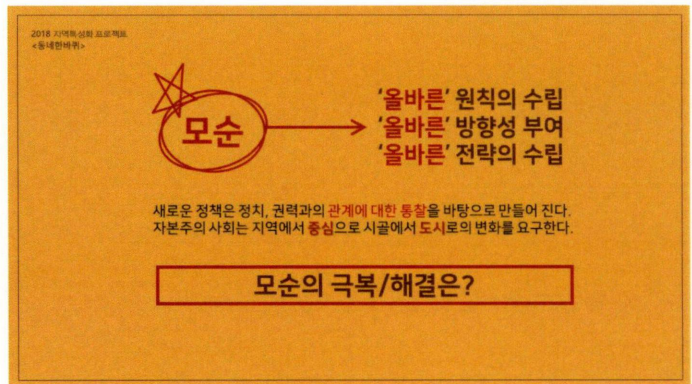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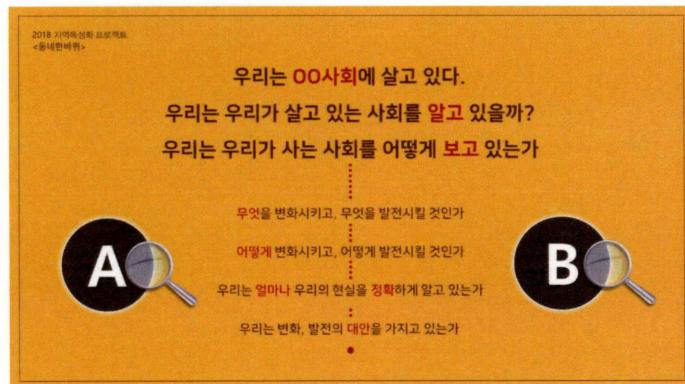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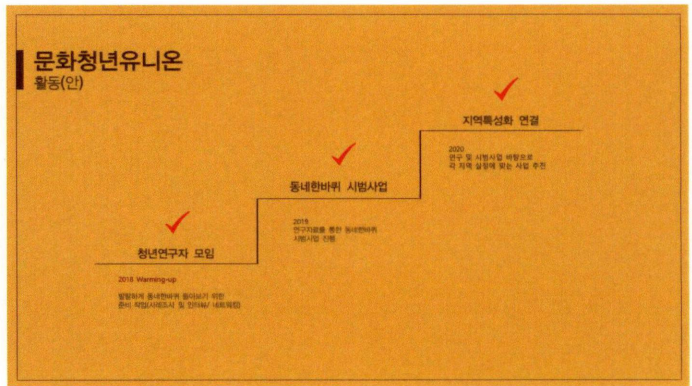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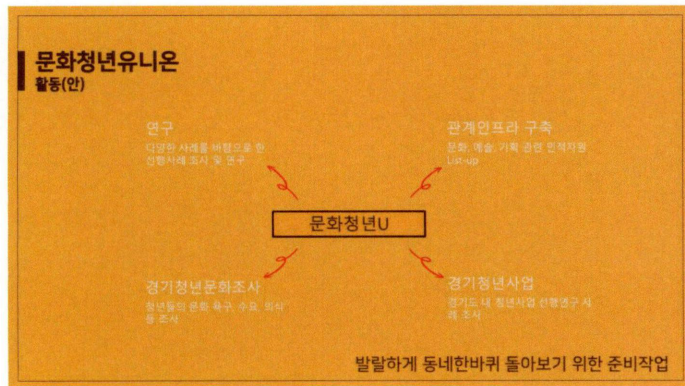
청년**일자리**사업이 아니라 **일거리** 만들기 사업으로 봐야 한다.
핵심은 ‘생산수단’의 문제다.



청년대안사회
(청년이 꿈꾸는 새로운 세상)



그냥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잘 살 수 있을까?



여 백

3장. 모든 선택이 모든 역사를 만든다

회의록

탐험가들이 남긴 기록

문화청년U 윤동현의 시선





1. 오프라인 모임 - 우리는 누구인가?

2. 오프라인 모임 - 지금, 청년은 어떠한가?

3. 온라인 모임 - 귀결

4. 오프라인 모임 - 무엇을 할 것인가?

5. 온라인 모임 - 방향 조정

6. 오프라인 모임 - 다음 단계를 위한 준비

7. 온라인 모임 - 도약

8. 만남을 위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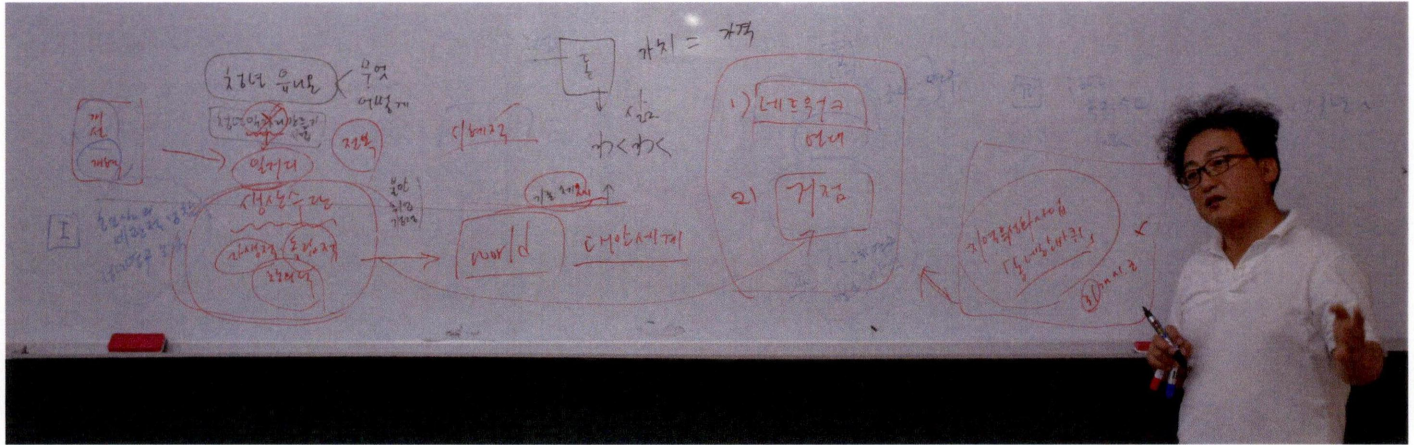
9. 인터뷰

10. 오프라인 모임 - 고지를 향하여

11. 오프라인 모임 - 불꽃은 꺼지기 직전에 가장 밝게 빛난다.

여 백

1. 우리는 누구인가?



일시 : 2018년 8월 11일

장소 : 경기아트플랫폼(gap)

참석자 :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사무처장, 멘토 신희영, 문화청년U 8명
(홍성현, 한도영, 김세은, 박효진, 곽인규, 배준영, 이양우, 박소현)



첫 만남. 위대한 여정을 시작할 우리들이 처음으로 다 함께 모였다. 2018 지역특성화프로젝트<동네한바퀴> 사업의 일환으로 조직된 결사단. 이 모임에서 우리들은 '우리는 누구이며, 왜 모였는가?'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했다.

논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져갔다. 지역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것, 청년 일자리 사업이 아니라 일거리 만들기에 초점을 두면서 문화예술을 매개로 한 '생산수단'의 문제에 집중했다. 더불어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잘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과 함께 청년이 꿈꾸는 세상을 그려보기 시작했다.



“청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발랄하게 동네 한 바퀴 돌아보기 위한’준비 작업을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함께 확인했다. 다양한 연구를 바탕으로 한 연구모임 및 세미나 개최, 문화·예술·기획 관련 인적자원을 찾는 관계 인프라 구축, 청년들의 문화 욕구·수요·의식 등을 조사하는 경기청년문화조사, 경기도 내 청년사업 선행사례조사로 크게 4가지 흐름을 공유했다.

더불어 이 사업이 올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18년은 3개년 계획의 첫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함께 인지했다. 준비 작업으로 청년연구모임을 진행하고 2019년에는 연구를 통한 시범 사업 추진, 2020년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각 지역별 사업 추진의 방향으로 이어지는 사업의 큰 틀에 대해 공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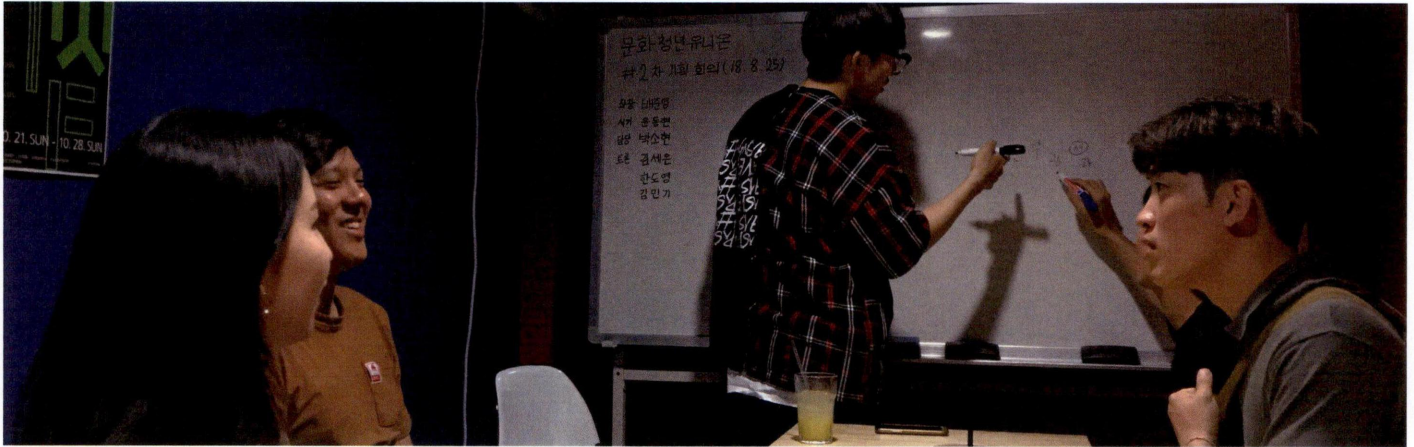
“이제는 우리가 주인입니다.”

중앙 중심을 지역 중심으로.
동일한 것들을 특수한 것들로.
끊어진 관계를 공동체 회복으로.
공급자 중심을 수요자 중심으로.



모임이 마무리되면서, 앞서 공유했던 ‘연구자 모임’, ‘관계 인프라 구축’, ‘청년문화조사’, ‘선행사례조사’등 방향에 대한 추가 논의를 이어갈 것을 약속했다. ‘보편성’, ‘권력성’, ‘지역정체성’등에 대한 관계를 정립하고 ‘우리가 주인’이라는 생각을 통해 올바른 원칙, 올바른 방향성, 올바른 전략을 수립하고자하는 의지와 더불어 **3개년 사업의 발판이 될 2018년에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인가?**

2. 지금, 청년은 어떠한가?



일시 : 2018년 8월 25일(토) 14:00 ~ 18:00

장소 : 서울 동작구 청맥살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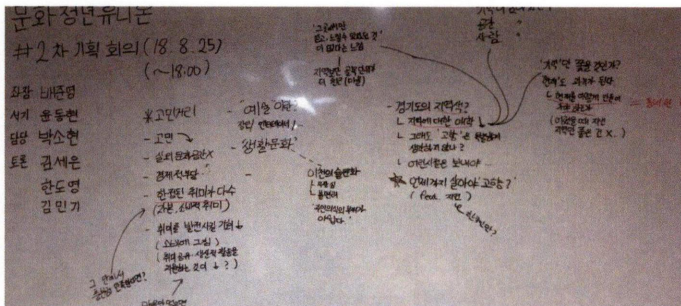
참석자 :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사무처장, 멘토 신희영, 문화청년U 6명
(김세은, 한도영, 윤동현, 배준영, 김민기, 박소현)

2차 기획 회의. 우리들은 1차 회의에서 이야기 했던 활동의 여러 방향에 대한 논의를 이어 가고자 했다.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정해야했다. 모임의 준비물은 개인 필기 도구, 그리고 ‘열정’이었다.

“무엇을 할 것인지”를 본격적으로 논하기에 앞서, ‘청년’인 우리의 고민들을 공유해보기로 했다. 청년들의 고민을 알아보는 것을 통해,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도 했다.

“청년은 무엇을 해도 괜찮다. 우리는 청년이기 때문이다.”

이야기는 이야기를 부르고, 고민은 고민을 불렀다. 많은 고민들이 도출되었고, 비슷한 고민들은 그룹화 할 수 있었다.





1. 취미조차 한정적이다.

음악의 취향을 고르는 일조차 온전한 내 선택이 아닌 대형 기획사에 의한 선택지 안의 선택이다.

2. 한정된 문화 활동의 소비조차 대부분 인식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많다.

길을 알려줘도 그들이 벗어나려고 할까?

3. 취미도 여유가 있어야 가능하다.

내 일터에서 취미를 즐길만한 여지를 주는가. 내부 룰을 깨는 활동(캠페인)제안

4. 경기도의 새로운 지역 이미지 찾기(향후 지역의 가치와 인식이 변화하는 일)

청년이 하고 싶은 걸 하면 그게 그 지역의 색이 될 수 있다.

5. 고향의 기준이란? 애향심은 어디서부터 나올까?

모호한 기준을 함께 논의하고 정리하는 프로젝트 제안

6. 공간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기



7. 내 주위의 청년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가.

그 고민은 나와 같은가? 서로의 생각을 공유해 보고 싶다. 장기 포럼 제안

8. 일자리, 일거리 문제

향후 일은 기계가, 인간은 즐기기 위해 살 것 같다. 좋아하는 일, 행복하기 위한 선택은 잘못 된 것일까?

일자리가 아닌 일거리로 먼저 뛰어든 청년들을 인터뷰하자는 제안

9. 청년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프로젝트 사례이야기

청년고민해결 관련 공연, 강연, 토크콘서트 등

결론은 3가지로 귀결될 수 있었다.

첫째, 우리가 청년인 만큼, 올해는 청년들의 고민을 중심으로 진행하면 어떨까?

둘째, 필요한 공부는 강연을 통해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청년들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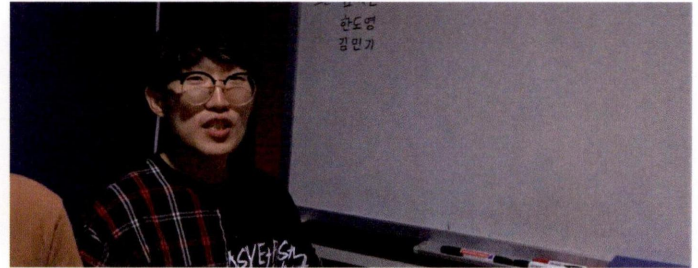
그리고 이 날, 우리는 '문화청년U'라는 우리의 이름을 확정했다.



향후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마다 'U'를 활용하여 아이덴티티를 만들어가고자 했다. 문화청년U의 U는 'YOU', 'Union'을 연상시키게 함과 동시에 담는 그릇의 형태나 웃는 얼굴의 모습을 연상하게 하는 효과를 노리고자 했다.

윤동현 : 우리가 서로 조금 더 친했더라면 더욱 많은 생각들이 나왔을 거야. 서로에 대해 잘 알고 편안한 사이에서 브레인스토밍을 밀도 있게 가졌더라면 2~3배는 더 많은 고민과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왔을 걸?

배준영 : '문화청년U'로 이름을 결정한 날. 그 과정이 유쾌했던 기억이 나네.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었지. 그리고 우리의 의사결정에 대한 중요한 문제제기가 있었어.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던 중, 동네한바퀴 사업이 본래 어떠한 것인지, 청년이 주체가 되어 하고 싶은 것을 하면 되는 것인지, 사업 본 취지에 얼마나 맞춰야 하는 지, 최종 결정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청년U 그리고 그 사이의 멘토와 사업 담당자의 역할에 대해 모두가 처음이었기에 나또한 조심스럽고 소극적이었던 기억이 있어. 이 지점에 대해 다 같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 포인트였다고 생각해.



김민기 : 이날 우리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대화를 나눈 것이 기억에 남아. 청년들의 생각, 문제, 그것들을 해소할 방법에 대한 자유로운 대화였지. 돌이켜보면 이날의 대화가 행사를 진행하기까지의 발판이 된 것 같아. 활동기간 중 가장 중요했던 순간이라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의 대화와 같은 회의를 더 많이 가졌더라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라는 생각도 들었어.

그리고 나는 청맥살롱 가는 길만 세 시간이 걸렸어..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 지원해주신다고 해서 간다는데, (얘들아, 그냥 돈 내고 수원에서 하자)는 말이 목구멍까지!! 왜냐면 난 차비가 더 들었거든! ㅠㅠㅋㅋ

↳ **박소현** : 아 너무 웃기다. ㅋㅋㅋ 회의 온 사람 위주의 대화라서 그랬나봐. 그러니 회의를 잘 참석하도록 해!

3. 귀결

일시 : 2018년 8월 29일

장소 : 온라인 회의 (카카오톡)

참석자 : 멘토 신희영, 문화청년U 7명

(배준영, 윤동현, 김민기, 박소현, 한도영, 이양우, 박효진)

8월 30일 오프라인 회의에 앞서 하루 전날 우리는 메신저를 활용한 온라인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의 안건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무엇을 할 것인가? 제시한 안에 대한 의견 공유
둘째, 확정된 무엇에 대한 어떤 것을 알아볼지에 대한 포괄적 고민
셋째, 올해 활동의 주제는 무엇인가? 우리의 기조는 무엇이 될 수 있을까?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면?

앞선 2차 회의에서 정리된 여러 고민들에 대해 다시 한 번 의견을 공유하면서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을 함께 찾아갔다.

“취미도 여유가 있어야 가능하다. 일터에서 취미를 즐길만한 여지를 주는가? 내부 룰을 깨는 활동(캠페인)도 재밌을 것 같다.”

“내 주위의 청년들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고민은 나와 같은가? 서로의 생각을 공유해보고 싶다.”

“일자리, 일거리 문제. 행복하기 위한 선택은 잘못된 것일까?”

이렇게 3가지에 시그널이 집중됨을 확인했다. ‘청년들의 생각을 들여보자’는 것이 큰 기동처럼 서있었고, 열심히 즐기기 위해 살아간 행동들의 결과가 새로운 지역색이 될 것이라는 논의에서 ‘새로운 지역색 찾기’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했다.

‘취미’, ‘다양성’, ‘지역색’등 다양한 키워드들이 열거되면서 논의는 계속되었고,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 더 나은 삶, 즐길 수 있는 삶에 대한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것, 함께 지지고 북고 뚝뚝 뭉치며 난장 토론할 수 있는 장, 일자리가 아닌 일거리로 먼저 뛰어든 청년들의 인터뷰 등의 맥락도 이어졌다.

<김제동의 톡투유>형식의 청년콘서트 이야기가 나오면서도 결국 하나로 귀결되어 가고 있었다.

경기도 청년들이 무엇을 하며 놀고 있는지, 우리보다 먼저 모임을 가지고 놀기도, 일하기도 하는 청년들을 찾아보는 선행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모아보자는 것.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고 공유할 수 있는 정보 네트워크망 만들기.

의견은 모아지고 있었지만, 모아짐에 따라 새로운 고민도 등장했다.

“청년들을 모아보는 데 앞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그들과 공유하고 싶은 것일까?”

우리는 이 고민도 온라인 회의가 끝나기 전에 해결하고자 했다. '삶의 방식', '새로운 도전의 공유', '일과 놀이를 함께 할 수 있는 지시서', '워라벨에 대한 견해', '하고 싶은 것을 위해 해야 하는 것을 포기할 수 있는가', '미래의 삶의 모습에 관하여' 등이 도출됐다.

우리는 회의 후, 우리와 네트워크 하여 향후 우리의 사업 방향과 기조에 도움을 받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단체들을 찾아보기로 했다. 다음 회의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몇 개의 모임을, 며칠 동안, 얼마나 찾아볼 것인지를 논의하기로 했다.

그리고 논의 이후에는 조사한 단체들을 어떤 식으로 읽어내고 보다 깊은 조사를 할 수 있을지 의논하기로 방향을 잡아갔다.

바로 다음 날이 오프라인 회의였기 때문에, 다음 날까지 각자 단체들을 대략적으로 조사해오기로 하고 온라인 회의를 마무리 지었다.

박소현 : 야심차게 준비한 첫 온라인회의!

-장점: 글로 정리가 되어 나중에 회의록 쓰기가 편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활용하기가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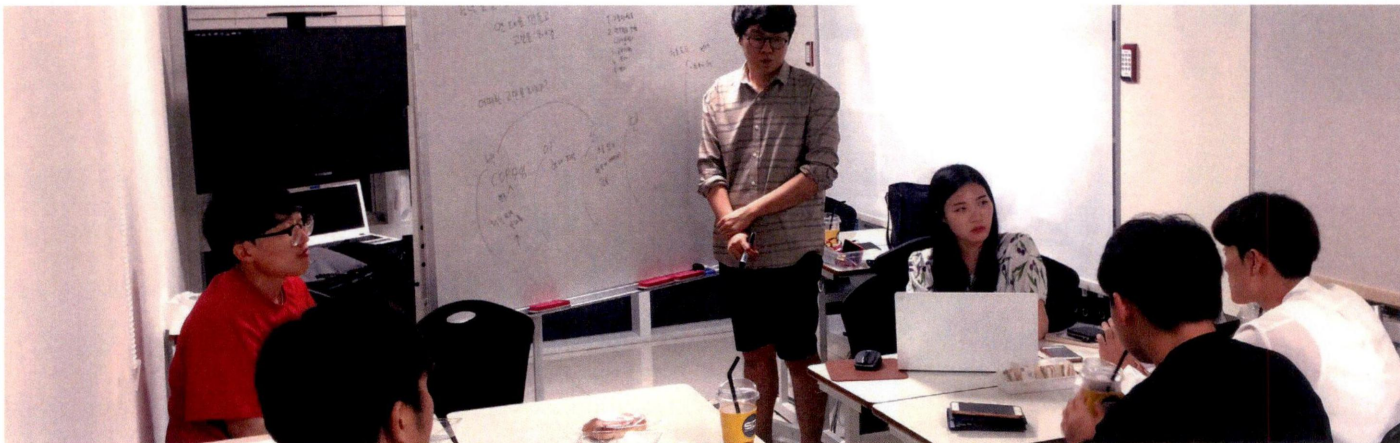
-단점: 8명이 한꺼번에 글을 쓰면 어떤 사태가 일어나느냐...

1. 스크롤이 짹짹 넘어가서 상황정리가 어렵다.
2. 라디오 8개 한꺼번에 틀어놓은 것 같은 느낌?
3. 담당자가 당황한다.
4. 감정을 읽을 수 없다.(진정해, 화난...건 아니지?)

너희가 이렇게 말이 많은 줄 몰랐어...;



4. 무엇을 할 것인가?



일시 : 2018년 8월 30일 19:00 ~ 22:00

장소 : 서울 서초구 SG스터디 룸

참석자 : 문화청년U 7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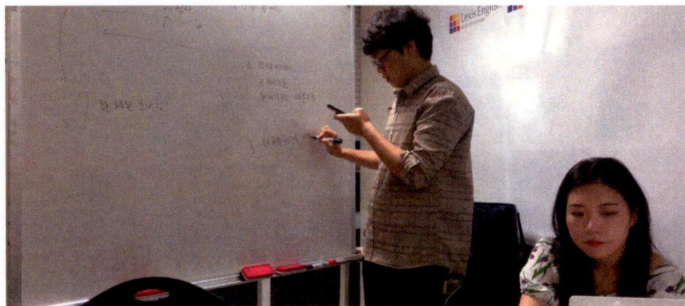
(윤동현, 한도영, 이양우, 박소현, 광인규, 김민기, 신봄)

“청년들을 모아서 무엇을 할 것인가?”

전 날 진행된 온라인 회의의 안건과 합의점을 바탕으로 우리는 다시 모였다. 각자 대략적으로 조사한 단체들에 대한 생각을 품은 채, 우리는 보다 구체적 조사방향과 어떤 단체들을 찾아볼 것인지, 그리고 어떤 방식의 결과물을 만들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했다.

기조에 대한 이야기로 회의는 시작되었다. ‘동네한바퀴는 이런 사업이다.’라고 할 수 있는 킬러 센텐스. 하지만 이는 자연스럽게 ‘기조를 정하기 위해선 무엇을 할 것인 지부터 정하자’로 이어졌다.

“축제냐? 포럼이냐? 연구냐? 얼마나 깊게, 혹은 얼마나 얇게 갈 것이냐?”



사실 우리 모두, 앞선 회의들에서 눈에 보이는 뚜렷한 것을 도출해내지 못했다는 느낌이 없지 않았다. 모두에게 공유되는 이러한 암묵적인 긴장감으로 회의는 이전보다 속도감이 붙었다. 청년들을 모아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는 '인터뷰'와 '설문조사'에 대한 이야기로 전환되었다. '인터뷰는 필요한가?',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양적 설문조사가 낫지 않나?' 등이 논의로 등장했고 올해 사업의 결과로서, 통계를 뽑아낼 것인지 아니면 글로 표현해 낼 것인지를 정하자는 데 합의점이 도출되었다.

그리고 그 선택을 결정하는 바탕으로 '질문지 작성'을 회의의 목표로 설정했다. 질문을 누구에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단체조사·선정 기준'을 먼저 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으나, 질문을 먼저 만드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수월할 것이라는 의견에 무게가 쏠렸다.

2차 회의에서 크게 9가지로 도출한 청년들의 고민들을 다시 한 번, 비슷한 맥락으로 묶었다. 총 4개의 묶음이 나왔고 한 묶음 당 2명, 즉 2인 1조 방식으로 각 묶음의 내용을 주제로 한 질문들을 만들어 보기로 했다. 또한 질문을 던질 단체들에게 물어볼 '기초질문'에 대해서도 같이 생각해보기로 했다. 기초 질문 3가지와 주제별 질문 5가지.

다음 회의에서는 각 조별로 생각해온 질문들을 공유하고 피드백하기로 했다. 더불어 질문지 작성 후에는 단체 선정과 인터뷰 진행 등의 순서를 다시 확인하며 회의를 마쳤다. 우리는 질과 양을 모두 챙기기로 했다.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병행하는 방식을 구상한 것이다. '질문지 작성 → 단체 조사 및 선정 → 인터뷰 및 설문조사 → 네트워크 장 만들기'의 구조가 자리잡혀가고 있었다. 그리고 어떤 형식의 네트워크 장을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는 인터뷰 및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하기로 합의했다.

배준영 : 참석하지 못해 많은 아쉬움이 남는 회의야.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완료한 이후에 그 결과를 바탕으로 어떻게 네트워크의 장 만들기로 이어질지가 중요한데, 돌이켜 보면 이때 드디어 경기도 지역 청년단체들과 네트워크 행사를 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인 것 같네.

5. 방향 조정

일시 : 2018년 9월 10일 19:00 ~

장소 : 온라인 회의 (카카오톡)

참석자 : 멘토 신희영, 문화청년U 5명

(김민기, 배준영, 윤동현, 신봄, 박소현)

작성한 질문사항들에 대하여 신희영 멘토의 피드백을 받는 시간을 가졌다. 어떤 의도로 이러한 결과물이 나왔는지,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는 충분히 나타나 있었다. 그러나 '설문은 주관적이기보다는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그 힘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었다. 우리가 진행하게 될 설문이 곧 우리 '문화청년U'의 첫 이미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객관성은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었다.

더불어, 설문 문항들은 우리가 궁금해 하는 많은 것들이 잘 들어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맥락을 유지하고 있지는 않은 상태였다. 매 회의마다 모든 구성원들이 참여하지 못했다는 아쉬운 부분들이 더욱 크게 다가왔다. 또한, 질문들을 그룹으로 묶어서 따로 진행했기 때문에 맥락의 통일성을 놓치게 된 것은 아닐까라는 의견에도 전반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설문 문항의 큰 번호와 그 이하의 내용 사이의 긴밀성, 응답자에게 혼돈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한 비교적 쉬운 단어의 사용 등에 대한 피드백을 얻을 수 있었다. 현재 조사지에 있는 질문들은 뜻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 이것은 응답의 오류를 증대시킬 수 있기에 위험했다.

멘토는 우리들에게 큰 맥락이 흔들리고 질문이 애매해지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했다. '어떤 사람에게 질문할 것인가?'의 문제. 즉, 명확한 대상 설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질문을 설계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였던 것이다.

“우리는 단체장에게 물어볼 것인가? 운영진에게 물어볼 것인가? 회원에게 물어볼 것인가?”

뿐만 아니라, 청년에 관한 조사들은 이미 충분히 많다는 것을 언급해주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욕구를 채워주지 못하는 우리만의 질문은 무엇일까?'를 고민해야 함에 주목시켰다.

이를 통해 우리가 3차 회의에서 뼈대를 잡았던 **질문지 작성 → 단체 조사 및 선정 → 인터뷰 및 설문조사 → 네트워크 장 만들기의** 구조를 변경하고 살을 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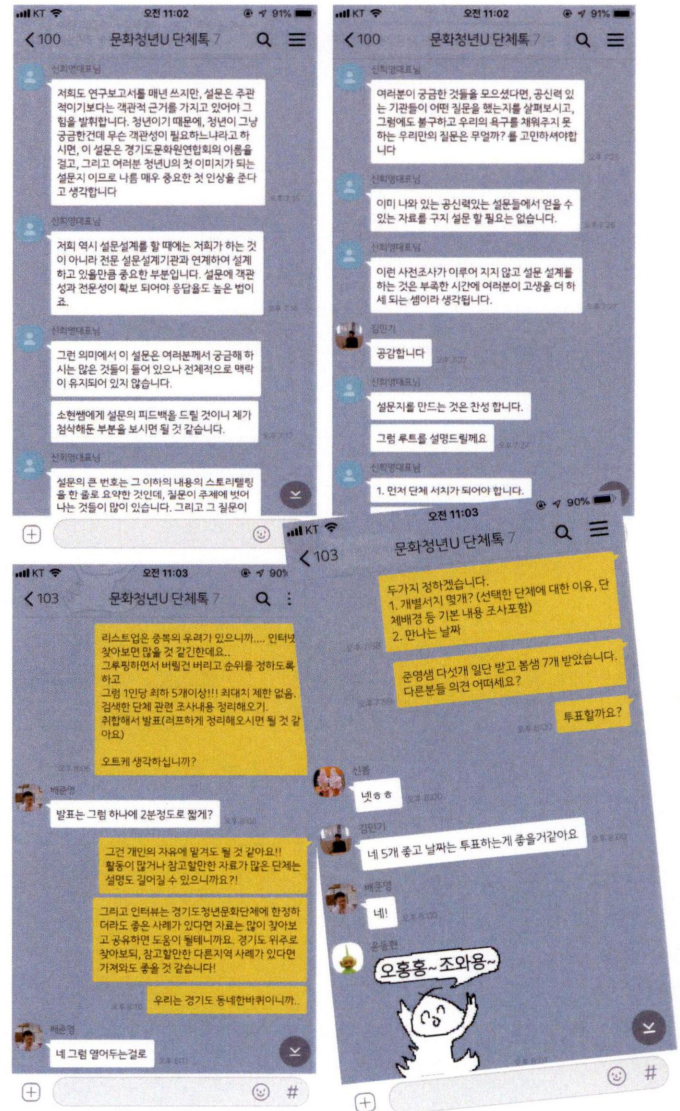
단체 조사 → 단체 그루핑 → 인터뷰지 → 설문지 → 현장의 순으로 구조가 재정립되었다. 단체를 서치하고 '문화단체', '지원받는 단체', '사회활동을 하는 단체', '직업으로 접근하는 단체'등처럼 일정 기준으로 그루핑 시킨다. 그리고 그루핑 된 단체별로 인터뷰지를 만드는 것이다. 이때 그루핑 된 단체들의 특성에 맞는 개별질문을

설정함과 동시에 모든 단체에 적용해볼 수 있는 공통질문을 같이 만드는 것이었다. 더불어, 단체의 누구를 인터뷰하느냐에 따라 질문의 종류도 달라질 수 있기에 운영진, 단체장, 회원 등 어느 선까지 인터뷰를 할 것인지도 놓치지 않고 결정해야했다. 동시에 많은 인원을 인터뷰할 수 없기 때문에 설문조사의 방법도 함께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

회의가 마무리될 즈음, “단체를 조사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나 경로는 무엇이 있을까?”라는 질문의 등장으로 이와 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눴다. 인터넷 기사, SNS, 공모사업 등의 결과 발표를 통해 공모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 파악 등의 방법들을 서로 인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제 우리는 단체를 조사하기로 했다. 개인당 5개 이상의 단체를 조사해오는 것으로 결정했고, 이후의 오프라인 모임 날짜와 시간을 정하고 회의는 마무리되었다.

윤동현 : ‘단체 조사’와 ‘질문 설정’의 선후 문제. 질문을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적절한 단체를 찾아야하는 것인지, 단체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적절한 질문을 만들어 내야 하는 것인지는 우리 내부에서도 참 미묘하고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이긴 했어. 우리의 결정과 멘토님의 의견이 완전히 같은 맥락은 아니었으나, 피드백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졌다는 것이 무척 다행이라고 생각해. 만약 그렇지 않았더라면, ‘다시 되돌아오는 일’, 즉 수고를 덜고 효율적으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바로 잡는 일’이 무척 어려웠을 것 같아.



6. 다음 단계를 위한 준비

일시 : 2018년 9월 18일 20:00 ~

장소 : 사당 더포도 스튜디오

1. 각자 조사해온 단체 공유(1인 5개 이상)
2. 단체들을 나름의 기준을 정하여 그루핑
3. 인터뷰할 대상 선정

우리들은 경기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 문화단체를 위주로 찾아보되, 참고할 만 하거나 좋은 사례라고 판단된다면 다른 지역의 사례도 적극적으로 가져와 보기로 했다.

각자 조사해온 단체를 발표하기 전, 다소 원론적인 이야기를 나누었다. '결과보고에 사용될 자료로서 인터뷰가 좋을지, 설문조사가 좋을지'에 대한 논의였다. 결과보고서에서 활용하기 좋고, 보여주기에도 용이한 '수치'를 뽑아낼 수 있는 설문조사를 중점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 그리고 보고서에 꼭 수치를 보여줄 필요가 없고 장기적인 사업의 계획으로 보았을 때, 이후 네트워크를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반을 쌓을 수 있는 활동으로는 얼굴을 직접 보는 인터뷰가 좋을 수 있다는 의견. 이전부터 논의되었던 '인터뷰', '설문조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다시 나누게 된 것이다.(두개 다 진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에)

참석자 : 멘토 신희영, 문화청년U 7명

(배준영, 박소현, 신봉, 곽인규, 박효진, 김민기, 이양우)

하지만 내부적으로 '어느 하나만 하자고 하는 이분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도 없었고, 우리는 '인터뷰할 부분은 인터뷰를 하고, 설문이 필요한 부분은 설문을 하자. 그리고 그 판단을 위해 인터뷰를 먼저 해보자'는 의견에 동의하였기 때문에 '설문을 더 촘촘하게 만들기 위해서도 인터뷰는 미리 필요한 사전 작업일 수 있다'는 사실로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경기도 지역 내 문화기획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청년단체조사

김민기	어웨이크교육 문화콘텐츠협동조합 (어웨이크주식회사)
	우리마을 오아시스 - 스펙키엘 디자인랩
	세월리마을회 - 세월마을 둘레길 프로젝트
	스무살이협동조합 - 땀짓 박람회
	칠보산마을 꿈꾸는 자전거
윤동현	사만킬로미터
	시그널(시가 있는 그림이야기에서 널 만나다)
	아트노리터
	내손의반딧불
	매생이
	빛나는 순간 - 디어 교하 프로젝트
박소현	양평 DDPG
	놀토(놀이위한 문화토론)

	봄막달
	청년문고(문화고민)
	동두천시청년연합
	남양주전통문화터
곽인규	앵그리엔터테인먼트
	청년유니온
	청년기준
	드림메이커
	아우름
박효진	대학생 강연기획단 '불쏘시개'
	비영리민간단체 '청년생각'
	경기청년유니온 (청년유니온 경기권)
	도시재생활동가 '티움'
	청년문화포럼
이양우	경기청년유니온
	청년생각
	시흥청년아티스트
	어쩌다사춘기
	시흥시 나눔자리문화공동체
신 봄	경기청년협업마을
	청춘과수원
	청년유니온
	청년공간 에이큐브
한도영	부천청년정책네트워크
	고양청년 네트워크 파티
	안산청년네트워크
	강장공장
	춘천청년네트워크 - 청설모

*사례를 참고하기 위하여 경기도 외 지역단체도 일부 조사 진행

서로가 조사해온 단체들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다 들은 뒤, 분류작업에 대해 논의했다. 다양한 지역과 다양한 성격의 단체들이 조사되었고, 실제로 직접 방문하여 인터뷰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지역별로 분류를 할 것인지, 단체 성격·특성별로 분류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새로운 기준으로 분류할 것인지 중요한 부분이었다. '예술가 위주로 구성된 단체인가?', '온라인 사이트를 주로 활용하는 단체인가?', '기획사나 협동조합의 형태로 수입획득을 목표로 하는 단체인가?', '공부하고 강의하는 단체인가?', '여러 단체들을 연결시켜주는 허브와 같은 단체인가?' 등 다양한 특성들로 분류될 수 있는 단체들이었다.

우선 이번 회의를 통해서 조사된 단체목록을 취합하기로 했고, 이는 박효진이 맡아주었다. 그렇게 정리가 되면, 단체를 분류하는 게 보다 쉬어지고, 모든 단체의 인터뷰를 다 갈 것인지 아닌지, 어떤 단체를 인터뷰하러 갈지, 혼자 가는 게 좋을지 둘이 가는 게 좋을지 등에 대한 판단이 쉬워질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하며.

또한, 인터뷰할 단체의 일정과 시간을 파악하는 것, 단체를 만나기 전 우리들이 정리해야 할 인터뷰, 설문조사 양식의 완성 시간 등을 정해야 하는 일정 조율 문제도 우선 정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눠도 늦지 않겠다는 판단 속에서 우리들은 다음에 진행될 화상 회의에 대해 이야기하며 회의를 끝냈다

7. 요약

일시 : 2018년 9월 23일

장소 : 온라인 화상회의

참석자 : 멘토 신희영, 문화청년U 4명

(박소현, 박효진, 윤동현, 배준영)

카톡회의 대신 직접 얼굴을 보면서 하는 화상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자 인터뷰 가고 싶은 단체를 선정하고 그에 따른 인터뷰 질문지와 설문조사 문항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했다. 또 인터뷰 준비와 인터뷰 실행, 정리 등의 일정을 함께 짜고, 조사는 했으나 인터뷰를 가지 않게 된 단체들의 조사는 어떻게 할 것인지나 혼자 갈지, 중복된 단체가 있는지 등을 파악하고자 했다.

하지만 모든 안건들을 수월하게 풀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었다. 멘토는 우리에게 목표 일정을 먼저 확정짓고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해야 할 일을 적절한 날짜에 역순으로 배치하는 방식의 타임테이블 작성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우리는 인터뷰까지는 구체적으로 정해보고, 인터뷰 후 활동에 대해서는 보다 간략하게 타임테이블을 정해보기로 했다.

한편, 각자 조사해 온 단체들을 다 모아서 정리를 하긴 했으나, 분류하고 분석하는 단계에는 아직 이르지 못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선정된 단체들을 지역별, 성격별로 정리를 하고 흐름을 파악할 필요가 있었다.

더불어, 인터뷰를 하고 싶은 단체를 선정할 예정인데, 그 단체를 선정한 이유와 그 단체에 대해 정말 물어보고 싶은 것들에 대한 추가적인 질문들을 취합·정리할 필요가 있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들은 타임테이블 작성, 단체 분류·정리, 인터뷰 질문 정리, 설문 정리팀으로 역할을 나누어 진행하기로 했다.

분류	담당	내용
타임테이블 작성	박소현,	목표를 잡고 역순으로 계산하여
	배준영	일정 계획, 공유 및 데드라인 관리
단체 분류·정리	윤동현,	지역별·성격별 단체 분류 후,
	박효진	부족한 지역은 어디인지 혹은 어느 성격의 단체들이 많은지 파악. 또한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방법 구상
인터뷰 질문 정리	김민기,	단체 선정 이유와 물어보고 싶은 것들, 공통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신봄	질문들, 단체별로 물어보고 싶은
설문 정리	이양우	구체적 질문들을 취합 및 정리

위와 같이 4개의 역할로 나뉘어 구성되었고, 각자의 역할에 맡게 움직였다. '팀원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전체적인 진행이 원활히 되는 데 도움이 될 촉진자 내지는 책임자가 되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각자 맡은 바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우리들은 자체적으로 설문을 돌려서 각자 인터뷰 가고 싶은 단체를 파악했다.

진행	인터뷰 대상
박소현	시그널
박효진	아트노리터, 세월리 마을회
김민기	시그널, 스펡키엘 디자인랩, 4만킬로미터
윤동현	아트노리터
곽인규	앵그리엔터테인먼트
신 봄	청년유니온
배준영	봄막달
이양우	블랙레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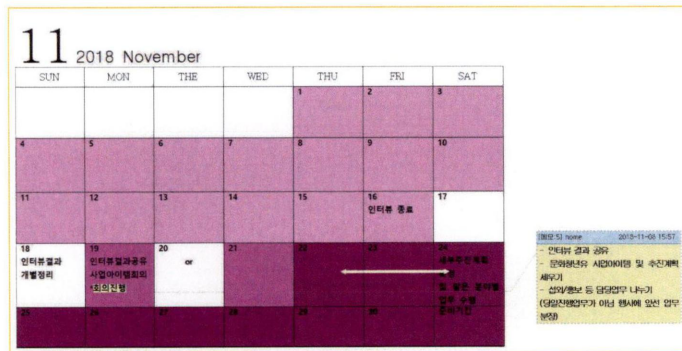
처음 정해진 희망 인터뷰 단체는 이와 같았다. 하지만 실제로 단체들에 연락을 취하고 인터뷰에 대한 답을 들은 시점이 아니기에 인터뷰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제 우리는 각자 맡은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자신이 인터뷰하고 싶은 단체에 연락을 취해보는 단계에 다다랐다.

윤동현 : 개인적으로도 처음이었지만, 우리들끼리 하는 회의에서도 처음해보는 화상회의였지. 온라인이지만 얼굴을 바라보고 목소리를 들으면서 한다는 점에서 오프라인 회의 못지않은 진중함을 요구했기에 인상 깊으면서도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었던 것

같아. 다만, 프로그램이 잘 실행되지 않아 회의에 참여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발생하기도 했기에 아쉬운 부분이 남기도 했어. 참여하지 못한 인원이 발생했을 때, 화상회의를 중단하고 그냥 텍스트로 진행형식을 바꾸었어야 했나?

박소현 : 얼굴을 보고 대화하는 것이 장점이긴 한데, 늦은 밤까지 화장을 못지우고 회의까지 기다렸어. 난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됐어~

“10월 말 인터뷰 종료, 11월 행사준비, 12월 2주 행사, 12월 말
결과보고서 완료 ”



1) '지역'을 기준으로 단체를 분류한 결과, 우리들이 인터뷰를 가고 싶다고 선택한 단체들은 경기북부지역에 비해 경기남부지역에 집중된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인터뷰를 희망한 단체 외에, 개별적으로 조사했던 모든 단체들의 지역 분포는 경기도 골고루 분포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단체 분류를 맡았던 윤동현과 박효진은 '인터뷰는 희망하는 단체를 하되, 설문조사는 조사했던 모든 단체들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혹은 '희망하는 경기남부지역의 단체 외에 조사했던 단체 중에서 북부권 단체를 하나 더 인터뷰를 간다.'와 같은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한 방법'들을 고민하고, 이를 구성원들과 공유했다.

2) ‘성격’중에서도 ‘주요 활동’을 기준으로 단체를 분류하고 정리한 결과, ‘미술출판’, ‘네트워킹/축제’, ‘힐링’, ‘마을 만들기’, ‘노동/일자리’등의 키워드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분류를 위한 기준으로 주요 활동을 선택했으나, 다른 성격 분류의 기준들이 더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구성원들의 생각을 물었다.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정이 이루어졌다. 구성원들의 일정 문제를 반영하여 타임테이블 팀이 전체 일정을 조율하기도 했다.

물론 인터뷰를 진행할 단체의 수가 적다는 점, 경기남부지역에 몰렸다는 점에 대해서도 논의가 더 진행되었다. 하지만 현실적인 일정상의 문제와 문화청년U 활동이 초창기라는 점 등으로 인하여 우선 진행을 하고 그 결과를 통해 추후의 행사나 활동을 정하는 것에 합의가 이르렀다. 부족한 부분은 온라인 조사 내지는 설문조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했다.



8. 만남을 위하여

각자가 맡은 부분의 책임자로서 역할을 하면서도 서로 공유하기, 각자 희망 단체에 연락을 취하여 인터뷰 승낙받기 등의 작업이 계속 진행되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인터뷰 질문지팀은 멘토의 피드백을 여러 번 거치면서 점점 완성도 높은 인터뷰 질문 양식을 만들어 가고 있었다. 일부는 희망했던 단체의 인터뷰가 어려워, 다른 단체에 새로 연락을 취하기도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와 동시에 설문 조사 양식도 완성되어가고 있었다.

질문 문항의 경우, '어떤 대답을 해주기를 원하는지 이해가 가는가?', '전체 7개의 질문 안에 항목별로 어떤 답들을 요구하고 있는 것인지 이해가 가는가?', '질문의 의도를 한 번에 알 수 있는가?', '대답을 어렵게 하는 애매한 부분은 없는가?'와 같은 물음을 가지면서 각자 질문 팀에게 피드백을 주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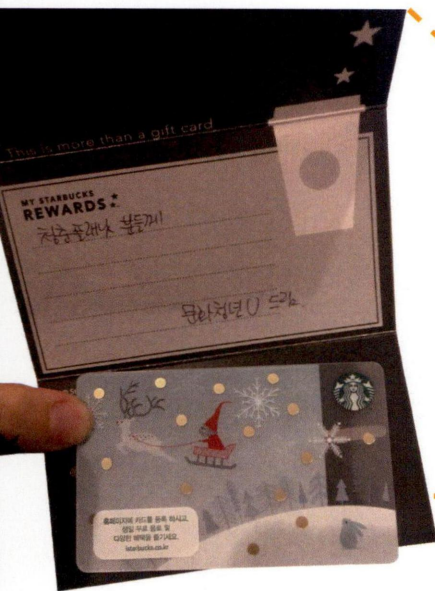
완성된 인터뷰지 질문을 연락을 취한 단체에 사업계획서와 함께 드리면서 사업과 인터뷰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도움을 드리고, 질문에 대한 답을 미리 생각하실 수 있게 했다.

더불어 인터뷰 단체에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문화청년U를 알리기 위한 기념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었다. 작은 도자화병, 텀블러, 디자인 케이크 등의 의견이 나왔으며 최종적으로는 꼭 동일한 형태일 필요 없이, 각자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선물을 준비하기로 결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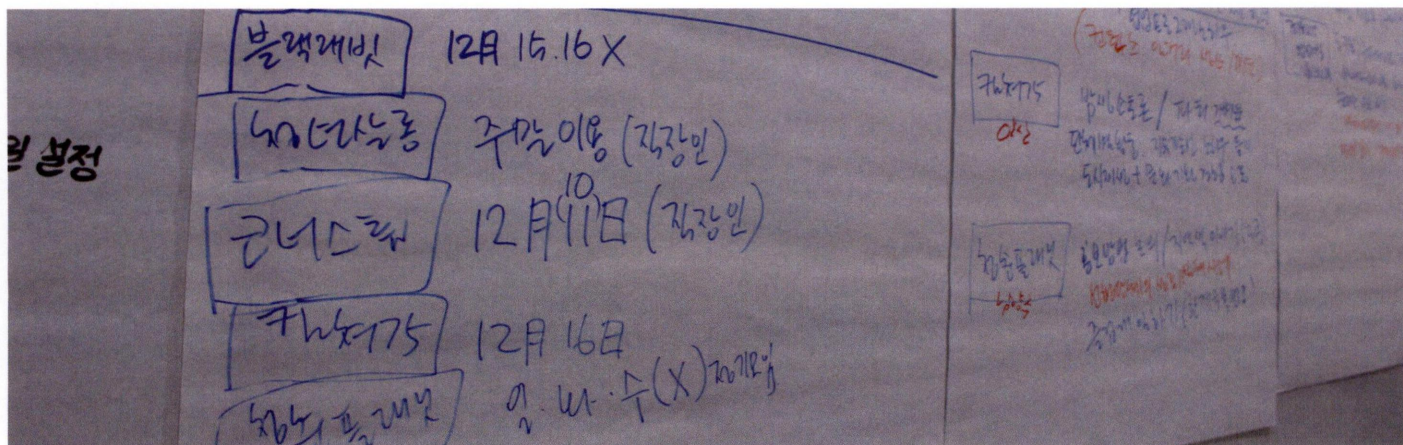
박효진 : 계속되던 인터뷰 섭외실패 중 마지막으로 '청년살롱'에서 늦은 시간임에도 답장을 보내주셔서 감사함에 눈물이 날 뻔 했어.

그리고 답례품은 무엇으로 해야 할지 엄청난 고민을 했어.

미리 준비하지 못해서 최후의 선택으로 떡케이크를 하게 되었는데, 사실 먹고 없어지는 건 우리가 기억에 남지 않을까봐 하고 싶지 않았지만, 맛있게 드시고 인증샷까지 보내주셔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어. 아무튼, 22세 인생 처음으로 모르는 청년을 인터뷰 하러 가는 길이 너무너무 떨렸던 기억이 나. 대본은 있지만 어떻게 시작해야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상대가 편하게 답을 해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먼저 인터뷰 다녀온 멤버들에게 많은 조언을 들었어. 정말 고마운 생명의 은인들이라고 생각해. TT_TT 인터뷰를 모두 끝낸 지금, 청년살롱에서 호의적으로 맞아주신 점이 기억에 많이 남아. 앞으로 우리도 멋진 기획을 통해 청년살롱과 함께하는 날이 오면 좋겠다!



9. 인터뷰



바쁜 일정 속에서 인터뷰 준비를 마친 우리들은 본격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공통질문과 단체별 특성에 따른 구체적 질문들로 구성된 인터뷰 질문지와 카메라, 그리고 녹음기 등을 구비한 채로 각자 30~40분의 인터뷰를 수행했다.

담당	인터뷰 단체
박소현	남양주 - 청춘플래닛
박효진	시흥 - 청년쌀롱
김민기	동두천 - 구석zine
윤동현	안산 - 컬처75
신 봄	시흥 - 경기청년협업마을
배준영	화성 - 화성시리더연합협동조합
이양우	부천 - 블랙레빗87

우리들의 최종 인터뷰 단체는 위와 같다. 초기에 희망했던 단체와는 차이가 생겼다.

윤동현 : 나는 안산의 '아트노리터'를 인터뷰하려고 했어. 이를 위해서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연락을 취하고, 거기서 연락처를 받아 새로운 연락을 취하고, 그 분께 다른 연락처를 받아 또 연락을 취하면서 인터뷰를 위한 시도를 했지. 최종적으로는 바쁜 일정상의 문제로 인터뷰를 하기 어려워져서 '컬처75'로 인터뷰 단체를 변경하게 되었어. 하나의 단체와 컨택하고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 생각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함을 느꼈어. 하지만 만남과 관계형성이 어렵게 이루어지는 만큼, 끊어지는 것도 쉽게 되지는 않으리란 믿음으로 문화청년U가 타 단체와의 관계 형성에 몰두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

10. 고지를 향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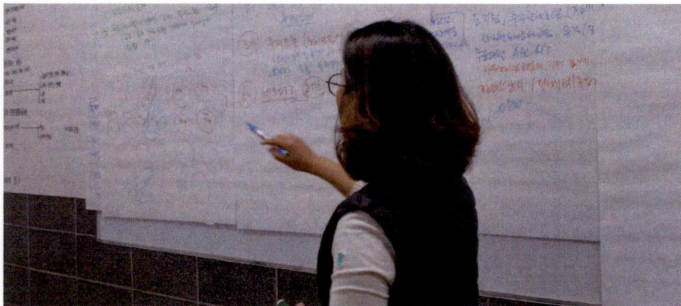
일시 : 2018년 11월 19일 18:30 ~ 21:30

장소 : 수원 유엔아이 스터디룸

참석자 :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사무처장, 멘토 신희영 대표,
문화청년U 7명 (배준영, 박효진, 김민기, 박소현, 신봄,
윤동현, 이양우)

인터뷰한 단체의 '단체 조직 규모·구성', '활동 내용', '재정 운용',
'향후 계획', '청년 관련 인식'의 5가지를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했다.

각자가 가지고 온 인터뷰 결과들을 듣고 정리해본 결과, '단체들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윤곽이 드러났다.



1. 다른 곳에서는 무엇을 하는가?
2. 무언가 같이 만들어보고 싶다.
3. 청년 사업 아이디어, 강의, 컨설팅 등 '실무적인 것'에 대하여
학습하고 싶다.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었다. 청년문화단체들이 서로 무엇을
하는지 알게 하고, 같이 무언가를 도모해볼 수 있게 하고, 또한 공모,

홍보, 성공·실패 사례, 지역에서 살아남는 방법, 협업, PR 등에 대한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 수 있을까?

우리는 인터뷰 결과로 도출된 것을 토대로, 향후 우리가 할 프로그램의 형태에 대하여 함께 고민했다. 우리들 내부에서도 여러 의견들이 나왔으나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었다.

첫 만남인 만큼 가벼운 행사가 좋을 것 같다. 관심사별로 모여서 '소그룹 토크'를 하면 좋겠다.

단체 구성원 중 한명이 강의를 하는 '청년 강의'내지는 '주제 강의'를 하면 좋겠다.

청년들이 답을 찾아보는 '주제 토론'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단체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 등에 관하여 토론하고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단체들의 네트워크를 도와주는 '허브'의 역할이 될 필요가 있다. '가벼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네트워크 연대구조, 일거리를 마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게임의 형식을 활용하기도 하면서 '색깔 있는 행사'가 되기를 바란다.

인터뷰 결과와 의견을 공유하면서 우리들은 '청년들끼리 소통을 하고, 강의도 진행되면서, 소그룹으로 모여 이야기를 나누며 진행되는 소통의 장'을 만들자는 방향으로 행사의 그림을 그려갔다.

지체하지 않고 우리들은 네트워크 행사의 계획을 잡기로 했다. 행사 계획은 물론이고, 인터뷰를 할 때 각 단체별로 물어보았던 모임 가능 날짜를 토대로 행사 날짜를 잡았다.

12월 14일 (금) ~ 12월 15일 (토). 1박 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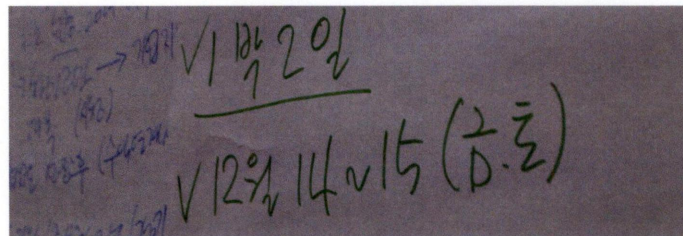
행사의 주축이 되는 프로그램의 콘셉도 확정했다.

소그룹 주제방 (강의 혹은 토론)

행사 준비를 위한 역할분장도 새로이 했다.

구분(팀)	담당
홍보	김민기, 이양우
기획	배준영, 신봄, 박소현
행정지원	박소현
섭외/대관	윤동현, 박효진
후생/운영/진행	(행사 당일 업무 분장)
정리/기록	윤동현

사업 일정이 여유롭지 않았기 때문에, 19일~25일까지의 일정을 함께 작성했고, 회의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월(19일)	화(20일)	수(21일)	목(22일)	금(23일)	토(24일)	일(25일)
오프라인 기획 회의	회의 정리 장소 섭외 여부 (시흥)	1차 기획		2차 기획		20:00 온라인 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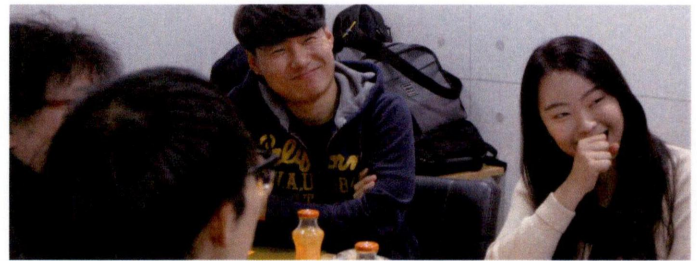
기획팀은 한 주 동안 2차 기획까지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며, 섭외/대관 팀은 회의 다음 날부터 바로 장소 섭외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다른 팀 모두는 각자가 맡은 역할을 수행하는 데 박차를 가했다.

김민기 : 이날 회의 아주 좋았어. 정리가 싹~ 되는 게, 이걸 잘 되겠다 싶더라.

결과는..

앞으로 로또는 자동으로만 해야지...

배준영 : 드디어 문화청년U 첫 행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 결정했었지. 그런데, 덜컥 네트워크행사의 기획을 담당하게 되고...ㅋㅋ 사업계획서를 쓰게 되면서 부담이 많이 됐어. 이번 회의와 실제 네트워크 행사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기획안을 빨리 확정지어야했는데, 퇴근 후 소현쌤과 계속 주고받으며 부지런히 기획서 쓰고, 피드백 받아서 가까스로 완성해낼 수 있었어.



11. 불꽃은 꺼지기 직전에 가장 밝게 빛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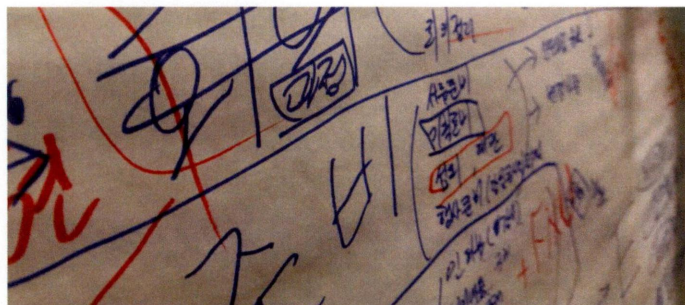


일시 : 2018년 12월 13일

장소 : 파주 헤이리마을 하이드 하우스

참석자 :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사무처장, 멘토 신희영, 문화청년U 6명
(박효진, 윤동현, 배준영, 이양우, 박소현, 김민기)

13일에 행사장소인 하이드하우스에 도착한 우리는 역할을 나누어 행사에 필요한 장을 보고, 행사 장소를 세팅했다. 그리고 최종 큐시트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의 안건은 '계획서 내 일정 수정'과 '결과보고서 작성 방식에 대한 논의'였다.



참가자가 적었기 때문에 오전에 계획되어 있던 '단체 소개'와 '아이스 브레이킹'시간 등이 불필요하게 되었고, 소그룹토크를 진행하기도 애매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정 변경은 필수적이었다. 결국 참가자가 없었지만, 문화청년U 우리들을 위해서도 즐겁게 한바탕 놀 수 있는 기회였다. 행사 첫날인 14일 멘토분들이 오시기 전 시간은 온전히 우리들을 위한 시간으로 수정했다. 헤이리에 온 만큼, 헤이리 마을을 구경하는 시간을 기획했다. 각자 자유롭게 돌아보는 일정이었다.

소그룹토르크를 진행할 수 없었기에, 멘토들이 오시는 시간과 해주실 역할에도 변동을 가해야 했다. 우선 주제 강의 이후에 소그룹 토르크를 진행해주시기로 했던 양철모 선생님은 원래 예정된 시간에 오시되, 주제강의에 결들여 소그룹토르크 주제에 대한 멘토링을 함께 해주시기로 하셨다. 박도빈 선생님도 원래 예정된 시간에 오시되, 소그룹 토르크가 아닌 강의 형식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으로 변경했다. 또한 김수미 선생님께서는 원래 예정된 시간보다 늦게 오셔서 저녁식사 후 힐링부스에 집중해주시는 것으로 변경했다.

다음으로 우리들은 올해의 사업 결과보고서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결과보고서의 콘셉은 어떻게 할 것인지, 내용 구성 형식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 했다.

기존의 결과보고서 형식을 벗어나기로 했다. ‘청년’들이 모인 ‘문화청년U’만의 발칙함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다. 우리들은 초기의 목표와 달리 참가자 모집이 되지 않은 것을 ‘실패’라고 재미있게 규정하면서, ‘이렇게 하면 실패한다.’, ‘실패하는 방법’, ‘실패 백서’, ‘완벽한 실패록’과 같은 콘셉을 생각해나갔다.

동시에 무조건 날짜별 순서를 따라가면서 정리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몇가지 주제를 정해 인상 깊었던 주제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해보기로 했다. 우리가 만나서 행사를 진행하기까지의 과정 속에서 서로 기억에 남는 사건이나, 불만이 많았던 일, 혹은 하고 싶은 말이 있던 일 등이 있을 것이라는 것에 모두 동의했기에 이러한 결과보고서의 테마는 곧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었다.

우리 인원수를 고려하여 크게 6가지 주제로 분류가 되었다.

구분	담당	내용
인터뷰 / 설문	배준영	인터뷰 목적, 단체 선정, 질문 선정, 인터뷰 과정, 인상 깊은 사건 등
과정 (회의)	윤동현	회의 날짜, 내용, 참가인원, 주제, 의견, 특별한 일 등
준비	박효진	서류 준비, 기획 준비, 섭외, 대관, 행사 준비 과정, 인원 모집, 홍보, 변경 사항 등
강의	이양우	강사 인터뷰, 강의 내용, 주제, 반응 등
운영	김민기	변동 사항, 행사 운영, 애로 사항, 결과, 해장 토크 내용, 동네한바퀴 내용 등
보고	박소현	정리, 취합, 보고서 작성 등

동시에 각자가 잘 해낼 수 있는 부분을 정하고, 각 주제별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논의했다.

1. 자신이 맡은 부분을 객관적으로 정리한다.
2. 자신이 맡은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코멘트를 기록한다. 그리고 다른 구성원들의 코멘트를 취합한다.
3. 자신이 맡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 코멘트를 기록하여 전달한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내용을 채워 나가기로 했다. 객관적인 정리와 더불어 ‘청년’인 우리들의 발칙하고 솔직한, 그리고 재미있는 의견들이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인상 깊은 결과보고서가 나올 것이라 기대했다.

저녁 9시경에 시작한 회의는 자정이 되어야야 끝이 났다. 회의가 끝나기에 앞서 우리들은 결과보고서를 위한 최종 원고 작성 마감 기한을 정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1차 공유 : 12월 22일

2차 공유 : 12월 29일

최종 마감 : 12월 31일

위와 같이 향후 일정을 계획했다. 우리는 12월 22일 날 서로가 어떻게 자신의 부분을 작성하려고 하는지, 잘 작성하고 있는지에 대해 공유하고 피드백을 가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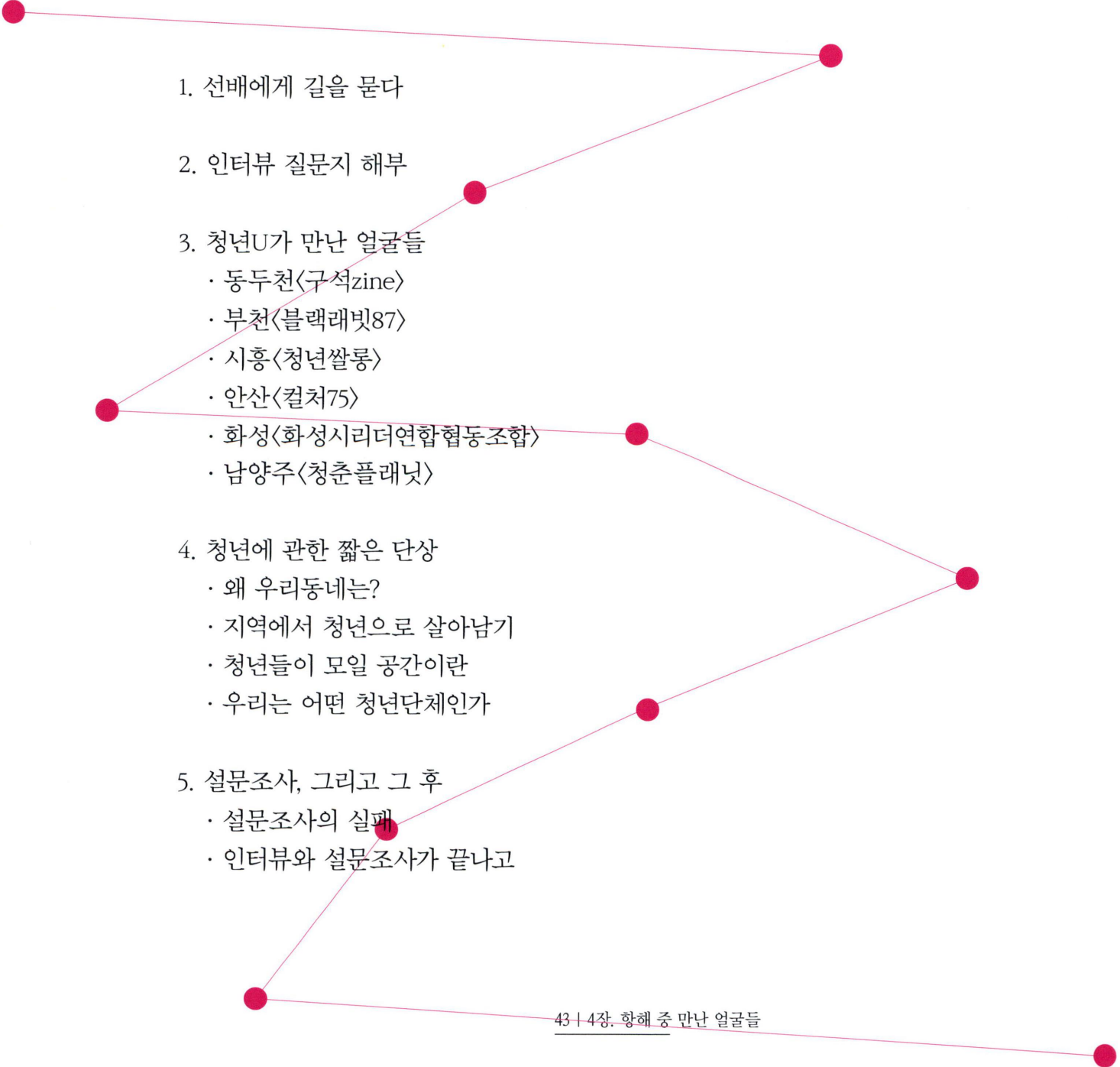
4장. 항해 중 만난 얼굴들

인터뷰·설문

청년U가 만난 얼굴들

문화청년U 배준영의 시선





1. 선배에게 길을 묻다

2. 인터뷰 질문지 해부

3. 청년U가 만난 얼굴들

- 동두천<구석zine>
- 부천<블랙라잇87>
- 시흥<청년쌀롱>
- 안산<컬처75>
- 화성<화성시리더연합협동조합>
- 남양주<청춘플래닛>

4. 청년에 관한 짧은 단상

- 왜 우리동네는?
- 지역에서 청년으로 살아남기
- 청년들이 모일 공간이란
- 우리는 어떤 청년단체인가

5. 설문조사, 그리고 그 후

- 설문조사의 실패
- 인터뷰와 설문조사가 끝나고

1. 선배에게 길을 묻다

청년문화사업이란 무엇일까? 청년이 주체가 되어 문화기획을 하는 것일까.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일까. 둘 다인가. 지역특성화프로젝트 동네 한 바퀴라는 이름 아래 새로운 문화기획을 해보자는 취지로 모인 우리 역시 청년이었다. 그리고 지역특성화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 우리는 '청년이 하고 싶은 걸 하면 그게 그 지역의 색이 될 수 있다'는 답을 내렸다.

그렇다면 청년이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답은 우리 또한 청년이기에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 된다고 쉽게 생각할 수 있었다. 그것은 '나는 노래를 잘하고 싶어'가 될 수도 있고 '나는 취직을 하고 싶어'가 될 수도 있다. 이후 우리의 고민은 이러한 욕망을 모아 어떻게 재미있게 풀어낼 것인가에 집중하면 될 것이다.

하지만 그때의 우리는 스스로가 청년임에도 각자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 쉽게 말하지 못했다. 어쩌면 자신과 경기도라는 지역과의 연결고리를 고민했을 수도 있다. 돌이켜보면 나는 지역특성화 사업이라는 단어의 무게에 눌려 '내가'하고 싶은 것에 대해 쉽게 말하지 못했는지도 모른다. 청년과 지역의 연결고리에 대해 깊게 고민해본 적이 없었고 남을 설득할 만큼 확신에 차있지도 않았다. 문화기획하면 나보다는 남을 위한 것으로, 되도록 모두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더욱 그랬다.

어쩌면 모두가 처음이었기에 쉽게 결정할 수 없는 게 자연스러웠다. 하고 싶은 것이 빠진 채, 해야 하는 것에 대한 논의만 이어졌다. 거기에 어떤 결과를 내도 괜찮으니 무언가를 해보라는 주문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쉽게 정할 수는 없었다. 올해는 시간이 없으니 빨리 무언가를 해서 결과를 내자는 수준의 의견만 더해졌다. 이 지점에서 다들 답답함을 느꼈을 것이다.

그렇게 갈팡질팡하던 우리는 그렇다면 일단 청년들에게 물어보자는 쪽으로 자연스럽게 의견이 모아졌다. 그렇게 인터뷰, 설문조사 등 그들에게 어떻게 물어볼지에 대한 방법론으로 이야기가 전환되었다. 하지만 어쩌면 이것은 결정을 미루는 꼴에 지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시간은 흘러가고 이렇다 할 큰 수확 없는 회의에 답답했던 우리는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한 논의라도 진전시켜야 했기에 많은 에너지를 쏟았다.

이전 회의들에서 청년의 시각에서 청년들의 고민과 맞닿은 사업을 하는 게 좋겠다는 합의가 있었다. 인터뷰와 설문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키면서 청년들의 주된 고민이 무엇인지 알아볼 '질문지'를 만들었다. 동시에 인터뷰, 설문의 대상이 될 경기도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청년U와 네트워크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단체들을 구체적으로 찾아보았다.

누구에게 무엇을 물어볼 것인지, 그리고 그로부터 무엇을 얻을 것인지가 확실해야 비로소 그 결과를 바탕으로 어떠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그 준비과정이 다소 길어진 것에 비해 충실히 준비하지 못했다는 점, 그로부터 얻어낸 것이 기대보다 적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청년 네트워크 행사는 이미 이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이고 인터뷰나 설문의 결과가 과연 네트워크 행사에 크게 반영되었느냐하면 딱히 그렇지도 않기 때문이다. 크게 놓고 보면 ‘인터뷰 및 설문조사 → 네트워크 장 만들기’가 올해 우리의 과정이었다. 인터뷰와 설문을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물어봤다. 가장 먼저 선배단체는 어떻게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면 좋을지에 대한 그림을 그려볼 수 있었다. 또 지역에 자리 잡은 선배단체들의 활동내용, 운영구조, 고민, 향후 계획들을 들을 수 있었고 경기도의 지역특성화, 워라밸 등 청년들의 인식과 고민에 대한 그들 나름의 대답을 들을 수 있었다. 또 향후 네트워크행사를 염두에 두었기에 그에 대한 의견도 모을 수 있었다. 개인적으로 가장 큰 수확은 문화청년U가 청년단체들과의 네트워크에 처음 손을 내밀었다는 것이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그들과의 네트워크는 큰 힘이 될 것이라 믿는다.

2. 인터뷰 질문지 해부

인터뷰 단체의 활동, 구조, 고민, 청년단체와 그곳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의 인식, 네트워크 행사에 대한 의견 등 인터뷰 질문지에는 올해 우리가 했던 고민들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우리는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통해 청년단체와의 네트워킹 뿐 아니라 앞으로 문화청년U의 활동방향에도 도움을 얻고자 했다. 치열했던 고민과 회의의 결과물인 만큼 인터뷰 질문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올해 우리모습이 보인다.

문화청년U 청년단체 인터뷰 질문지

문화청년U

안녕하세요? 저희는 '문화청년U'라는 올해 처음 활동을 시작한 단체입니다. 문화인이려면 모두 바쁜 이 계절에, 다소 어려운 부탁일 수 있는 인터뷰에 흔쾌히 응해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일 인터뷰에 앞서 주요 질문내용을 먼저 보내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뷰에 앞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귀한 인터뷰 내용을 잘 정리하고자 인터뷰 내용의 녹음과, 영상촬영을 하고자 합니다. 녹취록은 인터뷰 정리에만 사용되며 실명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내용 등 공개가 불편한 내용은 삭제 가능합니다.

촬영된 파일은 활동 증빙용으로만 사용됩니다. 혹시 인터뷰 시 질문 중 불편한 내용이 있으면 바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하시기 곤란한 질문이 있다면 답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전체 내용은 7가지 질문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내용의 예시를 두었으니 참고하시어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1. 귀 단체의 조직 규모와 구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 단체의 설립년도, 구성인원, 구성원 간 남녀 비율 등 간단한 단체 소개

당연하게도 단체의 기본사항을 묻는 질문. 문화청년U는 대부분 2018년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진행한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과정을 함께했던 사람들 중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일거리창출 등 새로운 삶의 형태를 고민하고자 모였다. 올해 처음 지역문화와 문화기획, 청년활동에 대해 접하게 된 사람도 있다. 실제 청년단체 활동의 여러 형태에 대해 알아보는 것은 매우 효과적이다.

2. 단체만의 운영방식이나 활동 내용에 대한 자유로운 이야기가 듣고 싶습니다.

- 귀 단체의 설립 계기와 목적이 있다면 무엇인지
- 주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구체적으로)
- 활동 별 담당이 있는지, 있다면 업무/역할 분장은 어떤 구성으로 되어있는지
- 지금 맡은 역할 이외에 도전해보고 싶은 역할이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문화청년U는 대부분 2018년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진행한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과정을 함께했던 사람들 중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일거리창출 등 새로운 삶의 형태를 고민하고자 모였다. 올해 처음 지역문화와 문화기획, 청년활동에 대해 접하게 된 사람도 있다. 실제 청년단체 활동의 여러 형태에

대해 알아보는 것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3. 단체의 재원구조 및 재정운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 귀하가 속해 있는 단체의 재원구조(출자, 공모, 기업 및 지역의 지원, 사업별 지원구조 등)는 어떤 형태인지
 - 현재의 재원구조 긍정적인 부분과 어려움이 있다면 무엇인지
 - 현재 활동에서 단체 구성원에게 활동비, 인건비, 사업비 등은 어떤 기준과 비중으로 분배되고 있는지 (예를 들어 월, 분기 등 정기적 분배, 프로젝트별, 참여별 인건비 등)
- 일거리 창출을 넘어 청년 스스로가 만드는 새로운 삶의 형태를 고민하면서 현실적인 돈 문제를 뺄 수 없다. 지역에 먼저 자리 잡은 청년단체의 재정운용을 알아보는 것은 청년 문화기획자로서의 활동하는 것의 지속가능한 형태를 고민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4. 단체와 구성원들의 활동에 관한 내용을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 다양한 활동이 많은데 그중에 청년단체 활동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지
- 단체 활동이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혹은 개인의 삶이 단체 활동을 하는데 어떤 영향을 주는지

위의 두 질문은 우리 스스로에게도 적용되는 질문이기도 하다. 나는 문화청년U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지,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 말이다.

- 청년단체 활동이 지역사회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으며 서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동네한바퀴’라는 이름아래 모인 우리 역시 경기도 지역과 청년의 연결고리가 무엇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답을 찾고 싶었다.

- 다른 다양한 단체들과 주기적으로 소통하고 계신지, 그렇다면 어떤 단체와 어떤 방법으로 관계를 맺고 계신지

앞으로 문화청년U의 네트워킹에 대한 실마리를 얻을 수 있었다. 어느정도 올해의 네트워킹 행사를 염두에 둔 질문이다.

- 단체 활동 이외에 다른 외부활동을 하는 것이 있으신지, 있다면 무엇인지
- 본업(생계수단)이 따로 있는지, 단체 활동에만 몰입하고 계신지
- 본업이 있다면 본업과 활동에 투자하는 시간의 비중과 두 가지를 병행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 단체의 활동에만 몰입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몰입으로 인한 장단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문화청년U 역시 본업과 본업이 아닌 사람이 섞여있다. 학생, 문화원 직원, 청년작가, 문화활동가 등 각자 나름의 입장에서 활동의 이유와 장단점을 찾고 싶었다.

5. 귀 단체의 향후 계획이 궁금합니다.

- 현재의 운영방식에서의 긍정적 요인과 문제점(ex. 재원구조, 재정운용방식, 지속성여부, 구성원의 의식, 단체 활동 범위, 지역이나 관련 단체와의 소통방식 등)들을 고려한 향후 계획이 있다면 무엇인지

다른 단체의 고민과 향후계획 역시 문화청년U가 생각해볼 고민이기도 하다.

6.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에 관한 질문입니다.

- ‘하고싶은 것’을 위해 ‘해야하는 것’을 포기할 수 있는지, 두 가지를 융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기위한 방법으로 일자리에 취직하는 기존의 형태보다는 스스로 일거리를 창출하여 살아간다면 어떨까. 그 방법에 대한 고민이 담긴 질문이다.

- 요즘 청년들은 ‘워라벨(Work and Life Balance)’을 어떻게 인지하고, 어떤 방법으로 균형을 잡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귀 단체는 얼마나 실행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는지

여기서 말하는 워라벨은 노동과 여가의 균형이다. 청년들은 ‘라이프’를 추구하면서 동시에 ‘워크’또한 챙기고 싶다. 그것이 실제로 가능할지 청년단체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는 질문이다.

- 과거와는 다른 현재 청년들만의 특징은 무엇인지

회의과정에서 나왔던 기타 질문거리들이 모두 등장하고 있다.
다소 대답하기 힘든 광범위한 질문일 수 있다.

- 다른 단체와의 교류를 통해 벤치마킹을 하고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신지, 계신다면 어떤 방식의 교류를
원하시는지

청년단체 네트워크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

7. 문화청년U와 함께하는 단체 교류 활동에 동참해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문화청년U'를 포함한 다양한 단체들이 모임 기회가 있다면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을 '답정너'라고 한다.

- 보통 단체들은 워크숍, 토크쇼, 포럼 등의 형태로 진행되는데
청년단체 모임으로는 어떤 것이 가장 적합할지, 혹시 다른 형태의
모임을 생각하신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 무박, 1박 2일, 2박 3일 중 적당한 기간은? 선택한 기간의 참여는
가능하신가요?

올해 진행할 네트워크행사의 구체적인 형태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싶었다.

- 다른 청년 단체와 논의하고 싶은 주제나, 들어보고 싶은 강의 또는
참여해보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무엇일지(서로가 원하는
프로그램 구성을 해 보고자 한 질문입니다)

- 12월 8일부터 12월 16일까지 일정 중 참여가 가능/불가능한
날짜는 언제인지요? 평일 제외

- 단체 구성원은 대략 몇 명 정도 오실 수 있는지요?

-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청년 문화 키워드는 무엇이 될지 한 가지만
말씀해주세요

혁신, 자생, 소통 등 다양한 대답이 나왔던 부분이다.

문화청년U가 뽑는 키워드는 무엇이 될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
'일거리 창출' '발칙함' 등이 떠오른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함께 고민하고 발전하는
'문화청년U'가 되는데 좋은 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3. 문화청년U가 만난 얼굴들

첫 번째 얼굴

구석zine

인터뷰어 김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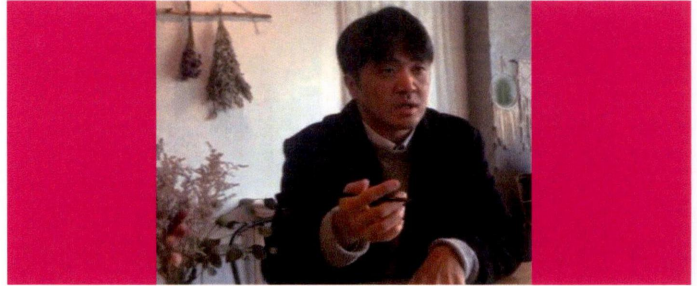
인터뷰이 구석zine 리더 이경렬

활동지역 동두천

설립연도 2018년 4월

활동형태 동아리형태. 비상설적. 일이나 행사가 있을 때 가능한
사람이 와서 활동.

인원구성 9명 (남 4 / 여 5), 20대~40대 초반



“책을 읽고 얘기를 하는 활동을 말로만 하니까 뭔가 휘발이 되고,
그래서 이것을 글로써 써보자. 책을 읽는 방법으로써 결과물을
만들어보자고 하게되었어요.”

<구석zine>은 지난 3월 동두천시평생교육원 동아리활성화 사업에
'다양한 내용이 담긴 독서 소식지를 제작, 배포하여 지역의 독서 및
글쓰기 문화를 촉진하겠다'는 호소로 공모에 지원했지만 떨어졌다.
하지만 거기서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동두천 동네책방
<코너스툴>에서 비상대책위원회가 긴급소집 되었고, 회의 끝에
지원 없이 우리의 자생력으로 보기 좋은 매거진을 만들어 보자고
'코너결의'를 했다.

구석zine은 서평이라고 하기에는 좀 거하고, 독후감이나
독서 감상문은 뭔가 멋이 없는 내용을 다룬다고 한다. 여하튼
'구석진'동네에서 책 읽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나누던 이야기를
기록하기 위해 활자와 그림으로 잡지라는 매체로 기록하는 것이다.

“책방에서 같이 책을 설정하고 읽는 식이에요. 모두가 항상 하는 건
아니고 평소에 3-4명 정도가 참여해요. 관심이 있는 책이면 참여를

하는 식이라 구속적이고 강요적이지는 않아요. 그리고 카톡방 같은데서 좋은책 정보를 공유해서 선정해요.”

그를 위해 책방에서 매달 금요일 저녁에 책1권을 설정을 해놓고 책을 읽는 모임이 있다. 시간이 되거나 관심이 있는 분들이 자유롭게 참여한다. 20대들이 주로 관심있는 분야는 문학, 한국 소설, 에세이, 외국 고전, 독립 출판물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있다.

구석zine의 고민

“공모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나? 라는데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사실 독서라는 것은 좋은 일인데, 시에서 하는 공모를 통해 진흥을 하는 것보다 시 자체에서 독서를 위한 정책이나 예산이 배정이 되어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동아리든 기업이든 신생단체라면 어느 곳이나 자금마련이 쉽지 않다. 재원구조의 어려운 점을 물었을 때 <구석zine> 이경렬 대표 역시 어려운 점을 토로했다. 지자체 차원에서 독서를 위한 예산을 지원해주었으면 하는 의견도 있다. 아직까지는 동아리 수준의 활동을 하고 있으며 신생단체인 만큼 꾸준히 결과물을 내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평생 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의 범위가 넓은데 <구석zine>은 그 가운데 독서만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참여를 할 의향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의 경우 수용적인 입장의 프로그램에 그치고 있다는 것. 행사가 있으니 오라는 식, <구석zine>처럼 행사를 만들어서 소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어 아쉬운 상황이다.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이 중 장년층을 위한 것들이 많아서 안타깝다고 생각해요. ...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분명 우리만의 언어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좀 있겠다고 생각해요.”

청년단체를 선택하게 된 이유에 대해 이경렬 대표는 문화원과 같은 공간에서 진행되는 기존 프로그램이 중장년층에 집중된 사업에 대해 안타까워했다. 당장 구석zine을 만들게된 계기가 옥천과 같은 곳에 가도 지역신문이 있고 청년들이 만드는 잡지도 있는 등 청년들이 만드는 것들이 많은데 동두천에서는 그것을 찾아볼 수 없어서 직접 만들었다는 것이다. 청년이 만드는 출판물이 없고 지역이 중심이 되는 출판물이 없어 직접 만들게 되었다는 것.

예전에 있던 건물들에 대한 향수 동네에 대한 추억과 같은 기록을 남기는 것이 지역에 입장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역에 대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청년과 지역 모두의 입장에서 중요하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문화를 만드는 것. 구석진이 만약에 확장이 된다면 이름에 걸맞게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한다. 지금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정리하고 기록물을 남겨야 후손들에게 전할 수 있고, 사회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한다. 지역에 대한 청년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자극을 주고 영향을 주는 문화를 만들고자 노력한다. 스스로도 지역과의 연계의 중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구석zine의 향후계획으로 먼저 청년들의 인문학 실험 '삼삼오오'에 공모를 낸 것이 선정이 되었다. 동두천에서 책 읽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할 예정이라고 한다. 동두천에 책 읽는 문화를

만들기 위한 대안을 만드는 프로젝트인 것이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변방의 북소리'라는 이름의 책으로 출간할 예정이다.

“사람들이 와서 강연을 듣고 얘기를 나누고, 이런 경우가 많아지면 사람들의 생활이 좀 더 풍요로워 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동네책방 <코너스툴>에서도 대부분이 자기 본업이 있으면서도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하고 싶은 일을 위해 아무리 힘들어도 꾸준히 이어가는 사람도 있다. 지금 청년세대는 고용 등 미래에 대한 불안이 많다. 그럼에도 직장 생활도 하면서 하고 싶은 일을 하기위해 청년들에게는 많은 노력이 따른다. 구석zine 리더 이경렬은 이런 부분에 대해 생각하고 분투를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건 분명 있는 것 같다는 의견이다.

구석zine의 활동공간 '동네책방'코너스툴

동네책방 <코너스툴>은 서점이다. 이곳은 책을 파는 곳이기도 하지만, 이용목적에 따라 도서관처럼 책을 읽는 공간도 되고, 공부를 하거나 구석진처럼 동아리 활동을 하는 공간이 되기도 한다. 독립출판에 관심을 가지고 시작한 코너스툴은 책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 크지 않은 공간이지만 문화생활을 즐기만한 곳이 그리 많지 않은 동두천 주민들은 코너스툴같은 문화공간에 목말라 있어 반가워 했다고 한다. 아직은 시작 단계이지만 앞으로 지역주민이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

인터뷰 후기

김민기 : 인터뷰해온 단체들을 분류하고 그들이 괜찮은 날짜, 그들이 원하는 프로그램등을 분류하고 나누는 과정이 인상깊었어. 되게 합리적인 방법이라 생각했던 것 같아.



두 번째 얼굴

블랙래빗87

인터뷰어 이양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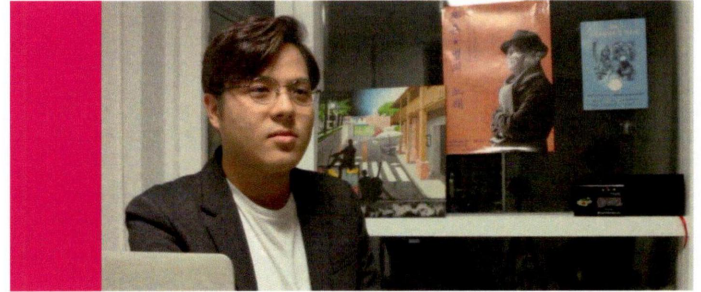
인터뷰이 블랙래빗87 한도영 대표

활동지역 경기도

설립연도 2010년

활동형태 문화예술기획사

인원구성 5명



공연, 축제, 문화기획을 하는 단체, 블랙 앤 아트 컴퍼니(이하 블랙래빗87)는 클라리넷 연주자 한도영 대표를 중심으로 모이게 된 기획팀이다. 팀원은 대표를 포함하여 5명으로 전문연주자를 보유하고 있기에 참가자들이 더욱 만족하는 사업을 기획할 수 있는 점은 이 기획팀의 큰 장점이다.

기획팀에서 문화기획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는 점은 팀워크이다. 끈끈한 팀워크를 중심으로 블랙래빗87 팀원들은 동료 보다는 새로운 하나의 가족이라고 표현한다. 11월에 진행된 한 팀원의 발표회에 블랙래빗 팀원 모두가 같이 가게 되어 결국 광주에서 블랙래빗 단합회가 열리기도 했다. 또한 자유롭고 개성도 있지만 블랙래빗이 갖고 있는 그들만의 체계가 있기에 유연한 기획과 체계적인 업무분담이 가능한 것이다.

특히 팀원의 대부분이 전문 연주자이기에 이들은 음악축제 기획에서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 명 한 명이 다양한 업무를 맡을 수 있는 멀티 플레이어인 것이다. 또한 기획, 연출, 운영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이 연주자, 공연자 경험이 있기에 그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다. 그렇기에 양면에서 만족도 높은 기획이 탄생한다.

신선한 기획들을 뽑아내는 그들은 다양한 경험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일 뿐만이 아니라 라이프 밸런스 또한 마찬가지이다. 한도영 대표는 일에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있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에너지가 있기에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는 일에서도 재미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블랙래빗87 팀원들은 장기간 여가를 즐기다 보면 노는 것도 피곤해서 차라리 일을 하고 싶어질 때가 오기도 했다고 한다. 그들은 적당한 여가와 일이 맞물리기에 더 양질의 기획을 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블랙래빗87이 말하는 청년문화의 키워드는 '자생'이다. 문화기획을 하는 대부분의 단체들이 그렇듯이 삶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기획 이외에도 삶을 영위하기 위한 콘텐츠가 필요하다. 또한 블랙래빗87은 유연한 기획을 위해서 단체 스스로가 살아남을 수 있는 독립적인 콘텐츠를 만들어 내야 옅매이지 않을 수 있다고 한다.

한편 블랙래빗87은 2018년도 순직 소방공무원 추모식을 맡으며 앞으로는 더욱 사회공헌적인 기획과 사업들을 해보고 싶다는 의견을 밝혔다.

인터뷰 후기

이양우 : 블랙래빗87 인터뷰를 녹음실에서 해서 중간중간 연주소리 때문에 촬영이 끊긴 적이 많았었어. 원래 친한 단체이기 때문에 더 재미있는 분위기속에서 인터뷰 했었고 그간 모르던 단체 속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어.



세 번째 얼굴

청년쌀롱

인터뷰어 박효진

인터뷰이 청년쌀롱 김형석 대표

활동지역 경기도 시흥

설립연도 2015년

활동형태 문화예술기획사

인원구성 10명 이상, 남녀(50:50), co워킹 오피스에 있는 사람들,
시흥에서 활동하는 청년



시흥의 청년들은 여가를 즐기거나 무언가를 기획할 때, 시흥 이외의 지역으로 나가야한다. 이것들을 동네 안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여, 슬리퍼만 신고 편하게 올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싶어 청년쌀롱을 기획하게 되었다.

청년쌀롱은 청년 뿐 아니라 청소년, 학부모 등 상관없이 이용 가능하다. 카페는 한번 나가면 다시 들어올 수 없고 오래 있으면 눈치가 보이는데 청년쌀롱에서는 자유롭게 이용가능하다.

청년쌀롱은 단체가 생기고 공간이 만들어진 케이스인데, 청년쌀롱이라는 이름으로 강의를 만들고 모임을 만드는 활동을 하였다. 활동들을 하면서 공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였고, 경기도 따복공동체 사업에 공간활동에 대한 공모를 하여 지원을 받아 청년쌀롱의 공간을 만들게 되었다. 공간 안에서 청년쌀롱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고 기획하였다.

주로 '영화모임', '책모임', '술모임' 등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나 단체원들이 원하는 날 원하는 시간에 보통 이루어지곤 한다. '영화모임'은 음식과 영화를 함께하며, 청년쌀롱이

가진 공간에 프로젝터를 이용하여 관람한다. '책모임'은 초반에 독서하고 공유하는 목적에서 최근에는 페미니즘 관련 서적을 읽고 토론하고 있다. '술모임'은 지역 내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하여 청년들이 원하는 날에도 진행하고 있다.

청년살롱은 '누구나 아카데미'라는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무언가를 가르치고 싶은 사람 또는 무언가를 배우고 싶은 사람 사이에는 금전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금전적 거래 없이 가르치고 싶은 사람과 배우고 싶은 사람을 연결하여 주는 프로그램이다.

청년살롱의 공간

-오픈라운지, 키친 : 09:00-22:00 원하는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

(공간사용료 1일 5천원. 한 달 만원 후원비.)

-회의룸 : 독립된 공간으로 회의, 각종 모임에 활용하는 공간

-YMCA 사무실

-코워킹 오피스 : 1인 창업가, 활동가 등 다양한 직무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사무실. 한 달에 10만원으로 시간 상관없이 이용가능하다. 코워킹 오피스에 입주한 사람들은 모든 공간을 주인처럼 이용할 수 있으며 공간관리에 함께하게 된다. 5자리 중 4자리 사용 중이며 1인 창업가, 건축 창업가, 디자인, 잡지제작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 있다.

청년살롱의 재정

인상적인 부분은 청년 커뮤니티 공간을 위한 공모사업에 곧잘

지원하여 사업비를 받아낸다는 것. 그러나 주기적으로 나오는 금액은 없는 편이라 활동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청년들의 인건비 책정은 따로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프로젝트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기에 힘들다는 것이다. 경기도 따복공동체 사업 측에서도 인건비 문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만 책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고민하는 부분이다.

갈 곳 없던 시흥 청년들을 모으다.

지역 안에서 외부로 인력이 유출되는 것을 봐왔고 외부로 유출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청년들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것이다. 청년단체로서 기획한 우리의 프로젝트들은 청년들 간의 네트워크를 확산하여 그들의 외부유출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역사회는 청년과 공간을 위한 공모전을 제공하여 청년살롱이 활동할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하고 있다.

아직은 막막한 재정구조

청년살롱은 현재 공모 뿐만 아니라, 회원비를 통해 운영되고 있는 시흥 YMCA의 지원을 받기도 하다. 그러나 지원금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또한 콘텐츠를 기획할 때도 충분하지 않아 예산을 많이 투자할 수 없어서 자비로 진행하기도 한다. 아직 재정구조에 대해서는 해결방안이 없다.

청년살롱 담당자는 공간을 운영하면서 서울에서 '여름마실'이라는 투어 프로그램을 다녀왔다. 그곳은 공공기관에서 나오는 재정지원이 잘 되어 있어보였다고 한다. 그리고 그곳은 프로그램을 할 때마다, 행사를 진행할 때마다 직원이 전담하는 것이 아닌, 운영위원회를

선발해서 상근직원이 힘을 덜 수 있었다.

청년쌀롱의 운영위원회는 창단부터 함께하고 있는데, 리프레시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다. 운영위원회나, 활동하고 있는 청년들의 활력을 위한 재정적 지원이 힘들기 때문에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모색 중이다.

청년쌀롱이 뽑은 청년문화 키워드

'소통'개인적인 공간도 필요하겠지만 사회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공간을 고민한다.

인터뷰 후기

박효진 : 인터뷰 단체와 연락하는 것부터 쉽지 않았어. 먼저 연락을 해도 답이 없는 경우가 있었는데 하염없이 기다리다가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서 다른 단체에 연락을 하기도 했지. 마지막에 연락을 받아주시고 인터뷰 요청도 흔쾌히 승낙해주신 단체가 '청년쌀롱'인데 인터뷰를 하면서 다른 단체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해!



네 번째 얼굴

컬처75

인터뷰어 윤동현

인터뷰이 컬처75 김태현 이사장

활동지역 경기도 안산시 사회적 경제센터 중심

설립연도 2017년

활동형태 문화예술 사회적 협동조합

인원구성 조합원 약 130명(청년 예술인 60%, 오랫동안 예술 활동
해오신 분들 20%, 생활예술 하시는 분들 20%, (여성 6 :
4 남성)



“협동조합의 지향은 예술인이 아니라 시민을 향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75만 안산시민 누구 하나 문화적 혜택에서 소외됨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컬처75’라고 지었습니다.”

컬처75의 활동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문화정책적으로 지역의 예술인들이 지속가능한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안산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이 예술만 하면서도 충분히 지속가능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어볼 것인가?”

2) 안산에서 예술을 하는 예술인들이 자주 모여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소통을 하면서 배우고, 우리들끼리의 관계 맺음 속에서 지속
가능성을 높여내는 것.

3) 본연의 정체성과 의미를 잃지 않은, 따뜻한 가치를 담은 문화/
축제 기획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까지도 잘 해석해서 갈 수 있는 형태의 문화기획, 축제기획도 해야 되겠다.’

4) 예술 교육

“문화적 감수성을 함양하고, 창의적 사고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형태의 예술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졸업을 하고서도 안산에 머물러서

예술을 할 수 있는 ‘꺼리’들을 꾸준히 만들어내는 게 제 일입니다.

공모사업은 거의 없어..상근직원에 대한 일자리지원사업으로 임금 해결

재원구조는 늘 아쉬운 부분이다. 사실은, 안산시 일자리정책과에서 지원해주는 게 아니면, 컬처75라는 협동조합이 자력으로 상근직원에게 마땅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된다. 컬처75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적극활용하여 이윤을 남긴다. 문화사업들의 계약을 맡아서 대행하거나 축제의 한 섹션을 맡아서 대행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를 지급하기 어렵다. 이사장은 아직 수익구조가 없지만 다행히 상근자에 대한 인건비를 안산시 일자리정책과에서 지원해주기로 하여 만들어가고 있다.

지역과 긴밀한 관계 맺어야

문화예술 단체 활동은 지역 사회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먼저 그들과의 관계가 없으면 수입구조를 만드는 것이 힘들다. 관, 행정, 그리고 다양한 시민사회단체들과의 관계를 강조했다. 앞으로 ‘컬처75’의 조합원을 안 할 때보다 훨씬 예술 활동 할 기회가

많아지게 하는 것. 그리고 안산에서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의 문화기획 사업, 축제기획 사업, 예술교육 사업뿐만 아니고, 다양한 형태의 사업들을 기획해서 조합원들이 더 활발한 예술 활동을 그 안에서 벌일 수 있도록 만들 계획이다.

청년의 삶에 대하여

“하고 싶은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해야 하는 것에 몰두하는 것은 바보지만, 하고 싶은 것만 할 수 있는 건 없다.”

인터뷰에 응해주신 김태현 이사장님은 안산 예술인을 위해 힘써온 만큼 이 시대 청년에 삶에 대한 대답도 깊은 고민이 물어났다. 하고 싶은 것을 위해, 해야 하는 것을 적절하게 하되, 이왕이면 ‘해야 하는 것’의 형태가, ‘하고 싶은 것’범주 내에 있게 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일상적 워라밸’이나 ‘저녁이 있는 삶’, ‘주말이 있는 삶’은 어렵지만, 대안으로 ‘방학이 있는 삶’은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의견이다.

‘혁신’

김태현 이사장이 뽑은 청년 문화 키워드는 혁신이다. 전에 없던 새로운 것. 촛불과 같은 전에 없던 것의 가능성을 경험한 세대는 긍정적 에너지가 스며들어 있으리라 그는 혁신을 확신했다.

인터뷰 후기

윤동현 : 인터뷰 단체 정리와 분류를 효진쌤과 했었어. 우리들이 인터뷰하고자 했던 단체들의 대부분이 경기 남부지역에 몰려있었고, 그것에 대한 방안을 같이 고민하고자 했었지. 그런데 ‘경기

남부지역에 몰려있어요~어떻게 할까요?’라고 물었을 때, 사실 거의 모두가 침묵-----. 모두 바빠서 그랬을 거라 믿는다...

지역 편차가 심하니까, 자기가 인터뷰하기로 한 1개의 단체뿐 아니라, 지역의 균등을 고려하여 북부지역의 단체도 하나 더 인터뷰하자는 대안이 나왔을 때, 솔직히, ‘좋은 대안이다.’라는 생각과 ‘할 일이 많은데...’라는 걱정이 동시에 들었던 것 같아. 결국은 각자 하나씩 했지만.

다시 생각해봐도, 촉박했던 시간이 아쉽다. 진행의 촉박함을 촉진시킨 것도 사실 우리가 잘 모르고 갈팡질팡해서 인 듯 해.

그리고 인터뷰 단체에, 고마움의 마음을 담은 선물을 각자 준비했었는데, 나는 도자화병을 준비했어. 민기쌤 도움으로 예쁜 작품을 얻을 수 있었는데, 아직 못 드렸다. 큰일.. 언제 드리지? 2019년에 또 만나는 것으로 해야겠다. ^^*

↳ 박소현 : 난 가장 먼저 북부지역으로 선택했어..! 너희들을 위해!!^^ 남부끼리 해결해라..ㅎㅎ



다섯 번째 얼굴

화성시리더연합협동조합

인터뷰어 배준영

인터뷰이 화성시리더연합협동조합 <청청당당> 김초롱 대표

활동지역 경기도 화성시

설립연도 2009년

활동형태 청년 소셜벤처

인원구성 7명



화성시리더연합협동조합 이하 청청당당은 청소년들의 활발한 자치활동을 위해 출발했던 2009년 학생회장 출신 리더들이 모였다. 화성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청년, 청소년간 프로젝트형 진로멘토링을 통해 성장하였다. 청청당당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안에서 다양한 꿈을 접하고 개발하고 공유하는 일상적인 네트워크를 만들고자 한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문화기획자라면 익숙한 문구일지 모른다. 도시재생, 마을 만들기 사업 등을 표현하는 문장이기도 하다. 청청당당 역시 위 문구를 모티브로 삼아 청년-청소년 진로 멘토링사업에 노하우를 쌓아 오고 있었다. 우리는 누구나 한번쯤, 평생에 걸쳐 꿈과 진로에 대해 고민했었고, 고민하고, 고민할 것이다. 따라서 지역 내 시민사회, 기업, 마을, 개인, 공공기관 등 다양한 섹터의 그룹들이 모여 협력하고 해결하는 진로문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각 학교의 학생회장들이 모였기에 청소년과의 연계가 수월했던 것도 청소년 멘토링 사업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청청멘토링 - 청년-청소년 프로젝트형 진로멘토링

청청로드 - 청,장년 취,창업 지원 플랫폼

청청로컬 - 지역특화 화성 로컬작물 청년-농가 협력 플랫폼

청청스튜디오 - 공연 기획 온라인 채널

청청살롱 - 청년 오프라인 네트워킹 플랫폼

청청마켓 - 화성 내 기업 제품 유통, 판매 플랫폼

청청멘토링은 청청당당이 가장 많은 경험을 가진 사업이다. 중요한 것은 지역산업에 기반한 진로컨텐츠를 개발한다는 것이다. 청소년, 청년, 주민과의 관계를 통한 진로컨텐츠를 개발한다. 전문성, 협업에 기반한 진로 콘텐츠 개발을 통해 청년강사와 청소년 멘티가 한 팀을 이뤄 프로젝트를 기획, 실행하는 멘토링을 하고 있다.

새로운 공간에서 도약하다

“청년들은 사실 거창한 공간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생각을 공유할 공간이면 충분합니다.”

Q. 청청당당은 2009년 시작했지만 비교적 최근에 와서야 청년공간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대한 코멘트는?

A. 청청당당의 공간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단순히 오피스, 사업 진행할 공간 이상을 생각해보지 않았다. 청청당당 이후의 청년 스타트업과 공유공간이 만들어져야 한다. 공간이 어떻게 기획되어야 하고, 그 기회는 또 어떻게 주어져야 하는 지 우리의 고민들이 참고가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야기 한다.

우리는 케이스 스터티를 한다고 많이 돌아다녔다. 서울 창업허브, 무중력지대, 범계큐브 등의 역할을 하는 곳이 애초에 화성에 없다. 문제다. 지금의 이 공간이 모티브가 없었다. 이것도 우리가 겨우 만들어낸 고민거리인 것이다.

인터뷰 후기

배준영 : 화성의 자존심을 걸고 정말 여기 아니면 싫어! 라는 생각으로 집요하게 인터뷰를 요청했어. 입원하신 대표님이 나와서 인터뷰를 해주셨다!^^



여섯 번째 얼굴

청춘플래닛

인터뷰어 박소현

인터뷰이 청춘플래닛 장도원 대표

활동지역 경기도 남양주

설립연도 2016년

활동형태 비영리단체

인원구성 5명(대표, 회계, 디자인, 실무, 홍보)(남자 3, 여자 2)



“플래닛(planet) 뜻이 행성이잖아요. 행성을 보면 다양하고
무수한 행성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우주인데, ‘청춘플래닛’은
남양주의 청년들을 행성으로 표현해서 하나로 모아보자라는 취지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남양주시 인구가 68만명이다. 땅도 굉장히 넓다. 남양주시 안에서
움직이는데도 도로교통이 덜 발달되어 있다 보니 남양주시
내에서 움직여도 두 시간씩 걸리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큰 땅이고
수도권 근처에 있어 30분이면 서울도 가는 곳인데, 청년들을 위한
행사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서울권에 가보면 1년마다 청년,
청춘페스티벌, 청춘박람회 등 유명한 연예인들도 오고, 어느 한
분야의 전문가들도 와서 강의도 하고, 여러 가지 부스행사 등
전국각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들이 많다. 그러나 68만
명이 있는 남양주시에서 청년들만 해도 한 10만명은 넘을텐데,
청년들이 즐길만한 콘텐츠가 코인노래방이나 PC방 등 밖에 생각나지
않는다. 이런 측면에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 단체가 설립되었다.

고민 많은 20대

“단순히 즐거움 뿐 아니라 행사를 통해 고민을 덜어가고 인생에 더 좋은 영향을 끼쳐서 청년들의 삶의 질이 높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행사운영과 단체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춘플래닛은 비영리단체이다. 상업적인 이익을 위해서 행사를 여는 단체는 아니라고 강조한다. '청춘플래닛'구성원도 다 청년들이다. 그리고 섭외하는 소모임이나 동아리 구성원들도 다 청년이다. 대부분이 20대인 것이다. 20대는 정말 고민이 많은 나이다. 이제 사회에 진입해서 자연스럽게 진로나 미래에 대한 고민이나 대인관계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경우도 많다. 그런 청년들에게 어떻게 보면 자기계발이나 재능기부의 기회 혹은 그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도 있다. 그리고 하고 싶은 것을 찾지 못한 친구들도 시작은 재미삼아 취미삼아 한 번 참여해보다가 진로로 바뀌는 경우도 있다. 청춘플래닛은 행사를 통해 즐거움은 얻고 고민은 덜어가며 청년들의 인생에 좋은 영향을 끼치고자 한다.

청춘플래닛이 일으킨 물결

인상에 남았던 청년이 있는데, 진로에 고민이 많았지만 하고싶은 것이 없던 청년이 행사에 와서 캘리그라피를 경험해보고 즐거움을 느꼈고 이후 자격증을 따서 공모전도 하고 너무나 좋아하면서 사람들에게 돈을 받지 않고 써주기도하고 본인이 좋아서 일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었다. 이런 사례로 '아 정말 우리가 청년들의 진로나 고민에 도움을 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기업과의 콜라보 프로젝트

매년 너무나 운 좋게도 기업에서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한다. “저희는 청년들이 더 즐거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기업의 제품을 자주 찾아봅니다. 행사에서 비타민을 컨셉으로 해서 고려은단 비타민제품을 함께 나눠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상품을 무료로 나눠주면 시민들이 참여하더라도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게하는 역할도 되면서 제품홍보가 되는 부분이 있다보니 기업입장에서는 제품을 내어줍니다.” PPT를 만들어서 기업과 딜을 하기도 한다.

돈은 없지만 자부심은 있다

“가치있는데 행사를 기획하는 거고 청년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게 남양주시에서 이렇게 크게는 우리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현재 활동하는 구성원들은 학생이라던가 취준생이다. 그러면 활동비 라던가 인건비 이런 부분들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까. 비영리단체로 운영하다 보니까 공모사업을해서 개인의 이익을 취할 순 없다. 그 부분에 대해 모두가 모여 회의를 해서 나온 결론은 '그래도 좋다'이다. 다섯 명 모두 그것보단 가치 있는데 행사를 기획하는 거고 청년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게 남양주시에서 이렇게 크게는 우리밖에 없다고 생각을 한다고 한다. '오히려 내가 돈을 써서 하고 싶다'라고 다들 이야기 해서 그런 부분은 큰 어려움 없이 잘 하고 있다고 한다.

인터뷰 후기

박소현 : 같은 관심사로 문화기획이라는 분야에 도전하고 있는 친구들을 만난다니, 만남 전부터 굉장히 설레고 궁금증이 많았었어. 사실 문화기획 분야가 일을 하는 자신만의 이유가 없다면, 계속하기

쉽지 않잖아. 지역의 현장에서 더 혹독하게 하지만 재미있게 성장하고 있는 '청춘플래닛'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청년U'도 상상해보게 되었어. 같은 관심사, 비슷한 고민을 하며 즐겁게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청년들이 경기도 곳곳에 있다는 것이 힘이 되는걸 느꼈어. 함께 발전하는 청년단체가 되기를!



4. 청년에 관한 짧은 단상



왜 우리동네는?

문화청년U 모두는 하나의 청년단체를 찾아가 인터뷰하였다. 꼭 그 단체여야만 하는 이유는 각자 나름대로 다를 것이다. 각 지역마다 크고 작은 규모로 활동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인터뷰할 단체를 물색하기 시작하면서 내세운 제1의 기준은 내가 일하며, 살고 있는 화성에서 찾고 싶다는 것이었다. 인터뷰 단체를 선정하는데 위치, 그리고 인터뷰 요청에 대한 응답, 시간 약속 등 많은 것이 맞아떨어져야 하지만 그전에 필요한 것은 나의 선택이다. 그런데 어떤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단체에 대해서 찾기 이전에 연락이 닿아야하고 뭐든 찾아서 나와야한다.

그런데 웬걸 아무리 검색 키워드를 찾아봐야 단한개도 나오지 않았다. 전국 인구증가율 1위, 평균나이 42세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라는 타이틀을 가진 화성에 단 한 개의 청년단체도 검색되지 않는 것이다. (나중에 화성시리더연합협동조합을 하나 찾기는 했지만) 실망스러운 결과였다. 그 많은 화성 청년들은 어디서 모여 무엇을 하느냔 말이다.

그렇다면 시흥, 수원, 서울과 달리 화성시에 부족한 것은 무엇일까? 사실 화성문화원 직원의 입장에서 봐도 답이 나온다. 사실은 화성에서 축제가 굉장히 많다. 인삼, 송산포도, 요트축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행사가 올드하다. 그 이유로 화성시가 주민참여가 배제된 축제를 해서 그렇다는 생각을 한다. 예산이 3억이든, 5억이든 결과는 비슷하다. 주민참여는 배제하니까. 창의력과 상상력이 아쉬운 것이다.

기성세대들이 청년을 끌어내는 작업을 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청년들이 놓인 상황도 한몫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들도 모두 청년정책에 많은 예산을 쏟아 붓는다. 청년들이 내놓는 참신한 아이디어들로 지역에서 활동하고 소득이 생기고, 후배들이 계속 탄생하려면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하는 것이다.

화성시리더연합협동조합 이하 청청당당의 경우 2009년에 화성시 고교학생회장단의 모임으로 출발하였다. 자조모임에서 법인격의 단체를 거쳐 2017년 협동조합을 창업하기까지 10년을 보냈고 전부가 화성출신의 청소년에서 청년이 된 사람들이다. 이러한 청년들은 정말 지역에 대한 애항심을 가지고 자라 지역에 자리 잡는 청년들이다.

문제는 대부분의 청년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청년들과 함께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고 싶고, 청년문화단체는 자신들의 욕구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지역 청년들이 모인 결과이다. 하지만 자연스레 내가 사는 지역을 변화 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기는 쉽지 않다.



지역에서 청년으로 살아남기

우리 윗세대가 그러했듯 청년세대에도 지역색, 지역감정이라는 게 있을까? 지금의 청년들의 지역색은 지자체의 지원여부 하나만으로도 쉽게 갈릴 수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나부터 말하자면 애항심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벌써 낱아버린 가치관이라는 어감으로 다가온다. 그리고 그 넓다는 경기도 지역의 다양함도 체감되지 않는다.

화성, 서울, 수원 세지역의 청년문화가 어떻게 얼마나 다를까? 지역문화에 청년이 담당할 수 있는 지점은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사실 서울의 청년들이 지역에 관심이 유독 뛰어났기 때문에 청년문화가 발달했냐하면 그런 것도 아닌 것 같다. 나부터도 지역에 깊게 연결되는 경험은 많지 않다. 청년들이 이렇듯 지역과 분리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경기도의 지하철을 생각해보자 지하철이 있고 역세권이 있고 상권이 있고 주거단지가 있다. 크고 작음의 차이는 있지만 백화점이 있고 없고, 영화관, 카페, 술집과 같은 공간은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제주도에 가도 있다. 웬만큼 희귀한 것이 아니면 전국 어디서든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초등학교 즈음부터 이미 PC와 인터넷이 널리 보급된 내 나이와 비슷한 청년들은 지역에 상관없이 오히려 자주 접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 그 문화적 특색을 더 잘 담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청년들은 학창시절을 어느 지역에서 보내더라도,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그로부터 약 10여년은 어느 한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기를 반복한다. 대학교 4년간 활동지역을 결정하는 건 자신이 합격한 대학 위치고, 졸업하고 나면 또다시 돈을 벌기 위한 준비하고 일자리를 찾아 헤맨다. 남자는 또 특별하게 징병제를 통해 2년 동안 일상생활에서 사라진다. 청년들이 어느 한 지역에 정착해 애정을 느끼고 터전을 만들어 살아가는 건 애초에 쉽지 않은 것이다.



청년들이 모일 공간이란?

공간이 어떻게 기획되어야 하고, 그 기회는 또 어떻게 주어져야 하는 지는 중요한 조건이다. 서울 창업허브, 무중력지대, 범계큐브 등과 같은 공간이 왜 화성에서는 나올 수 없었는가 적절한 모티브가 없었던 것일까. 지자체의 실험의지가 부족했던 것일까. 청년들은 사실 거창하고 완전한 공간이 필요한 게 아니다. 다른 지역을 공간을 화성시에도 똑같이 가져와도 물려줄 거다. 월 기획하고 월 해야한다가 어렵다면 우선, 이런 공간의 필요성만 그들이 알고 똑같이 만들어주기만 하더라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다. 공간의 위치와 컨셉은 중요하다. 규모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누군가가 '야! 청년들 모여봐 모여봐!' 하는 공간이 필요한 게 아니라 허브처럼 존재하는 공간. 카페처럼 만나서 커피를 마시고 생각을 공유하는 그냥 이런 공간들이 존재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하나의 공간으로 너무나 많은 문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무 생각조차 안하고 있다면 큰일이겠지만) 만나서 대화하기 편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싶다. 과감한 것이 어렵다면 보편적인 것에서부터 출발하면 되지 않을까.



우리는 어떤 청년단체인가

각자 사정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문화청년U는 지역에서 일거리를 만들어보고자 하는 청년들과 문화원의 젊은 직원들이 모여 기존 다소 경직된 문화원조직에서 하지 못했던 일들을 시도해보고자 활동하고 있다. 문화청년U는 경기도문화원연합회의 '동네한바퀴'사업을 수행하는 별도조직 같은 형태인 것이다.

그 시작으로 올해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과정에서 문화기획을 공부했던 인연을 이어가며 함께 성장하고자 올해 하반기를 함께 보냈다. 개인적으로 그리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는 못했지만 그동안 우리는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청년들이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다방면으로 고민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만들어왔다. 또 거기에 노하우를 전달하기 위해 내부자료까지 공유해주시며 힘을 실어주시는 문화원연합회 최영주 처장님, 신희영 멘토님이 있다. 다들 바쁜 와중에 모이기 힘들어 기간에 비해 적은 시간을 함께했지만 각자 나름의 시간을 투자했고 어쩔 때는 흩어져서 단독방을 우리의 회의실로 활용하기도 하며 다함께 여기까지 왔다.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단체들과의 인터뷰를 마치고 결과를 정리하며 이들과 우리는 어떻게 다른가 생각하게 되었다. 결론부터 말하면 아직은 잘 모르겠다. 청년이 주체가 되어 하고 싶은 문화사업을 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한 것 같다. 우리도 지역에 새로움을 만들고 활력을 불어넣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함께 성장하는 것을 원한다.

그리고 올해 우리는 청년단체 네트워크 사업을 진행했다. 아직은 우리가 어떤 단체인지 설명하기는 조금 이른 것 같다.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우리를 결정할 것이다. 우리가 가는 길이 지역문화, 청년문화가 된다는 마음으로 앞으로도 재미있는 일들을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

5. 설문조사, 그리고 그 후

“청년은 무엇을 해도 괜찮다. 우리는 청년이기 때문이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경기도 지역의 청년단체에게 주어진 환경과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경기도 지역 청년들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이끌어 나아가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자료내용은 일절 공개되지 않고 비밀로 처리됨을 약속드리며, 자료는 본 연구원이 직접 관리함으로써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귀하의 정성 어린 응답이 경기도문화원연합회의 지역특성화 프로젝트 <동네한바퀴> 사업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오니 다소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귀하께서 느끼고 있는 생각이나 경험을 토대로 응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본 자료는 지역특성화 프로젝트 <동네한바퀴> 사업 자료로 소중하게 이용 될 것입니다.

설문지의 시작

‘경기도 청년고민 설문조사’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를 통해 무엇을 원하는가? 질문을 작성하기 전에 명확하고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설문 목표와 관련된 핵심 질문으로 구성된 짧은 설문지를 만들어야 했다. 우리는 설문조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을 경기도 청년단체 활동가로 결정했다. 그런데 제목은 ‘경기도 청년고민 설문조사’라고 시작했다. 이러한 부분에서부터 설문의 매력과 정교함이 떨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청년과 청년단체 활동,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지역이미지, 경기도 청년들의 취미/문화생활, 청년의 삶과 고민과 같은 항목을 나누어 여러 문항을 구성했다. 각 질문들은 어렵지 않지만 그 대답을 한데 묶어 어떻게 활용할지는 쉽게 떠올리기 힘들다. 예를 들어 경기도의 이미지에 대해 33퍼센트가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대답한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청년U가 당장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말이다. 이렇듯 우리의 역량을 벗어난 광범위한 질문들로 구성된 것 역시 목적의 모호함에서 비롯되었고 실패의 이유이기도 하다.

애초에 대상과 목적이 모호했기 때문일까. 실제로 얼마나 배포되었는지는 몰라도 결과는 6명 응답. 양적인 부족으로 유의미한 분석은 힘들어 보인다. 실패의 원인은 설문지 자체에서 온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돌아보면 양적으로 배포부터 제대로 되었는데도 알 수 없고 결과수집, 분석 등 진행 및 활용 계획에 대해서도 크게 신경쓰지 못했던 것 같다.

이메일, 문자 메시지, SNS 등 알림이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오늘날 응답은 둘째치고 설문조사를 열어보도록 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다. 조사지를 완성한 이후 결과를 얻기 위해 우리가 들인 노력이 무엇이나 생각해보면 자연스러운 결과인지도..

김민기 : 역시 사람은 얼굴을 보는 게 효과가 좋은 것 같아. 인터뷰까지는 아니더라도 직접 찾아가서 얼굴을 익히는 것은 문청유에서 시간을 꼭 내서라도 해야 할 일 일인 것 같아.

윤동현 : 얼굴을 직접 보고, 인터뷰도 하고, 네트워크 행사 권유를 직접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석 가능한 답을 흔쾌히 얻어내는 쉽지 않았었던 것. 역시 한 번의 만남으로는 '관계'가 형성되기는 어렵다고 느꼈어. 심지어 다 함께 찾아간 것도 아니었고... 같이 어떠한 활동을 한 것도 아니었으니... <연락은 잘 받아주고, 인터뷰도 친근하게 해주는 그런 일>과 <속으로 '관계'가 있다고 느끼고, 행사에도 참여해주고 관심을 가져주는 일> 사이에는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는 차이가 있으리라 생각해.

박효진 : 인터뷰를 하고 설문지를 받으면서 이제 활동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좋은 경험이 되었다고 생각해. 다른 단체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으며, 무슨 활동을 하는지 알 수 있었고 앞으로 설문지는 어떻게 제작을 해야 하고 인터뷰는 어떻게 진행해가야 하는지 몸으로 배울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어.

이양우 : 청년단체 인터뷰를 통해서 속사정을 들을 수 있어서 재미있었고, 네트워크를 위해서 다대일 인터뷰를 진행해도 재밌을 것 같아.

배준영 : 인터뷰와 설문조사 모두 결과를 떠나 그 자체로 우리에게 큰 배움이 되었다고 생각해. 이번 경험을 살려 앞으로 더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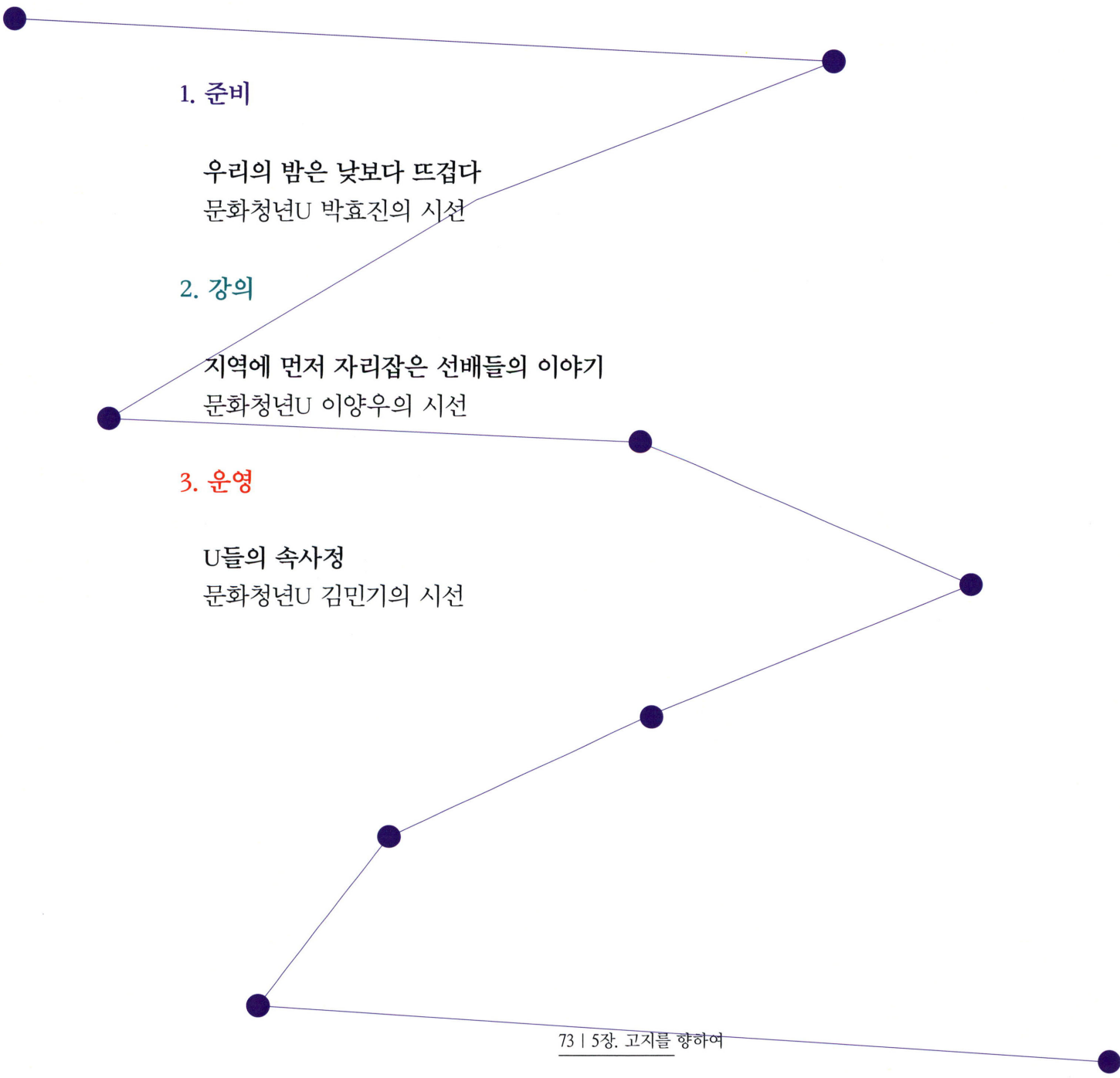
박소현 : 경기도가 넓어도 너무 넓다고 느꼈어.. 남양주 '청춘플래닛'외에도 인터뷰 하고 싶은 여러 단체가 있었거든. 인터뷰 기간 안에 경기 남부, 북부지역 모두 진행 할 수 없었던 것이 정말 아쉬워. '청춘플래닛'과의 인터뷰에서도 많은 정보들을 공유했던 것처럼 이래서 네트워킹이 필요한데~! 자주 모이기에 경기도는 참 넓어.. 가까운 지역에서라도 이런 자리가 지속적으로 마련될 수 있다면 좋겠다.

나도 '앵그리엔터테인먼트'로 인터뷰 다녀왔는데, 기록했던 핸드폰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인터뷰지를 못줘서 미안해...
소현샘한테 엄청 욕먹었어. ㅎㅎㅎ 미안!ㅠㅠ



문화청년U 박인규

5장. 고지를 향하여_ 네트워크 파티



1. 준비

우리의 밤은 낮보다 뜨겁다
문화청년U 박효진의 시선

2. 강의

지역에 먼저 자리잡은 선배들의 이야기
문화청년U 이양우의 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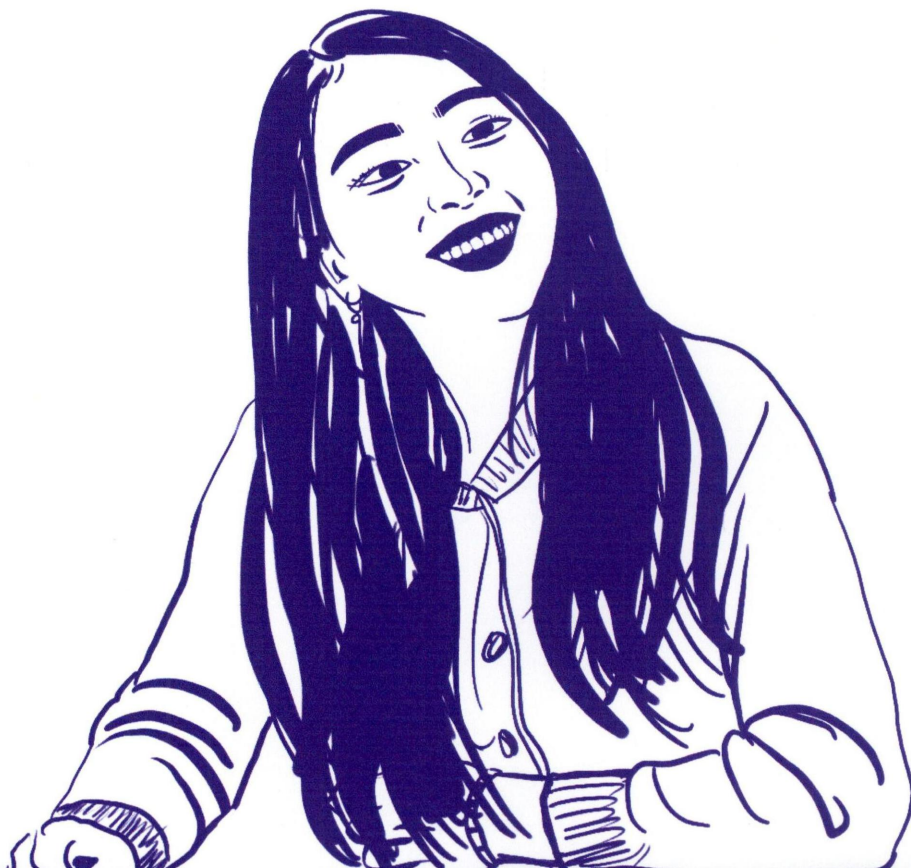
3.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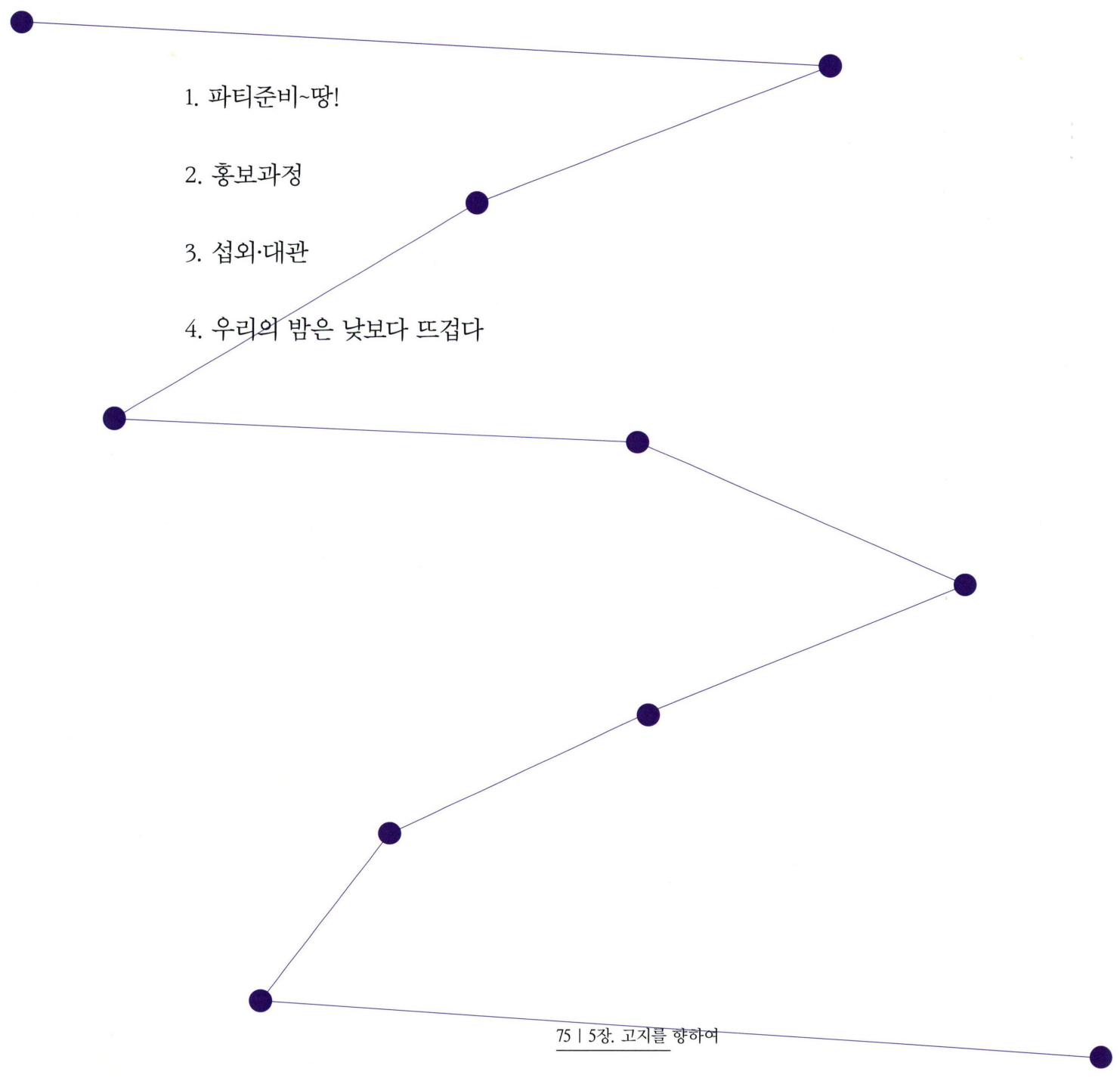
U들의 속사정
문화청년U 김민기의 시선

준비

우리의 밤은 낮보다 뜨겁다.

문화청년U 박효진의 시선





1. 파티준비~땅!

2. 홍보과정

3. 섭외·대관

4. 우리의 밤은 낮보다 뜨겁다

1. 파티준비~땅!



본격적으로 시작해봐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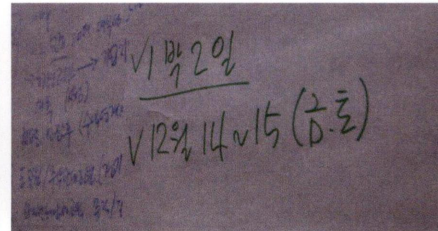
인터뷰 결과 공유

우리는 본격적인 행사 기획에 앞서 칠판 대신 커다란 포스트잇을 여러 장 붙인 다음 각자 다녀온 청년단체 인터뷰 결과를 공유하였다. 역할분담이 되기 이전인데, 이날은 신희영 멘토가 힘들게 서기를 맡아주셨다.

이양우가 인터뷰한 부천의 '블랙래빗87'은 5명으로 구성된 청년단체이다. 연주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로, 자신들이 연주하기 위한 자리가 될 수 있는 독립적인 공연을 기획하고 있다. 이 단체는 기획력도 있고 실행력도 있기 때문에 만약 우리 문화청년U의 행사에 참여하게 된다면 유사성 있는 단체가 모여 미션을 수행하거나 새로운

장르의 콘텐츠를 창작하는 것을 희망했다. 또한 포럼이나 토론에도 관심을 보였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1박 2일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박효진이 인터뷰한 시흥의 '청년쌀롱'은 시흥 YMCA소속의 시흥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모인 단체이다.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로 청년들이 쌀롱에 모여 스스로 기획한 행사를 진행한다는 점에 있어서 신선했다. 그리고 청년쌀롱에는 스타트업을 시작하는 청년들을 위한 사무실을 제공하고 있었다. 이들 또한 청년쌀롱의 일원으로서 함께하고 있으며, 현재 청년 기획단체인 청년감자와 함께 '감자쌀롱'이라는 이름으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우리 행사에 참여하게 된다면 청년에게 도움이 되는 강의와 함께 다른 청년단체와 소통할 수 있는 소그룹 토론의 형식의 행사에 참여하고 싶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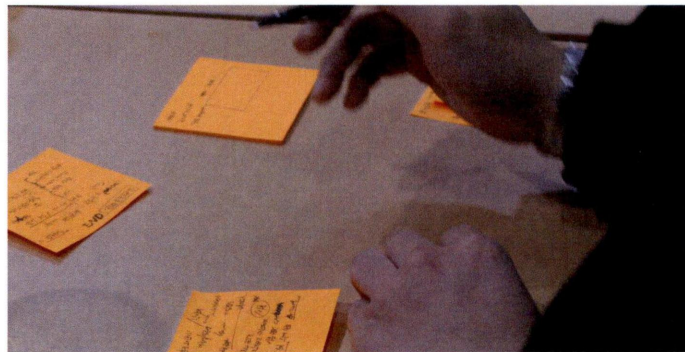
김민기가 인터뷰한 동두천의 '구석zine'은 20대부터 40대까지 9명이 모인 동두천의 청년단체로 혈령한 모임을 지향점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단체는 독서토론, 북 리뷰, 후원, 공모, 독서 진흥 등의 활동을 하며 지역이야기를 담은 <구석zine>이라는 매거진을 발행하고 있다. 만약 우리 행사에 참여하게 된다면 공모에 당선되기 위한 노하우, 콘텐츠와 일거리 생산에 대한 강의를 듣고 싶다고 전했고, 미션 형식으로 진행되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윤동현이 인터뷰한 안산의 '컬처75'는 안산 문화예술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130명 정도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의 지향점은 예술가가 아니라 '시민을 향해' 있다. 예술인 복지, 예술인 수당과 같은 예술인 관련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활동, 예술인 간의 소통 증진 장려, 가치 중심의 문화·축제 기획, 예술인 교육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이들은 다른 단체와 교류를 함에 있어서, '해커톤'방식의 교류, 아니면 가벼운 파티, 혹은 단체별 활동이나 각자의 노하우를 함께 듣는 시간을 가지기를 희망했다. 그리고 이것들이 당일 행사로 진행되기를 원했다.

박소현이 인터뷰한 남양주의 '청춘플래닛'은 5명으로 이루어진 단체다. 20대 대학생이나 취준생을 위한 활동들을 주로 하고 있으며,

남양주 시청으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는 단체이기도 하다. 그들은 '협업은 성장 후에 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협업 활동이 수익과 연계될 경우, 각 단체만의 색이 바라질 수 있음을 경계한다고 말했다. 그들은 설립한지 얼마 안 된 점에 있어 다른 청년문화단체와 교류를 할 경우 단체 홍보방법과 선행 단체의 성공, 실패 사례 그리고 한계를 극복법에 대해서 같이 배우기를 원했고 지역을 기반으로 한 단체인 만큼 지역 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했다.

신봉이 인터뷰한 경기청년협업마을은 시흥에 위치해 있다. 청년들을 위한 뮤직, 포토스튜디오 등을 무료로 대관해주는 곳이다. 경기도의 지원을 받으며 무료 대관 등의 활동으로 지역 청년 모임에 기여를 하고 있으며, 청년 강사 활동, 단체 네트워크 소개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인터뷰 결과 요약

	단체명	지역	인원	방향	활동	참고사항	희망 교류 방향	희망 기간	희망 날짜
1	블랙라잇87	부천	5		연주하기 위한 독립적 공연 기획	연주자들로 구성되어 있음	유사성 있는 단체가 모여 미션 수행/새로운 장르의 컨텐츠 창작/포럼, 토론	1박 2일	12/15 x 12/16 x
2	청년살롱	시흥	10 ↑		스타트업/예술/건축/대학생/ 영화/책/술 모임 등 공모(커뮤니티 공간)	청년살롱 - 공간 청년감자(감자살롱) - 기획집단	강의/소그룹 토론 모임	당일	주말 선호
3	구석zine	동두천	9	20~40 대의 혈 령한 모 임	독서토론/북리뷰/지역이야기 개인공간/후원/회비/공모 독서진흥/지역에 대한 청년의 시각/'요즘 이야기'	독서 소식지 공모 ↓ 경험 <구석zine>	협업프로그램 노하우/ 컨텐츠, 일거리 생산/ 미션	당일	12/10, 12/11 선호
4	컬처75	안산	130	시민을 향해	정책 영향력(예술인 복지/예술인 수당), 예술인 간 소통, 문화 기획/축제 기획(가치 중심), 예술인 교육	시의 지원 없이는 상근자 수당 챙겨주기 힘들	해커톤/가벼운 파티/ 단체별 활동, 노하우 듣기	당일	12/16 가능
5	청춘 플래닛	남양주	5		20대 대학생, 취준생 청년 고민/기업 지원(매칭)/따복/ 시청으로부터 주목 받는/	협업은 성장 후에 하길 희망 협업활동이 수익과 연계될 시, 단체만의 색을 바랄 수 있음을 경계	홍보 방법 논의, 지역색 이야기(토크)/선행단체의 성공, 실패 사례/ 한계극복법	당일	일, 화, 수요일 제외하고 가능
6	경기청년 협업 마을	시흥	50~60		도지원/경기넥스트창조오디션/ 소셜벤처양성교육/뮤직/포토 스튜디오 무료대관/지역 청년 모임에 기여, 연계/청년 기업 10팀/청년 강사/단체네트워크소개				

각자 발표한 것을 듣고 나니 경기 남부, 북부를 걸쳐 우리가 조사해 온 청년단체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이란 것을 알게 되었다. 처음 문화청년U를 시작하기 이전에는 경기도 내에 청년단체가 많은 줄도 몰랐고, 자생하려고 노력하는 청년들이 많은 줄도 몰랐다. '블랙래빗87'처럼 연주자들이 모여 스스로 공연을 기획하고, '구석zine'처럼 지역 이야기를 펼쳐내는 멋진 청년들이 세상에 존재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다. 그러나 인터뷰 결과공유회가 정말 행사 준비를 위해 결과만 공유하는 자리가 되어서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남았다. 나의 경우 '청년쌀롱'에 인터뷰가 확정되기 전 다른 청년단체들에게 거절을 당했던 경험이라든지, 급하게 답례품을 준비하는 과정이 가장 급박하고 기억에 남는 점인데, 멤버들의 인터뷰 에피소드를 들을 시간이 없었던 것이 아쉽다.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청년단체는 대부분 공모사업을 얻어내는 방법이나, 협업에 관한 고민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예상했다. 그런데 생각지 못한 부분에서 충격을 받았던 점은 직원 인건비에 관한 문제였다. 상근 직원이 있어야 단체가 운영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에 대한 시나 지자체의 지원이 미비해 최소의 인원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였다. 그래서 한 사람이 운영, 홍보, 회계 등 운영의 전부를 도맡아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같은 고민을 하는 청년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가 꼭 필요하고 지자체가 나서서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들을 청년이 모여서 이야기 한다면 목소리가 커질 수 있고, 문제가 많이 알려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청년들이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역시 청년의 입장에서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른 청년들을 만나보고자 했다.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이들의 고민을 덜어줄 수 있을까? 청년들의 입장에서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해 계속 논의를 했고, '청년들끼리 소통을 하든, 강의를 하든, 대체적으로 소그룹으로 이야기를 나누며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진행되는 그림'으로 정리 되었다.

박효진 : 고등학생 때 이후로 이렇게 스터디룸에 자주 간 것은 처음이야. 물론 공부하러 가는 건 아니었지만 마음에 항상 부담이 있던 것 같아. 그래도 부담을 덜어 줬던 건 갈 때 마다 맛있는 간식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인 것도 같고. ㅋㅋ '저녁 안 먹고 가길 잘했다~'는 생각을 자주 했어.

매번 회의를 가지만 진행 중 날카로운 질문이 오가고 서로 의견이 달라 부딪히는 일이 있을 때면 그렇게 눈치가 보일 수가 없더라! 나도 한마디 거들어야겠는데! 아는 것도 많이 없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상황을 지켜보는 일이 비일비재했지. 나도 시간이 좀 지나면 의견을 거둘 수 있는 사람이 되겠지?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여 보겠어.

ㄱㄱ **박소현** :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말 잘 하지 않았어?!

ㄱㄱ **윤동현** : 오, 재미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말이야? 눈치 채지 못하고 있었어...

네트워크 파티 준비

1) 날짜 정하기

우리는 초반에 12월 3일부터 약 1주일의 기간을 잡고 그 사이에 행사 날짜를 정해 보려고 했는데, 인터뷰를 다녀오고 나니 청년단체가 참석할 수 있는 날들이 뒤죽박죽이었다. 모든 단체들의 의견을 모아서는 행사를 한 일주일은 해야 할 것 같았다. 우리가 가진 시간이 일단 많지 않았기 때문에 14일 15일로 행사날짜를 확정짓긴 했지만 얼마 남지 않은 연말 금요일, 토요일을 내어줄 청년들이 얼마나 있을지를 예상하지 못했다.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12월 8일부터 16일까지 중 대부분 하루만 진행하는 것이 좋다는 인터뷰단체 다수의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고, 평일이나 주말 중 하루라도 참여할 수 있는 단체를 위해 1박 2일간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회의를 거친 끝에 우리는 12월 14일부터 15일까지 1박 2일간 행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2) 프로그램

소모임을 할 수 있으며 강의를 들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였다. 그 결과 '소그룹 주제방'을 만들어 주제에 참여하고 싶은 청년들이 소규모로 모여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떨까? 라는 의견으로 모였다.

또한 우리가 인터뷰 했던 단체 중 자신의 단체 활동을 소개하거나 고민들을 토크쇼 형식으로 발표하는 것도 생각했는데, 나는 청년단체에게 강의를 요청하는 것이 부담이 될 것이라 생각했다. 결국

편하게 와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맞다라는 의미에서 청년단체가 하는 강의형식은 진행하지 않게 되었지만,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단체장 혹은 구성원이 단체의 활동이나 단체의 문제를 소개하는 것만으로도 현장에서 서로 충분히 많은 이야기가 논의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3) 업무분장

업무분장은 선착순이다. 하고 싶은 파트에 먼저 가는 사람이 임자!

선착순이라는 점에서 나는 특히 긴장했는데, '아! 이 파트만은 절대 못하겠다.' 싶었던 부분은 홍보파트다. 일단 기술적으로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를 꼭 언젠가 배워야겠다는 생각만하고 여태 도전하지 못했던 부분이었고, 홍보물을 만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민기샘이 만든 홍보물과 포스터 시안이 나왔을 때, 일단 감탄 먼저하고 나도 꼭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게 되었다.

행사를 처음 진행해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담당자이자 경험이 있던 박소현은 가장 먼저 행정지원 팀과 기획파트에서 우리를 도와주게 되었다. 윤동현은 정리/기록 그리고 섭외팀에, 디자인에 자신이 있는 김민기는 홍보팀에, 시험기간으로 시간이 많지 않았던 박효진은 섭외팀에, 사진 및 영상에 능력을 가진 이양우는 홍보팀에, 기획서와 가장 친밀하다고 생각한 배준영은 기획팀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와서 할 수 있는 말이지만, 대학교 시험기간이 겹쳐서 11월 안에 끝낼 수 있기를 희망했기 때문에 섭외 팀을 골랐다. 회의를 하면서 행사 장소는 정해졌기 때문에 장소 섭외는 우리가 없겠다고

생각을 하며 한시를 놓기도 했는데, 참 대단한 착각이었다.

윤동현 : 인생은 실전이야 ㅋ

박소현 : 너, '참 대단한 착각'을 했구나 ㅋㅋ

4) 팀별 준비과정

이후 우리는 타임테이블 일정에 따라 각 팀별로 활발히 움직였다.
그리고 팀별 활동들은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공유되며 진행되었다.

12 2018 December

SUN	MON	THE	WED	THU	FRI	SAT
						1 일정 가이드라 인 작성
2	3 -(홍)웹포스터 디자인확정	4 -(홍)사전 보도자료작성 및 배포 -(동현)경기문연 홈 페이지, SNS 개제	5 -(동현)보도자료 리스트(홍)전달	6 -(홍) 관련 기관 온라인 홍보 -(홍)단체목발주 -(홍)기념품발주 *행정서류준비	7	8
	-(대)포스터+참가신청기간(~10일)					
	-(대)감사 섭외 및 의뢰서, 일정 전달 (감사 확정)					
	-시설세부확인					
9	10 -참가자확정 -(홍)포스터발주 -(홍)현수막발주	11 -숙박최종확인 , 아침조식예약	12 - 사전 준비물 및 특이사항 확인	13 ★ 회의진행 (조율 및 확인)	14 -행사시작 문청U 파이팅 힘내!!!>_<	15
	-(대)주제 강의 원고 받기					
16 -원고작성	17	18	19	20	21	22 - 1차 결과보고 회의
23/30	24/31	25	26	27	28	29 - 2차 결과보 고회의

- ※ 위 타임테이블은 가이드라인일 뿐임으로 공유 후 일정조율 가능함.
- ※ 필요한 업무가 있다면 위 타임테이블에 언급되지 않았더라도 능동적으로
업무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생	1 윤동현	후생에 필요한 물품준비
	2 배준영	(다과, 네트워크 간식, 식사관련, 참가자 관리)
	3 김민기	식사, 방배정 등
운영	4 박소현	운영에 필요한 물품준비
	5 이양우	(공간구성, MR준비, 아이스브레이킹 준비물
	6 박효진	등 진행에 필요한 물품 준비)

- 대관/섭외 팀

1. 강사섭외
2. 대관확정(스피커, 마이크, 세면도구 등 세부시설 확인)
3. 참가자 모집, 취합
(구글 폼을 통한 신청서 작성, 신청서 취합, 참가자 확인 명부 작성, 숙박인원 최종 확인, 참가자 입장시간 확인, 주차확인 등)

- 홍보팀

1. 포스터 확정 및 인쇄
2. 현수막 의뢰
3. 단체복
4. 기념품
5. 온라인 홍보(보도자료, 각종 관련 사이트 게시물 작성)

- 기획팀

1. 기획서 및 세부계획서 작성
2. 타임테이블 작성 및 공유
3. 팀별 업무사항 전반 관리(데드라인 관리, 검수 등)
4. 행정서류 관리
5. Cue-Sheet 작성 및 행사 업무분장
6. 업무회의계획 및 팀별업무 활동사항 전체 취합 및 공유 등

● 대관/섭외팀

행사를 준비하고 기획을 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장소가 정해지는 것이 중요했기에 대관 팀은 장소를 우선적으로 확정하려고 했다. 인터뷰를 했던 단체 중 '경기청년협업마을'이 장소대관이 가능했기에 가장 처음으로 연락을 취했다.

그러나 14, 15일에는 자체 행사가 있어 대관이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 외에 경기도 중심지역 시설들로 눈을 돌렸으나 추첨방식, 몇 달 전 사전예약, 숙박 등 여러 가지 문제들로 대관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대관 팀은 멘토의 추천으로 파주 헤이리 마을을 고려해 보았다. 경기북부지역이었지만, 활동공간과 숙박공간이 같은 공간일 수 있다는 점과 헤이리 예술인 마을을 둘러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대관 팀은 파주문화원 도움을 받기도 하면서 본격적으로 헤이리 마을 시설들을 알아보았으며,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헤이리 마을의 '하이드 하우스'로 대관을 확정지었다. 대관팀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기획팀과 함께 사전 답사를 했고 프로그램별 장소 확정 등의 준비를 했다.

윤동현 : 14, 15일에 이미 예약이 찬 곳이 많아서, 대관 작업이 생각만큼 쉽게 진행되지 않았어. 장소 설정이 빨리 이루어질수록 행사 기획에 박차를 가할 수 있었기에, 마음이 조금했던 것이 사실이야. 같이 대관 일을 진행했던 효진쌤과 기획 담당인 소현쌤, 그리고 멘토님 도움이 컸던 것 같아.

후배들을 위한 주제 강의를 해주실 '강사'분과 소그룹 토크에 참여하여 선배로서의 좋은 말씀들을 해주실 '멘토'분들을 섭외를 해야 했다. 초기의 기획대로라면 강사 1분과 멘토 5분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기획팀과의 조율과 참가자 및 멘토 모집 상황 등을 고려하면서 최종적으로 3분을 섭외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처음 계획에서 설정된 소그룹 토크 주제는 5가지였다.

- 단체의 재정 운영
- 공모선정 노하우
- 지역에게 사랑받는 단체
- 지역색 살리기
- 2019 문화트렌드

첫 번째 주제인 '단체의 재정 운영에 관한 주제 - 현실적인 재원구조, 지원금 없이 단체의 지속가능성 확보하기 등'에 대한 토크를 맡아주실 멘토를 섭외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었다. 강원문화재단의 정인규 팀장님을 섭외하려고 했으나 실패하였고, 이어 시도한 강승재 실장님, 임경수 박사님도 섭외할 수 없었다. 또한 다랑어스토리 이근욱 대표님도 섭외에 실패하였다.

두 번째 주제인 '공모선정 노하우, 꿀 팁'에 대한 토크를 맡아주실 멘토로 처음에는 동두천생활문화센터의 최지호 팀장님을 섭외하는 데 성공하였으나, 후에 사정이 생겨 새로운 멘토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비기자 최선영 대표를 섭외하려고 했으나 실패했다.

한편 세 번째 주제인 '지역에게 사랑받는 단체'관련 토크의 멘토로 처음에는 윤영욱 선생님을 섭외하려고 했으나 실패했다. 그러나 동네형들의 박도빈 공동대표를 섭외하는 데 성공했다.

네 번째 주제인 '지역색 살리기'에는 경기실학박물관의 김수미 선생님이 멘토로 섭외되었다.

다섯 번째 주제인 '넌문화트렌드'에는 양철모 선생님이 멘토로 섭외되었다.

이후에 다섯 가지 소그룹 토크 주제는 3가지로 축약되었다. '재정 운영'에 관한 것은 비교적 단기간에 터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는 점과 멘토 섭외의 어려움 등으로 빠지로 결정하였고, '지역에게 사랑받는 단체'와 '지역색 살리기'는 '지역'이라는 키워드로 하나로 합쳐, '지역에서 사랑받으며 살아남기'로 수정했다. 최종적으로 멘토 3분이 3가지 소그룹 토크를 맡아주는 방향으로 결정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양철모 선생님은 소그룹 토크 이전의 주제 강의도 맡아주시기로 했고, 김수미 선생님께서도 힐링 부스 운영에 도움을 주시기로 했다.

멘토	소그룹 토크 주제
양철모	주제 강의, 공모선정 노하우
박도빈	2019 문화트렌드
김수미	지역에서 사랑받으며 살아남기, 힐링 부스

장소 대관 및 멘토 섭외와 더불어 참가자 모집을 위한 온라인 설문 폼을 만들고 배포하는 작업도 동시에 이루어졌다. 신상 정보와 참여하고 싶은 토크 주제, 참여 일정과 이동 수단 등을 물어보았다. 선택지나 추가적인 정보를 넣는 등의 수정을 가하면서 완성된 폼을 우리들 내부에서 공유하면서 문화청년U 구성원 각자가 폼 양식을 퍼뜨렸다. 자신이 인터뷰한 단체, 인터뷰하진 않았으나 조사했던 단체 등 문화를 매개로 경기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과 청년 단체들을 모집하는 데 노력했다.

● 홍보팀

홍보팀은 로고 디자인, 포스터 디자인, 현수막제작, 기념품 제작, 단체티 의뢰, 보도자료 작성을 맡아서 진행했다.

캘리그래피 로고를 여러 가지로 디자인 하여 투표를 통해 정하고, 피드백 받은 부분들을 수정해 가며 로고를 완성시켰다.

포스터 디자인과 현수막 디자인도 구성원들과 조율하고 피드백을 받아가면서 진행했다. 포스터의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공유하면서 함께 결정하고 일정, 날짜, 장소, 후원 및 협찬, 로고 등 들어갈 사항들에 대한 내용도 함께 합의했다.

기념품은 다이어리나 달력을 고려하기도 했으나, 연말 선물에 흔히 줄 수 있는 다이어리나 달력 외에 보다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고자 했다. 어디에서도 쉽게 구할 수 없는 킴을 생각했고, 최종적으로 청년작가 강민성과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작은 도자 화병 킴을 제작했다.

단체복은 맨투맨, 긴팔 티셔츠, 돗바 등의 종류와 색상 등을 함께 공유하며, 예산과 계절 범용성의 사항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남색의 후리스로 확정되었다. 그러나 업체의 착오와 청년U의 미숙으로 행사 날짜에 받을 수 없었다. 행사 이후 우리의 기념품으로 남는 아쉬움이 있었다.

보도 자료는 홍보팀에서 작성하여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최영주 사무처장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수정하였으며, 중부일보와 경기일보에 기사가 기재되었다.

<단체복> 문화원 후원회

경기도문화원연합회, 반가워U파티 12월14일 개최

김현정 | © 기사입력 2018.12.09 16:28 | © 최종수정 2018.12.09 15:28 | 글 5줄 0

경기도문화원연합회는 오는 14일 청년단체 네트워크 파티 '문화청년 반가워U' 네트워크 파티가 파주 헤이마를 일대에서 개최된다.

이 네트워크 파티는 경기도문화원연합회에서 지역특성화/동네한바퀴 사업의 일환으로 '청년들이 경기도라는 동네를 한 바퀴 돌며 청년들과 만나고, 발전한 상상력으로 새로운 일거리를 만들어 보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연합회는 이 사업을 통해 '대대손은 지속발전 가능한 청년 네트워크'라는 주제로 경기도 청년들과 함께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5개의 소그룹 토크쇼를 통해 청년들의 자발적, 독립적 창의적 일거리 창출을 위한 방법 찾기에 나선다.

이번 네트워크 파티 '문화청년 반가워U' 파티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주관 '지역문화전문인력양성사업'의 일환으로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주관한 '키움프로젝트'를 통해 2년 동안 인큐베이팅을 거친 청년기획자들의 모임 '문화청년U'가 직접 기획했다는 것에도 의미가 크다.

오프닝 '반가워U'를 시작으로 자유토크콘서트인 '독, 투, U', 커뮤니티 댄스파티 'We U', 일일상당소, 헤이마파크 '도만나U' 등의 다채로운 기획으로 펼쳐진다.

열상계 연합회장은 "앞으로 청년들이 만들어 갈 경기도의 문화지형이 어떻게 펼쳐질지 기대가 크다"며 "본 사업을 통해 문화원이 청년들과 함께 지역문화를 새롭게 전망하고 만들어 가고자 한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행사는 사전신청으로 이뤄지며 도 문화원연합회 홈페이지(<http://kccfgg.org>)에서 신청 가능하다.

김동성기자



● 기획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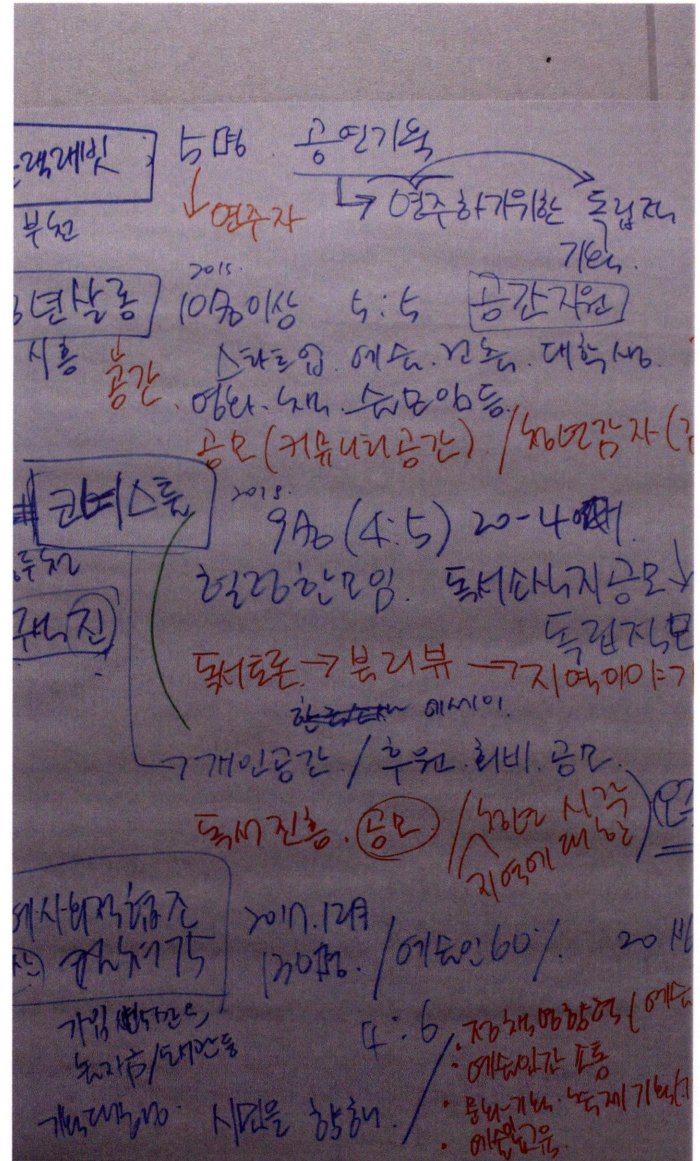
기획팀은 세부적인 행사 프로그램들과 예산계획 등 전반적인 모든 부분들을 고려해야 했기에, 초반부터 다른 팀들과의 소통을 통해 꾸준히 기획서를 수정하고 살을 붙여나갔다. 아이스브레이킹, 강의, 커뮤니티 댄스, 소그룹 토크, 사망토론 등의 큰 맥락을 우선적으로 잡고,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부족한 부분은 세부적인 내용을 채워나갔다. 섭외와 대관 상황, 다른 홍보물 제작 상황과 예산 계획 등에서 발생하게 된 잦은 변화를 반영하여 기획서도 즉각적으로 수정하고 보완해 나갔다. 기획팀은 대관 팀과 현장 답사를 같이 가기도 하고, 섭외에 필요한 공문이나 홍보를 위한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진행 과정 속에서, 예산 초과 문제로 인한 예산 조정, 참가 인원 미확정으로 인한 조식 예약과 마을 투어 예약의 어려움 등의 문제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소통의 미숙함을 서로 인정하고 차분히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해결해 나아갔다.

우리들은 각자가 맡은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였다. 물론 같은 팀끼리 했던 논의나 고민들이 모두 원활하게 구성원 모두에게 공유되지 못했던 부분들도 있었다. 참가자들을 모집하는 일에도 각자 최선을 다했으나 초기 예상과는 달리 많은 인원이 모이지 않았다.

마지막 행사 날이 다가오면서 우리들은 행사 전날인 13일에 먼저 네트워크 파티 장소로 향했다.

김민기 : 어쩔 수 없기도 했지만, 파주로 초대하기에 너무 멀지않았나 싶어.



2. 홍보과정

문화청년U를 표현해보자

현수막, 홍보물의 디자인 컨셉은 신생 단체 문화청년U라는 점과 네트워크 파티라는 점 이 두 가지 사안을 중점적으로 표현하려고 했다. 그래서 실험적이고 모험적이기 보다 안정성 있는 구도로 잡았고 여유있고 편한 느낌을 주기 위해 눈에 편한 옐로우, 그린컬러를 사용하고 채도는 중 채도를 사용했으며 중심부에 이미지는 강조하기 위해 보색대비의 다양한 컬러를 사용했다. 또한 단체들의 다양성을 표현하기 위해 음악, 회의, 운동 등 다양한 모션을 일러스트로 표현했다. 원형을 중심으로 둥글게 배치했는데, 동네한바퀴 사업의 취지를 고려한 것이다.

<포스터최종>



<현수막 최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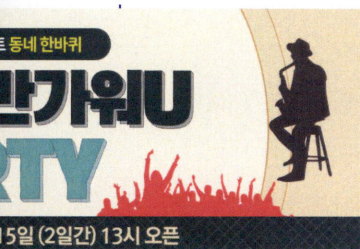
<웹 배너1,2>



김민기 : 실패하지 않아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에 비교적 안전한 구도를 이용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되려 식상하다는 아쉬움이 남았어. 조금 더 과감하고 실험적인 구도와 이미지배치를 사용해 문화청년유의 개성이 잘 묻어날 수 있는 디자인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었던 것 같아.

이양우 : 처음 홍보물을 제작하기로 하고, 디자인 후 50매를 출력하려고 보니 생각보다 오프라인으로 부착할 일이 적었어. 온라인으로만 제작하고 SNS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이 관심 있는 다수가 보는데 유리하다고 생각해서야. 예술인, 청년단체 모임 방문에서도 채팅방을 통해 전송하는 것이 더 유리했었다. 기념품의 경우 적은 돈을 가지고 다수에게 특별한 선물을 하고 싶었고, 개인

작가를 통해 할 수 있는 특별한 선물을 많이 찾아보았어. 연말선물로 보편화된 달력, 다이어리는 청년 측에서 보통 많이 나누므로 문청U에서 별개로 준비하는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했지. 직접 선물을 전해드리고 감상을 들었으면 더 의미 있었을 것 같았는데 그러지 못해서 많은 아쉬움이 남네.



문화청년U를 가득 담은 선물

참석자 기념품은 무엇으로 하면 좋을지 고민하다 청년U의 개성을 잘 담을 수 있는 것으로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기존에 업체에서 판매하고 있는 달력이나 다이어리 보다는 청년아티스트가 직접 만든 작업물을 이용해보기로 하였다. 너무 뜬금없는 작업물보다는 청년U와 이번 행사의 의도와 의미가 연결 될 수 있는 것들 위주로 찾아보고자 하였다. 여러 가지를 모색하던 중 김민기의 추천으로 도자작업을 하는 아티스트를 찾았는데, 마침 달향아리라는 작업으로 아트페어를 하고 있었다.

우리가 강민성 작가의 달향아리 키링을 선택한 이유는 달향아리는 기본적으로 무언가를 담는다. 기능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번 행사에서 여러 단체들과 청년유가 공유한 시간과 추억을 담아가자는 의미가 잘 맞겠다'라고 생각했다. 더욱이 미학적으로는 어리숙하면서도 순진한 아름다움이 있는데, 이런 점 역시 청년의 모습과도 닮아있다 라고 생각했다.

청년U의 청년들 스스로 일거리를 창출해내자라는 설립취지와 이번 시즌 청년들의 네트워크 연대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점, 그리고 청년U의 'U'가 뭔가를 담는다. 라는 의미가 있었다는 점에서 청년작가 강민성과의 협업을 진행했다. 김민기는 직접 작업과정을 도왔고 청년U의 로고를 찍어서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구상했다.

또한 문화청년U를 가득 담은 달향아리 키링작업을 계기로 청년작가 강민성과 인연이 되어 당일 네트워크 파티에도 초대하게 되었고 우리와 네트워크를 함께하게 되었다.



3. 섭외·대관

섭외는 어려워

11월 19일 기획 회의 때 행사 중 소그룹 토크를 위한 주제 5가지를 담당해주실 강사 들을 모집하려고 했다. 일단 행사를 하는 12월이 바쁜 시기이기도 하고 우리가 갑작스럽게 강의를 부탁드리는 것이라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섭외가 이렇게 어려운 일구나 알게 되었다.

1번 주제(재정운영)을 맡아주실 분으로 강원문화재단의 정인금 선생님을 섭외하려 했으나 어려워져서 강승재 실장, 임경수 박사님, 이근욱 대표 차례로 시도 했으나 모두 실패하였다. 결국 1번 주제는 없어졌지만,...

2번 주제(공모선정)에 대해서는 동두천문화원 최지호 팀장님께서 바쁜 와중에 흔쾌히 와주시기로 했는데, 다른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게 되어 당황했었다. 그래서 비기자이 최선영 대표님을 섭외 시도하였으나 실패했다.

3번 주제(지역에게 사랑받는 단체)에는 앞선 실패로 후보에 올랐던 두 분께 모두 연락을 드렸는데, 운영욱 선생님은 실패했고, 동네형들 박도빈 대표에게 연락하여 섭외에 성공하였다.

4번 주제(지역색 살리기, 지역에게 사랑받는 단체와 유사하여 통합)에는 경기 실학박물관 김수미 선생님을 처장님께서 소개해주셨고, 섭외에 성공하였다.

5번 주제(2019 문화트렌드)에는 믹스라이스의 양철모 선생님이 섭외가 되었다.

최종적으로 기획했던 5가지 주제에 맞는 각각의 멘토를 섭외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우리는 강의 주제를 3가지로 축소하게 되었다.

섭외 중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었는데, 특히 동네형들 박도빈 대표의 섭외 관련해서는 누가 섭외를 했는가에 대한 이슈가 있었다. 최초로 섭외 리스트를 건넨 박소현이 섭외했다는 주장과 연락처를 전달했기 때문에 신희영 멘토가 섭외했다는 주장, 박도빈 대표와 통화를 했기 때문에 최영주 사무처장이 섭외했다는 주장이 엇갈렸다. 누가 섭외했든 네트워크 강의를 진행해주신 분들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섭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개인적으로 세 분의 콜라보레이션이라고 마무리 짓고 싶다.

윤동현 : 아. 내가 왜 섭외를 한다고 했을까? 강사님들께 전화를 하는 게 부담스럽고 떨렸어.

박소현 : 콜라보레이션 ㅋㅋㅋ

김민기 : 참 잘 했어요.^^

박효진 : 투어 계획을 처음 해보는 나로써 섭외 전화를 할 때부터 인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소개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어. '안녕하세요. 청년단체 '문화청년U' 박효진이라고 합니다.'

하면 문화청년U를 몇 번 반복해야 하잖아. 이러한 사소한 고민도 있었고, 제안서를 요청하는 12월 4일까지 행사에 참여하는 인원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림잡아 인원과 시간을 정해서 일정 계획을 요구해야하는 일들이 어려웠어.

투어를 마친 지금, 헤이리 예술마을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구석구석 마을을 산책하며 소개해주셨던 가이드님이 기억에 남아. 기존에 헤이리 예술마을을 다녀왔던 분들도 새롭게 알게 된 곳이 많다고 긍정적인 말씀을 해주셔서 준비한 나로서는 다행이다! 라고 뿌듯하기도 했고.

섭외, 대관 담당으로서 행사 개최지가 며칠 단위로 바뀌고 행사 내용이 바뀌는데 있어서 스트레스를 꽤 받았어. 그리고 열심히 행사 준비를 하느라 참여자 모집에 있어서 신경을 보다 더 쓰지 못해서 앞으로는 균형을 잡아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혼돈의 행사지 결정

11월 19일 있었던 회의를 바탕으로 행사 개최지가 정해져야 했기에 시흥에 위치한 '경기청년협업마을'을 대관하고자 했다. 11월 20일 경기청년협업마을에 연락을 한 결과 경기청년협업마을에서는 우리가 예정한 12월 14,15일에는 내부 행사가 잡혀있었고 상의 후 시흥 ABC 행복학습타운 내에 '100년 상상관'을 대관하려고 했다. 가장 먼저 숙박이 한 장소에서 해결 되었고 강의실뿐만 아니라 우리가 계획했던 시설들이 충분하게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관을 두 달 전에 해야 했고, 추첨제였기 때문에 당장 앞으로 다가온 행사를 개최하기에 리스크가 컸다.

다시 이 상황을 공유하고 행사 개최지를 '경기상상캠퍼스'로 변경하였다. 수원에 위치한 '경기상상캠퍼스'는 우리 문화청년U가 거점으로 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이곳에서 행사를 개최한다면

다른 청년들을 우리 지역으로 초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행사와 숙박이 별도로 이루어 져야 하는 부분에 있어 경기상상캠퍼스에는 강의와 커뮤니티를 위주로 한 장소를 대관하고, 저녁 늦은 시간에 계획한 일정들은 수원 인계동에 위치한 비즈니스 호텔 (홀리데이 인 익스프레스, 이비스 엠베서더 등)에서 진행하고자 제안서를 요청하였다.

상의 결과 11월 27일 파주로 행사지가 변경되었다. 파주라니?! 처음에는 굉장히 당황했지만 예술마을이 있는 파주에서 행사를 한다면 볼 것이 많아질 거라는 생각에 빠르게 계획을 수정하였다. 기존에 예약했던 곳들을 취소하고 파주 헤이리 예술마을의 펜션을 찾았다. 파주로 행사지가 변경되어 12월 15일에 기획했던 수원 행궁투어 또한 변화가 있어야 했다. 숙소는 파주 헤이리 예술마을의 '헤이리 하이드하우스'로 정해졌고 행궁투어를 대체하기 위하여 헤이리 예술마을 투어를 신청하게 되었다.

언제쯤 정해질까... 기획 초반, 12월 15일 (행사 이튿날)은 수원 행궁투어를 하는 것으로 예정 되어있었다. 그러나 수원에서 파주로 행사지가 변경됨에 따라 헤이리 마을의 명소를 조사하던 중에 버스타어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기획팀에서 물론 일정을 계획하는 것이지만 좋은 대안을 찾았으니 서로 이득(?)아닌가!!

대관 팀에서 숙소를 예약하며 헤이리를 둘러볼 수 있는 수단을 알아보았다. 숙소 '하이드하우스'측에서는 버스타어를 추천하였다. 버스타어를 하게 된다면 헤이리 벤치마킹 프로그램(헤이리 예술마을소개 + 한국근현대사박물관 + 93미술관 + 전기차 투어 및 해설)을 1인 25,000원 이라는 금액이 들었다. 그러나 박물관 방문이 우리에게 크게 남는 것이 있을까 하는 고민 끝에 우리가 투어를

계획하기로 하였으나 머그컵 제작소와 같은(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했던)체험 뿐이라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하였다. 또한 파주 헤이리 예술마을에 단지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가기보다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고 마을을 둘러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기적적으로, 헤이리 예술마을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단체투어 문의 연락처를 통해 청년 25명 단체 투어 일정을 추천해달라고 하였고 약 2시간을 예상한 투어 일정표에는 가이드와 함께하는 마을산책을 비롯하여 박물관, 카페 투어가 있었다. 그러나 행사 전 날 참여 인원이 11명이 된 것과 함께 박물관 투어를 취소해야 해서 또 변경을 해야 했다. 헤이리 마을에 대한 강의를 받을 수 있다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었는데 한 자리에서 이야기를 듣기보다 마을을 둘러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기억에 남을 것 같아 해설사와 함께하는 마을 투어만 진행하였다.

밥은 먹고 합시다!

행사지 가는 길에도 저녁 생각, 잠들기 전에는 아침 생각, 오전 일정 쉬는 시간에는 점심 생각밖에 안 했던 것 같다. 식사 장소를 정하는 것이 또 이렇게 부담일 줄은 몰랐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라는 말이 이렇게 부담으로 다가올 줄이야. 파주에 가기 전부터 한식, 중식, 양식, 일식 파주의 모든 식당을 검색하여 어떤 음식점이 우리의 취향을 저격할 수 있는지 고민하였다. 어느 식당을 가야 모두의 마음에 들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다. 신희영 멘토는 파주에 오시는 동안 '짱구네 포차'에 가야한다고 하셨으나 우리는 포차에 가면 술을 마셔야 할 것만 같고 그러면 회의는 힘든데.. 라며 대신 양식을 먹자고 했다. 행사 준비를 위해 마치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최후의 만찬>을 현실로 그려낸 듯 여러 개의 테이블을

하나로 길게 연결시켜 분위기 있는 만찬을 즐겼다.

13일 저녁을 양식을 먹었으니 14일 첫 끼는 한식을 먹어야만 할 것 같아 아침에 눈뜨자마자 파주 출판단지 근처의 '파주 돈미랑'이라는 김치찌개 가게를 찾았다. 다들 잘 먹었다고 말씀 해주셨는데 진심이셨으면 좋겠다..

14일 저녁은 네트워크 파티를 진행했기 때문에 이렇게 긴~시간 파티가 진행될 줄 모르고 기존에 예약해 놓았던 식사 장소에 양해를 구하고 취소를 했다. 그리고 15일 오전에 계획된 '해장토크'를 위하여 파주에서 먹는 '양평 해장국'을 갔다. 사실, 가는 길 돌아오는 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 두 대의 차량으로 이동을 해야 하는데 먼저 출발한 차에 탑승한 윤동현 선생님이 나중에 출발해야 하는 차량의 열쇠를 가지고 오는 바람에 다시 돌아가야 했다 던지,, 식사를 하고 먼저 출발 한 차량에 모두가 탑승 한줄 안 박효진은 처장님과 함께 출발을 했는데 해장국 집에 멘토님과 오다예 선생님이 남아 계셔서 다시 돌아갔다 던지,,

박효진 : 물어보는 사람마다 메뉴는 다 괜찮다고 하시고... 헤이리 마을 근처에는 선택권이 정말 많지 않았어. 결국 한식을 대부분으로 먹긴 했지만, 급하게 찾았던 김치찌개 집이 생각보다 맛있었던 기억이 나서 뿌듯했어.

박소현 : 네트워크 행사 저녁 바비큐 고기가 부족했던 것만 빼고는 모든 식사가 참 맛있었던 것 같아. 다음에는 '짱구네 포차' 도전해보는 걸로...

김민기 : 강연진행에 쓸 다과, 음료 량 저녁시간에 먹을 삼겹살

및 부식들을 샀는데, 우리가 저녁식사보단 안주를 더 많이 고민한 것 같네...^^; 강의 때, 철모샘이 말씀하신 몸으로 하는 기획 얘기를 들으니까, 보여지는 것 말고 좀 캐주얼한 메뉴로 했으면 어떻게 장봤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하더라.

↳↳ 박소현 : 저녁에 밥이 모자라서 못 먹은 사람도 있어서 난감했어!ㅠㅠ 괜찮다고 해서 다시 사오지는 않았지만.. 다음엔 더 넉넉히 준비하도록 하자~

↳↳ 김민기 : 아, 그건 계산 미스... ㅠㅠ
그리고 하나만 더! 식성이 다 다르고 취향이 다르니까 무난하게 해물탕 골랐는데, 다들 해물탕 싫다고하더라? 야심차게 준비했는데, 별로 안 먹어서 속상!

4. 우리의 밤은 낮보다 뜨겁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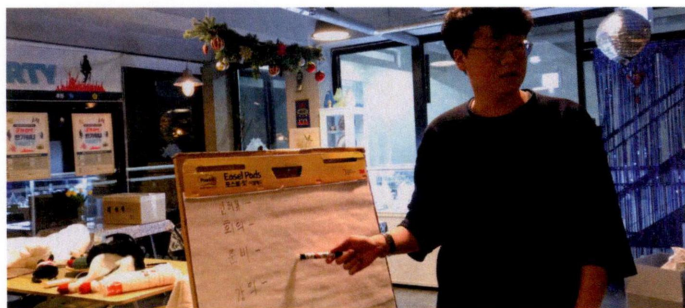
일시 : 2018년 12월 13일

장소 : 파주 헤이리마을 하이드 하우스

참석자 :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사무처장, 멘토 신희영, 문화청년U 6명
(박효진, 윤동현, 배준영, 이양우, 박소현, 김민기)

레드카펫은 없지만 환대할 준비는 완벽해

행사 준비를 위해 13일(목)에 함께 파주에 도착하여 방 배정을 하고 주요 행사를 진행하게 될 지하1층의 공간을 꾸미기 시작했다. 우리의 컨셉은 '아늑한 연말파티 분위기'였다. 행사장에 오기 전 동현, 소현, 준영은 분위기를 연출 할 수 있는 인테리어 장식 용품들을 사왔다. 근데 이건 정말 파티를 위한 소품이었다. 어느새 나는 미러볼 풍선을 불기위해 고생을 하고 있었고, 갑자기 눈사람 모자를 쓰고 있는 내 모습을 보았다. 천장에 풍선을 매달기 위해 의자를 밟고 올라가던 준영쌤의 모습이 아른아른하다. 소현쌤은 출입문에 파란색 셀로판지 같은 걸 붙였는데, 분위기는 순식간에 파티장이 되었다.(덕분에 무조건 당겨서 열어야 하는 문이 되었다. 밀면 셀로판지가 휘날렸기 때문에..) 사실 행사장 분위기 자체가 사전답사 때와는 또 다르게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맞춰서 연출되어 있었다. 그리고 파티장인지



행사장인지 모를 이곳을 행사 포스터로 깔같이 붙이던 민기쌤 덕분에 '우리 네트워크 파티 행사 합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간격이 어찌나 칼 같은지, 눈에 각도기가 달려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시선을 끝만한 화려한 용품들과 멤버들 모두 정성스레 준비한 덕분에 파티 분위기는 한 층 더해 졌다.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우리는 적어! 우리가 인터뷰 다녀왔던 청년단체들의 참석을 기대했다. 하지만 우리의 행사가 너무 급박하게 만들어져서 인지, 행사 전 날까지 참가자가 작성해야 할 사전참가신청 양식에는 단 6명의 참여자만이 응답되어 있었다.(그마저도 당일에는 대부분 참석하지 못했지만) 물론, 행사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참가하는 기대는 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가 인터뷰를 다녀왔던 청년단체에서 참여가 한명도 없어서 속상했다.

참가자이자 기획자로

우리는 지난 회의의 업무분장을 토대로 한 번 더 큐시트를 수정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섯 개의 주제로 예정했던 소그룹 토크가 세 개로 줄었기 때문에 넉넉한 시간에 소그룹 토크가 아닌 강연을 위주로 변경하였다.

기존에 14:30부터 석식시간까지 예정했던 부분을 15:50부터 양철모 기획자와 박도빈 기획자의 강의로 순서대로 계획하고 기획자들에게 변경된 시간과 일정을 알렸다. 강의를 하는 시간에 기획자들에게 단체의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궁금한 점을 물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김수미 기획자에게는 강의보다 상담을 위주로 부탁을 드리게 되었다. 김수미 기획자는 타로 마스터이기도 하다. 따라서 힐링 상담소를 진행할 때 우리가 타로를 보면 어떨까 했고 이양우, 김민기가 타로를

보게 되었다. 기존에는 김수미 기획자에게 2명이 타로를 도는 동안 다른 6명이 관람을 하기를 원했는데, 개인적인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크고 청중이 공감하기 힘든 이야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조용한 장소에서 1:1로 타로를 보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다. 또한 강의를 해주시는 분들에게 가능하다면 식사하고 가실 것을 요청하고 소그룹토크에 함께하실 수 있는지 의향을 물었다.

윤동현 : 여러분들, 잠깐 섭외 팀으로서 한마다 하자면, 여러분들은 저 아니었으면 타로를 못 볼 뻔 했다는 것이죠.(웃음) 사실 섭외 성공을 하긴 했으나, 그 시점에서도 타로를 치는 것에 대해서 허락을 해주신진 않은 상태였었는데, 내가 정말 간곡히 부탁드려서 겨우 타로를 해주신다고 하셨었지. 그렇게 2명을 해 주신다고 하셨었지... 초를 준비해달라고 하셨는데, 신비로운 타로 점 분위기를 형성하고 싶어서 큼직한 초 하나를 준비하려고 했었어. 그런데 막상 "이거다!" 싶은 초가 상점에 없었고, 행사 장소에 이미 초가 많더라고. 그래서 결국은 행사장에 기존에 있던 초들을 사용했는데, 나름 내가 생각했던 분위기는 났던 것 같아. 수미쌤도 맘에 드는 눈치였어!(웃음) 사진을 찍기 위해 잠깐 타로점 치는 장소에 잠깐 있었는데, 그때 수미쌤의 눈빛은 잊을 수 없어.

박효진 : 동현쌤 덕분에 은은한 분위기에서 신이 내린 기회처럼 타로를 보게 되었지. 하루에 몇 명 안 봐 주신다고 들었는데, 난 정말 운을 다 쓴 것 같아... 조명이 은은하고 조용한 분위기에서 눈을 마주치고 내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었다는 눈빛을 보내주시는 김수미선생님 덕분에 나를 200% 내려놓고 대화할 수 있었지. 어쩌면 해답을 바라고 했던 말은 아닌데 공감도 해주시고 앞으로의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함께 고민해주셔서 감사한 마음뿐이었어.

강사 분들 세 분 모두 하루에 만나기 힘든 분들인데 소그룹 토크가 아닌 한 시간을 넘게 강의를 부탁드리게 되었다. 그리고 소수의 인원을 데리고 강의를 하셔야 할 텐데 우리 분위기가 침울할까봐 걱정이 되어서 특히 눈을 반짝이고 강의를 들을 사람을 정해야하나, 개인적으로 질문 할 것을 미리 준비하고 (뒷)조사를 철저하게 했어야 했다 걱정이 많았다. (강의가 재밌어서 우리 걱정은 그냥 걱정일 뿐이었지만,,)

업무분장

역할 (팀)	이름	업무
총괄 (기획/행정)	박소현	전체 진행상황 확인 및 각 담당자 도움
진행 (홍보)	이양우	네트워크 진행, MR관리, 촬영, 녹음
진행, 후생 (홍보)	김민기	홍보물 설치, 물, 촬영
진행 (기획)	배준영	네트워크 진행, 자료집, 필기구 배부
후생 (대관/기록)	윤동현	멘토케어, 지급내역서, 계약서 관리
후생 (대관)	박효진	다과, 숙식 관리, 참가자 안내 및 관리

*현장상황에 따라 업무분장이 바뀌기도 했음

행사당일 나는 다과, 숙식 관리, 참가자 안내 및 관리를 맡았는데 다과는 대부분 함께 준비했고 참가자 안내 및 관리도 처장님께서 도맡아주셨다. 어찌다보니 강의 세팅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읽을 자료집을 배분하는 것과 강사분들의 강의를 위해 물을 준비한다든지 사소한 것에 서툴러서 경험이 정말 중요하구나 생각했다.

가장 치열했던 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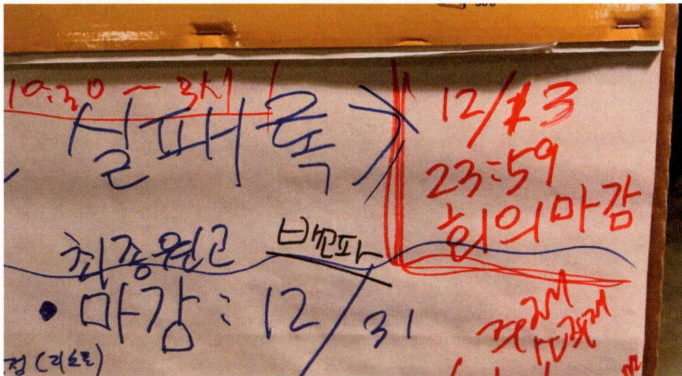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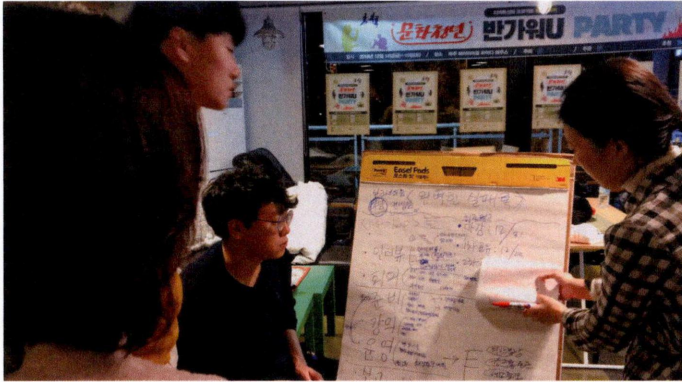
행사 계획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을 시점, 우리는 결과보고서 콘셉트 회의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했다. 결과 보고서의 콘셉트와 어떤 부분을 강조해서 써나갈 것인지 고민을 하였다.

기존의 결과 보고서는 딱딱하고 성공적인 내용 서술식의 보고서였다면 우리 '문화청년U'의 결과 보고서는 행사 내용의 서술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상하고 기대했던 것과 무엇이 달랐는지 위주로 작성해보고자 하였다.

그 아이디어에서 나온 보고서의 주제는 <완벽한 실패록>이었다. 우리는 완벽한 실패를 하기로 했는데 예를 들어 회의에 참석률이 너무 높아서 회의를 실패하는 데 실패를 했다던지,,, 일단 우리 행사의 진행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인 참가자 모집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이러한 점을 반성하는 기회도 될 것이다.

반드시 시간 순서대로가 아니라 각자의 파트를 잡아서 그 날의 주제, 진행 방식, 중심 이야기들을 풀어내고 각자의 느낀 점 그리고 이 행사를 참여하면서 드는 생각 (예를 들면 회의 방식에 대한 불만, 나라면 어떻게 진행했을지, 다음에는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 됐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자신의 시점에서 이야기를 풀어내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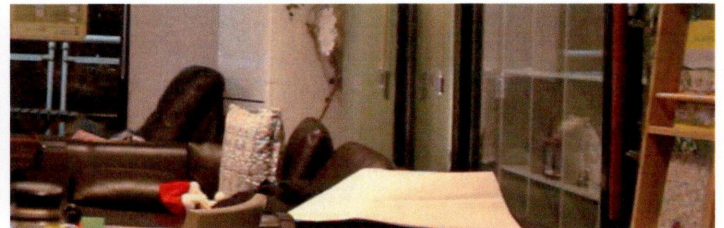


보고서 전체적인 틀 진행 과정

1. 말은 부분을 객관적으로 서술 + 다른 사람의 인터뷰 받기
2. '문화청년U'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진행해온 일정을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 바라보고 사건을 서술하기

<파트별 내용>

1. 행사 이전에 다녀온 인터뷰와 설문 (이 안에는 청년단체를 왜 인터뷰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인터뷰나 설문 중에 있었던 재미있었던 일 등)
2. 8월부터 시작한 우리의 회의 (약 5차시로 이루어진 우리의 회의의 날짜, 내용, 참가인원 등)
3.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 (행사 기획준비, 섭외와 대관, 홍보, 큐시트 작성 등)
4. 행사에 중심이었던 강의 (강사의 인터뷰, 강의 내용, 우리의 반응 등)
5. 전체적인 행사 운영 (행사를 진행하며 있었던 변동사항, 운영의 애로사항 등)
6. 보고서 정리, 취합 이렇게 여섯 개의 파트로 나누었다.



박효진 : 지금까지의 시간을 통틀어서 우리 모두가 가장 치열하게 토론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 우선 <완벽한 실패록>이라는 콘셉트가 제안됐는데, 그것이 신선하게 다가왔어.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우리가 예상했던 커다란 커뮤니티 행사에서 참가자가 적어지고, 실제로 진행된 행사로 변하는 과정이 앞으로 우리가 성장해갈 수 있는 기록이 될 수 있겠구나 싶었어. 나에게 있어서 이번 행사는 내 인생에서 가장 많은 도전과 노력이 담겨져 있는 만큼 '실패'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기도 했어. 그러나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완벽한 실패록>이 완성되어 성공적으로 갈 수 있는 발판이 되면 훗날 우리에게 '완벽한 성공'을 안겨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박소현 : 이 공간 안에서 우리의 생각이 실제로 반영되는 부분에 설렘을 느꼈어. 사람이 많지 않은 것을 예상했기에 더 편하게. 우리만의 네트워크 행사로 만들어갔던 것 같아. 아늑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함께 꾸미다 보니 이 공간도 곧 추억으로 남겨질 장소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 13일 우리만의 전야제는 끊임없는 토론으로 새벽 4시까지 이어졌지. "토론하다가 사망하겠다~!" 그래서 사망토론인가? 연습 제대로 했네.

윤동현 : 각자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시간적, 마음적 여유가 생겨서 인지, 많은 안전들을 큰 지체없이 착착 풀어나갔던 것 같아. 물론 피곤해서 빨리 결정해버리고 싶다는 마음이 모두에게 들어서 서로 열심히 했던 것일 수도 있으나, 우리가 만나고 여러 번의 회의를 거듭하면서, 서로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고, 서로가 회의를 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보다 효율적인 회의가 될 것인가'에 대해 배워나갔던 것이 쌓였기에 이전의 회의 때보다 더 밀도 높은 회의가 될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해. 물론 회의 장소의 따뜻한

분위기도 몰입을 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는 생각도 들어. 우리는 만나면 만날수록 회의를 더 잘 해나가고 있는 느낌이야!

배준영 : 행사 전날 우여곡절 끝에 헤이리마을에 모인 우리, 이판사판 행사의 급격한 방한전환 이후 어떻게 결과자료집을 꾸며야 할지에 대해 토론을 하게 되었지. 자연스럽게 그간의 우리의 활동에 대해 각자 하고 싶은 말이 많았기에 의견이 많이 나왔잖아. 그동안의 회의 중에 가장 합의 잘 맞았던 회의였다고 생각들어.

헤이리 동네한바퀴 돌아보기 위한 준비

15일 예정된 해장토크 시간에는 행사 진행 과정에 대한 진지한 이야기를 하기로 하였다. 아름다운 실패를 하는 것은 좋다. 우리가 한 것이 실패라고 하고 싶진 않지만 인원을 모으는 데에 있어서 실패를 한 것은 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어 갈 수 있는지 생각하고 그것이 결과 보고서에 담겨져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전 날 양철모, 박도빈 멘토와 신나게 이야기를 나눴고 2차로 청년U 멤버들은 그동안의 회포를 풀기 위하여 마지막으로 만날 것처럼 밤을 지새우며 사망토론 하었다고 한다. 그래서 일찍 일어나 해장토크를 할 수 없었다. 해장토크는 다음 결과보고 회의로 미뤘다.

오후에는 <동네한바퀴 in 헤이리>를 진행하고자 헤이리 예술마을 도슨트에게 마을 해설을 듣고 박물관에 방문하는 일정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갤러리 카페나, 박물관 등은 개인적인 방문으로도 충분히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헤이리 예술마을에 대한 마을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듣고 싶다는 의견이 나왔고, 주어진 약 두 시간을 헤이리 예술마을 투어에 집중하는 것이 어떤지 변동 가능성을 확인했다.

사실, 마을 투어 일정을 길게 예상하고 헤이리에 견적서를 요청했는데, 큐시트가 지속적으로 수정됨에 따라 많으면 두 시간 적게는 한 시간 정도 투어를 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결국 마을 투어만 할 수 있었는데, 가이드 분께서 헤이리 마을에 대한 애정이 상당히 많으신 덕분에 예정보다 긴 시간동안 마을 구석구석을 돌아다닐 수 있었다. 헤이리 동네한바퀴를 구석구석 돌아보며 가이드 분의 마을에 대한 애정을 느낄 수 있었고 헤이리에 여러 번 와보신 분들도 처음 알게 된 것들이 많았다고 하셨다. 둘러보는 내내 귀가 즐겁고 눈이 즐거웠다고 다들 만족해 하셔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다.



강의

지역에 먼저 자리잡은 선배들의 이야기
문화청년U 이양우의 시선



1. 믹스라이스 양철모 선배 편

- 매력적인 문화기획자
- 감성을 위한 이성
- 응큼한 기획자 양철모

2. 동네형들 박도빈 선배 편

- 동네에서 좀 논다하는 형
- 다른 관점, 다른 생각
- 욕망에 충실하다

3. 강의후기

4. 반가워U

- 기획부터 결말까지

1. 믹스라이스 양철모 선배 편



매력적인 문화 기획자

양철모 기획자는 현재 문화기획자로서 기획 일을 하는 것과 동시에 서울문화재단 예술청에서 자문을 하거나 예술인 거점공간 조성사업에서 일을 하는 등 다양한 방면으로 문화기획자, 예술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하고 지원정책에 힘을 쏟고 있다. 아트홀을 매입하거나 시민청을 예술청으로 바꾸는 노력 등 예술가들이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가장 밀접하게 느끼는 그가 말하는 문화기획이란 무엇일까?



기획자는 올해 경기도 안성과 화성, 시흥시에 총괄 컨설턴트 등의 업무를 하며 바쁘게 보냈다고 한다. 지역자치와 맞물려 20개 가량의 큰 사업을 진행하면서 기획을 해보지 못한 주민들에게 기획자를 파견시킴으로써 지역 기획을 돕는 데에 일조한다. 그 사이에는 경기문화재단, 서울문화재단, 문화예술위원회, 예술인

복지재단 등이 맞물려있고, 이런 기관들이 모여 창작용역 작가기준, 미술인 표준계약서, 예술인 고용보험 등 수많은 일을 해내고 있다. 이는 민간에서 하는 이야기들을 직접 전달하는 컨설팅(작가), 문화기획자의 결합으로 일종의 민간 버거년스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문화 기획자 양철모는 현재 미술그룹 믹스라이스로 활동 중이다. 그의 강의에서 서두가 되었던 말은 “매력적인 기획”이다. 그가 최근 가장 많이 만나고 있다는 학력이 없는 무학력의 한 문화기획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그는 19살의 어린 나이로 처음 살 곳을 마련하기 위해서 산에 조그마한 집을 짓고 살다가 결국 철거공문을 받고, 고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리어가 위에 집을 만들게 된다. 고물상에서 측량한 그의 한 평 남짓한 집의 무게는 180kg, 성인 남성 세 명의 무게만도 못한 그 집을 운영하기 위해 그는 여러 장소를 떠돌기도 하고 지도를 보며 리어가 집을 옮기기 위한 계획도 세운다.

그러던 어느 날 안정적인 거주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리어가 집을 청년허브 시설의 작품처럼 보이도록 ‘리어카 집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되고,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서, 예술작업 프로젝트로 기획서를 작성한다. 날것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그의 글에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기 충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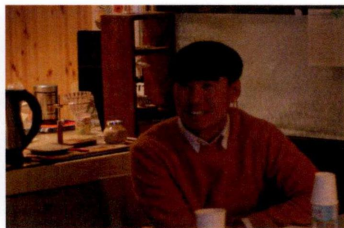
이를 시작으로 그의 리어가 집은 한강이나 광화문 시장에 초청을 받기도 하며 예술 프로젝트로 자리 잡기 시작한다. 그는 도심의 폐가, 재개발지역에서 사람들이 놓고 간 골동품을 이용해 캔들을 만들기도 하고 나무토막을 이용하여 조명을 만들고 리어가 집에 사람들을 초대하여 하나의 전시공간으로 만들기도 했다.

이와 같은 사례를 보이며 양철모 기획자는 청년세대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한다. 리어가 집 기획자의 현재 나이는 고작 20대 초반일 뿐이지만 현재 그는 하나의 예술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 평 남짓한 전시공간도 가지고 있다. 양철모 기획자는 20대 초반이라는 나이가 어리지 않다고 생각한다. 스무살, 성인임을 인정받는 나이에 우리는 모두 그 나름의 가치관을 형성하고 있다. 그들에게 부족한 경험과 가치관의 성숙은 그저 묘사일 뿐이다. 오히려 기성세대처럼 딱딱하지 않은 청년세대의 유연함은 우리 사회를 이끌 수 있다고 한다.

이전 정부가 탄핵될 당시, 광화문을 밝히던 촛불 중에는 20대뿐만 아니라 10대의 어린 학생들 또한 함께 있었다. 이들도 충분히 사회적이고, 정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다. 하지만 오히려 우리는 그들을 청년이라는 지위아래에 묶어 놓은 것일 수 있다고 양철모 기획자는 말했다.

앞서 리어가 집을 기획한 한 청년은 22살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들에서 탈출을 시도하고 있다. 몸을 머무르게 하지 않고 스스로에게 끊임없는 질문을 통해 문화를 배운 그는 인턴십을 통해 양철모 기획자와 일을 하며 결국 예술가의 지위를 획득했다.

22살의 젊은 기획자는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가? 확실한 것은 그의 기획이 재밌고 매력적이라는 것이다. 그는 본인의 기획을 만들어낸다. 김치가 필요하고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면 김치 담그는 날을 만들어 주변 사람들을 엮어낸다. 감자 수확이 필요한 날에는 감자 캐는 날을 기획하여 사람들을 불러모은다.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모이는 것이 곧 사회에서 말하는 매력적인 기획이 아닐까 싶다.



박효진 : 청년기획자들의 위치와 장점을 선배 기획자에게서 들어보니 청년으로서 굉장히 위로받는 느낌이었어. 또한 윗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청년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유연함에 철모쌤에게 대단함을 느끼기도 하는 부분이 있었어.

박소현 : '아,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정말?'이라고 혼자 계속 생각했어. 일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이건 여기까지'라고 단정지어버리거나 '쓸데없는 일' 혹은 '귀찮은 일'로 치부해버렸던 생각들이 다시 떠올랐어. 철모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만의 상상들을 많이 떠올렸던 것 같아. 다른 애들이 봤을 땐 계속 실실 웃고 있어서 좀 이상하다고 느꼈을지도..ㅋㅋ

김민기: 나도 귀에 쏙힌 말이 '매력적인 기획'이었어. 리어카 청년의 사례에서 나는 지금의 청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어. 앞선 세대들은 산업화, 민주화라는 거대한 아젠다가 있었고 그 아래에서 공통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살았던 세대라고 할 수 있잖아.(물론 대략적인 흐름이고 모두가 그러지 않았기도 하지만) 그렇다면 지금 청년세대들의 사회적 아젠다는 무엇인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나는 그것이 최저임금, 일과 삶의 균형, 가치소비 등으로 미루어봤을 때 다양한 개성이 존중되며 어울릴 수 있는 융합이라고 생각을 했어. 건축가 유현준은 '나혼자산다'가 '혼자이고 싶지만 혼자이기만은 싫은 욕망'을 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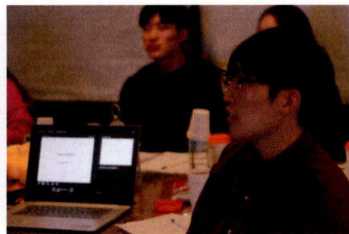
반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했는데. 이를 위해 사회적으로 주거권, 노동임금과 같이 나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적 뒷받침이 필요할 것 같아. 결론적으로 나는 우리 세대가 추구하는 거대하고 공통된 가치가 무엇인지 고민해보고 이를 위한 크고 작은 노력을 해나가는 것이 우리 문청유가 가지고 갈 책임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봤어.

감성을 위한 이성

문화기획이라는 단어는 매력적이다. 예술은 괜히 멋있을 것 같고, 타인과는 다른 삶을 선택했다는 우월성을 가지게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수많은 문화 기획자들의 강의를 말하듯이 문화기획자의 사회 경제적 위치는 낮다. 문화적으로는 높을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하는 일들은 오히려 삶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고 일확천금을 버는 일들은 아니다.

문화기획자로 알려져 있다거나 문화 활동을 많이 한다면 화려한 경제자본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문화기획자는 활동을 함으로써 경제 자본을 얻는 것이 아니라, 문화의 지식자본을 쌓아가 결국에는 사람자본(인적자본)을 쌓아 가는 것이다.

2010년 무렵, 양철모 문화 기획자는 충북 괴산에 예술가들과 함께



모여 폐가를 고쳐서 만화방을 만들었다. 만화방에는 조그마한 영화제를 운영하기도 하고 음악 콘서트 혹은 귀촌청년들의 모임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장소로 쓰일 수 있도록 목적 없는 공간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그들은 모였다.

기관에서는 특정한 목적성이 부여되지 않으면 예산을 사용하기 힘들다. 문화예술을 위한 지원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화기획자의 입장에서는 순수한 쾌락이 곧 문화일 수 있다. 소수의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상상하는 것, 공간의 쾌락과 즐거움이 있는 공간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그렇게 필요한 것이 자신의 욕망과 쾌락을 아는 것이다. 자신의 욕망이 무엇인지 어떤 활동들이 나의 쾌락을 자극하는지 알아야, 더욱 매력적으로 보일 것이고 사람을 모을 수 있다. 양철모 기획자는 2010년도에 공공미술이라는 제도를 활용하여 이러한 장소들을 만들어냈다. 그가 말하는 문화기획의 역사는 이러한 제도적 개혁에서 시작했다고 말한다.

제도의 비판도 물론 존재했다. 예술가들의 공공미술 비판이 있었지만, 문화체육관광부의 시범사업 이후에는 여성가족부 등의 힘도 많이 실려 주민들과의 설득과 상생으로 예술가들이 공공미술 제도를 활용하여 벽화마을을 만들게 되었다. 이러한 제도들이 점차 사회적으로 넓혀지고 예산투입도 많아졌지만 새로운 문제점도 존재했다. 공공미술 제도를 만들어 혜택을 보는 것이 결국 회계와

행정을 하는 기획사라는 점이였다. 실적이 없고, 조직이 없어 피고용자로서 착취당할 뿐인 예술가들은 결국 기획사에서 벗어나 뭉치게 되었고, 사업을 직접적으로 받게 되었다.

박효진 : 스스로의 쾌락에 공감하게 하는 기획을 하라고 조언해주었을 때 스스로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어. 청년 문화기획자들이 혼란을 겪는 기획자로서의 정체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충고였던 것 같아.

박소현 : '사람자본(인적자본)을 쌓아가는 것이다.'이 말에 굉장히 공감이 되네. 자본 중에서도 가장 값어치 있는 자본 이라고 생각해.

김민기 : 현실을 생각하는 입장에서 문화기획자가 큰 돈을 버는 직업은 아니라는 말씀이 귀에 먼저 들어왔어. 그 대신 문화지식자본, 인적자본을 많이 쌓을 수 있는 직업이라고 하셨지. 좀..짜릿했어..구한말시대 대한제국의 자주성과 독립을 되찾기 위해 힘쓴 운동가들이 있었다면 21세기형 운동가는 공통의 가치, 화합을 추구하는 기획자들이 포함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눈빛이 번쩍!

응큼한 기획자 양철모

사회는 스스로를 계속 고정시키고 안정화한다. 하지만 문화에서는 낱것의, 거칠고 끊임없이 약동하는 쾌락적인 공간으로 사람들을 초대할 수 있다. 앞서 말했던 목적 없는 공간 만화방은 무수히 많은 방송과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을 받았지만 거절했다. 자칫 이러한 목적 없는 공간들이 알려져,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다면 자유를 박탈당하고 사회로 고정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양철모 기획자는 언론의 이런 요청들을 거절함에서 조금은 우울감을 느끼기도 했다고 그의 응큼한 속내를 밝혔다.

그의 기획은 정말 낱것이다. 청년기획자 강의기에 말할 수 있는 그의 본심은 진흥원의 기획은 식상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그는 마케팅적으로 생각하고 디자인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기획이 아니라 더욱 거칠고 몸으로 부딪히는 기획들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마석가구단지에서 진행한 마석 동네 페스티벌 MDF가 한 가지 예시로 등장했다. 양철모 기획자는 마석가구단지에서 놀아본 기억이 있다. 하지만 그곳의 이주 노동인들은 항상 술을 마시는 것 이외에는 놀 수 있는(문화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이주 노동인이 즐길 수 있는, 술 이외의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 보고 싶다, 락 페스티벌 같은 행사는 어떨까, 에서 출발한 것이 마석 동네 페스티벌이었다. 그가 처음 발길을 돌린 곳은 경기문화재단이었다. 이주 노동인들을 위한 예산이 없냐는 질문에 찾아낸 것은 복지기금. 이 응큼한 기획자는 이주 노동인들을 위한 이 락 페스티벌에 공연자들을 '초대'했다. 마석가구단지에서 벌어진 이 작은 축제가 시간이 흐른 뒤 전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전설에 함께해 달라는 문구가 다채로운 페스티벌을 만들어 내었다. 그들은 가구단지 내의 빠레트로 무대를 만들고, 생화와 조화를 섞은 무대 장식, 소동냄새가 풍기는 무대를 만들었다.

예술가들의 협업을 통해 공장의 불빛을 빌려 지저분하고 거친 미안마 병따개, 이주 노동자의 나라를 담은 만국기, 이주노동자들이 만든 간접조명 등 여러 가지를 만들어 냈다. 수익을 바란 축제가 아니었기에, 예술가와 공연자들에게 쥐어진 것은 많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이 만들어낸 낱것의 문화는 그들의 삶에 새로운 숨을 불어넣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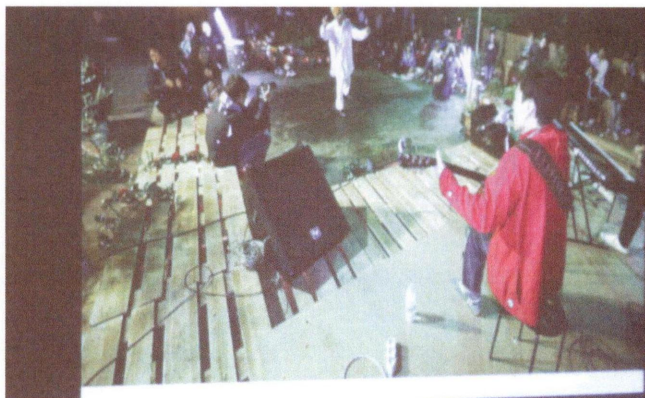
이양우 : 오프 더 레코드로 들어본 만화방의 모습들이 인상적이었어. 예술가들의 욕망이 표현된 아름다운 공간이라고 생각해.

윤동현 : 갑작스럽게 노트북 오퍼레이터가 되어서, 사실 당황스러웠어. 철모쌤이 PPT 파일을 보여주시기 전에 직접 가져오신 usb에 있는 사진 파일들을 보자고 하셨는데, 이게 자동으로 안 넘어가서 내가 수동으로 넘겼지. 철모쌤이랑 완전히 싸인이 맞진 않았지만 그래도 나름 재밌었어. 너무 몰입하면 사진 넘기는 것을 잊을까봐 '몰입'과 '비몰입'의 경계선을 아슬아슬하게 타면서 강의를 들어야 했던 기억이 남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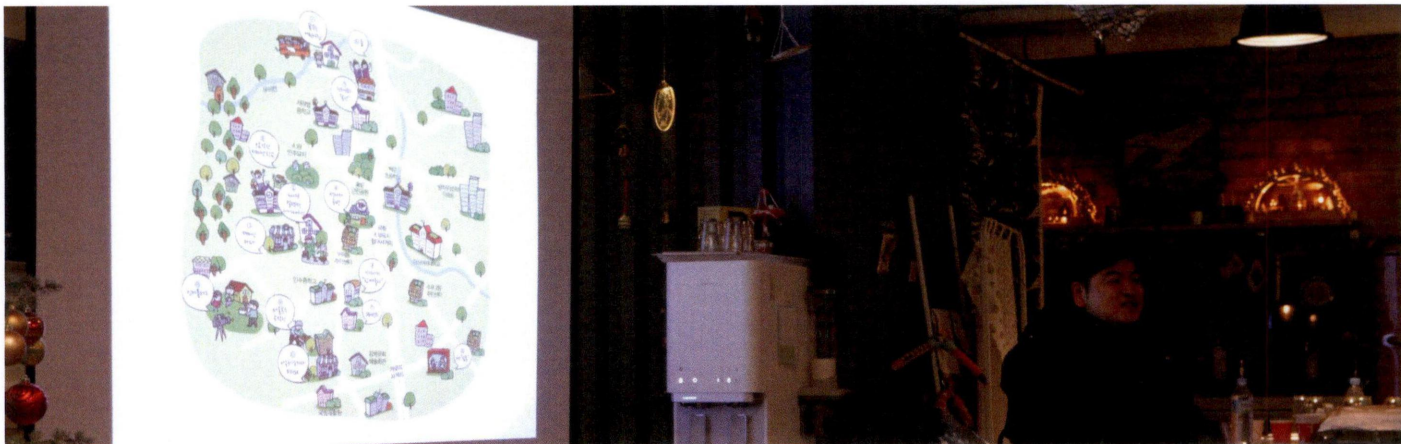
박효진 : 철모쌤이 말하는 몸으로 부딪히는 기획들이 뭘까? 나는 강의를 듣는 동안 계속해서 의문을 가지게 되었어. 강의가 끝난 지금까지도 몸으로 와 닿지는 않지만 그동안 나의 기획들이 몸으로 부딪혀 만들었다는 느낌이 별로 들지 않는 것 같아. 앞으로는 더욱 현장감 있는 기획을 하고 싶어.

박소현 : 몸으로 그리는 그림, 몸으로 부딪히는 기획. 느낌적인 느낌으로 알 것 같기도 해. 예를 들어서 우리의 포스터 디자인도 정돈된 예뻐는 있지만 낱 것은 아니었지. 좀 더 거칠게, 손으로 직접 그려도 좋고. 깔끔함보다는 인간미 넘치는? 그런 것으로 이해했어. 기획도 마찬가지. 우리가 직접 뛰어보고 깨달은 것들, 사람들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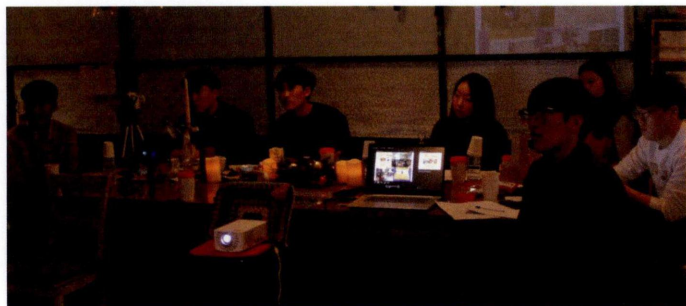
대화한 것들이 토대가 되어 실질적으로 기획에 반영하는 거겠지?
인터넷 검색이나 그동안 알았던 것 주관적 견해가 바탕인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올해 우리가 직접 발 벗고 댄 건 인터뷰 뿐
이라고 생각해. 그마저도 1회로 끝나버렸지. 관계를 쌓으려면 더 많이
방문하고 놀러갔어야 했고, 그들의 행사에도 참여해봤어야 했고....
내년엔 뭐든 풍당! 뛰어 들어가자!



2. 동네형들 박도빈 선배 편



동네에서 좀 논다하는 형



단체 이름과 같이 박도빈 대표는 강북구 동네에서 7년 정도 중요하지 않고 돈이 안되는 일들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가 전해준 자료집에서 볼 수 있듯이 그들의 모습은 동네에서 노는 형들의 일상을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었다.

박도빈 대표는 20대에 오랜 시간동안 해외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서 보냈다고 한다. 국제교류단체나 환경단체, 문화 예술단체 등의 비영리단체에서 많은 활동을 했었지만 막상 대학생이나 단체들에게는 인권, 생태, 평화를 이야기하고 가르치지만 본인의 일상은 그러한 것들에 밀접하지 않고 평화로움을 느낄 수 없는 일상이었기에 괴리감이 컸다고 한다. 이러한 가치들을 어떤 방법으로 일상에 가져올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스스로 하던 중에, 프로젝트가 중심이 된 업무로는 인적자원을 형성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프로젝트의 지원이 없으면 지속적인

업무가 불가능하기에 지속적으로 업무가 가능한 단체를 만들게 되었다고 한다. 국경 없는 마을에서 다문화 청년들과 함께 1년 정도 문화예술에 대한 교육을 하던 인적자원들이 동네에서 자리를 잡고 무엇인가를 해보자 라는 생각에 서울시의 강북구로 다 같이 이사를 와,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동네에서 벌어지는 작은 일들을 이들은 기획하고 만들어낸다. 동네반찬, 동네모임, 동네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 있을지 끊임없이 고민하는 이 단체의 움직임은 마을 공동체나 성미산 마을 커뮤니티 공간 등 동네 문화를 만드는 수많은 바람을 만들어냈다. 이들의 일상은 예술적이고 생활문화를 만들어낸다. 청년문화가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닿아있기 때문일까.

박도빈 대표는 동네형들의 단체 구성원 중에는 예술가가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들의 지향점은 예술적인 일상이다. 슬리퍼를 활용한, 목장갑을 활용한 예술 등 생활문화에 밀접하게 닿아있는 그들의 활동은 예술의 한 장르처럼 보이기도 한다. 특히 사회 구성원들이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권살롱, 알바노조, 인권 미용실 등의 기획들은 사회의 비판점을 직시하고 해결하기 위한 행동들이다.

동네형들은 기획을 하며 최대한 카톡방도 만들지 않고 뒤풀이도 하지 않는다. 어떻게 경쟁력을 가질 것인가, 공공의 자원을 어떻게 분배 할 것이냐, 어떤 콘텐츠에 내용을 담을 것인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장 먼저 해결하는 것은 동네형들이라는 청년 단체의 동력에 먼저 고민한다. 지역의 기획자들은 시작은 즐겁게 시작하지만 기획과 일을 하다보면 결국 기관의 성격을 따르게 된다. 동네형들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위한 가장 큰 동력은 무엇이었을까.

돈을 벌거나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큰일들이었다. 동네형들의 일중에는 교사들의 직무연수, 워크숍 등의 프로그램도 있었다. 선생님들은 학교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수업에 더 집중하고 즐겁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한다고 한다. 동네형들은 워크숍에서 이 교사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그들은 교사들에게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는다. 교사와 함께 즐겁게 노는 시간을 가질 뿐이다. 이런 프로그램을 겪은 교사들은 연수가 끝난 후 감사하다는 인사를 한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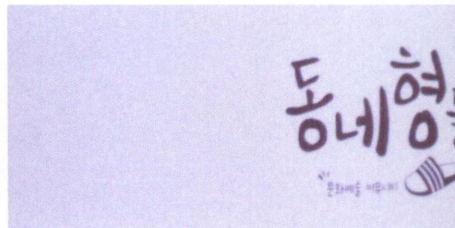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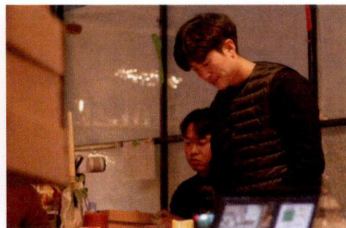
다른 예시로 동네형들의 '골목 돌려주기 프로젝트'가 있었다. 놀이터 활동가들을 모아 50개 정도 구역에서 동네 아이들과 노는 프로젝트였다. 그는 놀이터와 같이 공간들을 만들고 운영하고,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사는 방법을 찾는 것이 그들의 가치라고 말한다.

이양우 : 동네에서 노는 형들이기에 오히려 가까운 장소들에서 동네 사람들의 요구를 직시하고 함께 즐길 수 있었나봐. 축구장 바캉스, 골목축제, 청년악국, 탄청 연구소 등의 생활문화에 밀접하고 다양한 기획이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해.

김민기: 단체 카톡방을 만들지 않고 회식도 거의 안하면서 어떤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부분에서 동네형들의 동력이 우선 '고민하는 태도'가 배울점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어.

다른 관점, 다른 생각

박도빈 대표는 문화청년U에게 지역에서 무엇인가를 이뤄낸 경험이 있는지 물었다. 그는 지역문화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의 원주 멘토로 참여하여 다양한 기획서, 원고들을 검토하였다. 그는 교육생들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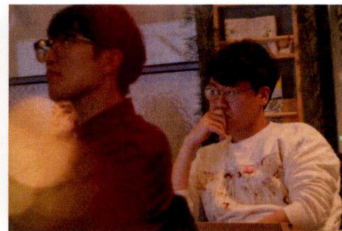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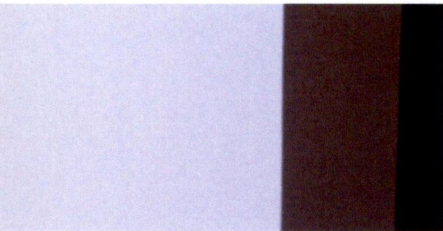
코멘트를 해줄 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포인트를 잡아낸 듯 보였다. 20대 후반에서 30대 후반의 청년들이 갖고 있는 '인간관계'라는 포인트이다. 그는 이 인간관계를 적당한 거리감이라고 표현했다. 최근 사회는 개인주의화 되어가고 있다. 하지만 1인가구가 증가하고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바라는 이 시대에서도 적당한 거리감이 존재하는 곳이 있다. 그곳이 바로 '카페'이다. 공부, 업무 등 혼자 하는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집을 떠나 '카페'에서 집중하곤 한다. 타인과 교류하거나 대화를 하는 일 없이 같이 있는 공간자체에 만족하고 즐기는 것이다. 청년공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불량식품 연구소, 무중력지대 등 자치구에서 이용하는 청년공간에서도 그들은 타인과 공간을 공유하되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며 섞이지 않는다. 이야기하고 떠돌고 나누는 가까운 모습이 아닌 청년들의 거리감, 학교에서 만나거나 일하면서 만나는 지인들이 아닌 '활동'을 하는 적당한 거리감이 주는 안정성을 파악한 것이다. 이러한 거리감의 다양성을 파악하는 감수성을 그들은 갖고 있었다.

청년들의 대부분은 부동산을 보유하지 못한 세입자로 살아가고 있다. 이 '집'을 위해서 정보를 얻기 위해 책을 보거나 강의를 들으려 가면 내 집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강의를 많이 받는데 정작 청자의 대부분이 세입자이다. 우리가 이 주거공간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라고 박도빈 대표는 물었다.

서울의 한 청년단체 민달팽이 유니온은 자취하는 청년들을 위해 쉽고 간단하게 정리된 보편적인 임대차 계약서를 간추려, 8장의 계약서를 만듦으로써, 자칫 원룸계약에 어두울 수 있는 청년들이 원룸계약에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도왔다. 또, 서울을 바꾸는 예술 지원 사업을 통하여 청년들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필요한 자취 노하우, 집주인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는 기술, 자취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취용 가구들(내 손에 맞는 아이템) 마을목수 공작단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짧게 거주하는 자취방의 특성 상 유지 보수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자취생들에게 발상을 전환하여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뜻 깊은 기획이었다. 이렇게 내 손에 맞는 아이템, 환경을 만들어 청년들의 입장에서 주거를 바라봄으로써 그들은 문화를 기획한다.

올해 초 동네형들의 공개채용에서도 그들은 새로운 생각으로 이슈가 되었다. 직원 1명의 공개채용에서 뽑히지 못한 60명의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면접 사후관리 행사를 진행한 점에어서이다. 동네형들은 행사를 노동관계에서 소외받는 불합격자들의 관점에서 바라보았고, 노동관계자들을 태그함으로써 그들의 발걸음을 붙잡았다. 일을 벌려놓은 이상 참여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양우 : 양철모 기획자와는 달리 사무적인 말투로 뽐어내는 이런 파격적인 생각들이 동네형들의 매력이었다고 생각해. 박도빈 대표의



무덤덤한 말투가 오히려 반전이었어. 동네형들의 홈페이지에는 동네형들의 트렌드를 파악하는 센스와 함께 가벼운 위트가 섞여 지나가는 이로 하여금 눈길을 땔 수 없게 만들더라. 사소한 팜플렛 하나, 강의자료 하나마저 독특함이 돋보이고 그들만의 정체성을 뚜렷하게 표시하는 그들의 감각이 부러울 따름이었어. 동네형들에는 예술가가 없다는 대표님의 말을 믿기 힘들었지.

욕망에 충실하다

매력있는 욕망과 기획에 대한 이야기를 두 번째 꺼낸 것은 욕망을 공모합니다 프로젝트에서였다. 한 공모사업에서 선택된 기획자들이 정산이 필요한 예산사용에 갑갑함을 느끼고 일부 기획자들의 예산을 모아 욕망을 공모하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었던 일에 대해서이다. 이들은 다른 기획자들이 공적인 돈을 사적으로 쓸 수 있다면 어떤 일에 쓰고 싶은지 순수한 욕망을 알아보고 싶었다고 한다.

결과적으로는 심사위원들의 기준을 미리 공지하고 사적인 욕망을 공모한다는 문구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인원들이 이 예산을 얻기 위해 여러 가지 살을 붙였다고 한다. 채식청년이 하는 한 레스토랑에서 레스토랑의 음식들은 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육식비율이 많기 때문에, 급 높은 채식음식을 만들기 위해 사찰음식을 먹어보려가겠다거나 동물권 단체에서의 프로젝트, 팝업 레스토랑 등등 원초적인 욕망을 보고 싶었던 심사위원들에게도

불구하고 결국 이러한 결과가 되고 말았다.

하지만 박도빈 대표는 이런 일들에 의미가 있다고 말한다. 매력 있는 욕망과 기획이 있어야 사람들이 모이고 기획을 하는 본인도 의미를 찾아야 한다고 말이다.

이양우 : 기획자로서 받을 دن게 된지는 얼마 안됐지만 기획서를 쓰면 쓸수록 순수한 욕망에서 멀어진다는 생각을 하게 돼. 공익적인 면에서 보면 당연한 일이겠지만 나도 이러한 기회가 있다면 언젠가는 내 욕망에 충실한 나만의 기획을 꼭 진행시켜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

김민기 : 지금 문화청년U가 내년에는 우리끼리의 욕망을 가지고서 작은 기획이라도 해보는 단계가 필요할 것 같아. 아마 그렇게 한다고 하기도 했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기획은 보다 더 매력적이게 될 것 같아.

박소현 : 나도 욕망 좋아해. 욕망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래서 '욕망을 공모 합니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은 거라고 생각해. 욕망은 삶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잖아. 의미 있는 욕망은 가치실현 최고의 수단일거야.

3. 강의후기

이번 반가워U 행사를 통해서 처음 청년 네트워크 기획, 연출을 하게 되었다. 경기도의 다양한 청년들을 만나보고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들로 인하여 참가자가 적었기 때문에 안타까울 따름이다. 하지만 반면에 참가자의 입장으로써 있었기에 다음부터 더욱 발전하고 공감할 수 있는 강의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품어본다.

개인적으로 가장 좋았던 부분은 강의파트였다. 평소 다른 기획 강의를 들으면서 결국 기획이란 문화의 일을 할 수 있는 대신 감수해야할게 많은(특히 금전적으로) 분야라는 이야기만 지속적으로 들었었다. 문화리더 프로그램에서의 강의가 그랬고 여타 청년단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이번 강의에서는 참가자가 적었기 때문인지, 기관에서 분리된 청년U만의 독특한 행사여서인지 현실적이고 친숙한 강의를 들을 수가 있었다. 다른 청년단체의 일원들과 같이 수강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강의가 성공적일 수 있었던 이유는 강사의 초이스도 있었겠지만 소수라는 장점이 많이 작용했던 것 같다. 강사와 수강생이 더욱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거리감이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성공적인 문화기획은 트렌드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네트워크 파티를 통해서도 들었던 이야기로는 이번 청년U의 행사가 최근의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고 그 점은

홍보물에서도 파악 가능할 정도였다고 한다. 강의를 몇 번 들어본 사람이라면 흥미를 끌지 못할 구성이었다고 피드백을 받았다. 홍보 담당자로서 면목이 없는 부분이었다. 또한 매력도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준비할 시간이 모자라서였을까 청년들이 듣고 싶어 하는 문제와 해결점을 짚어주지 못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행사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었다.

특히 Fix U의 타로 선생님에게서 1:1 상담을 받았을 때 정말 많은 충고를 들을 수 있었다. 사실 한국 안에서 나의 이야기를 올곧이 들어줄 수 있는 전문 상담사를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만나는 것은 쉽지 않다. 대학생활에서 학내의 심리상담사와 함께 몇 번인가 만나 보았던 경험에 빗대어 말하자면 그렇다. 심리상담도 그렇지만 타로 마스터는 또 어떻게겠는가. 처음 만나 본 타로 마스터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깊게 듣고 그에 맞는 카드와 함께 내 고민들을 분석해주었다. 또한 청년기획자들에게는 이렇게 말했다. 백번을 부딪치라고, 이번 반가워U 행사에서 한 번 부딪쳐본 나에게서 이 말이 더 크게 와 닿았다.

윤동현 : 사실 살아오면서 점괘, 타로 점 이런 것에는 관심이 1도 없었어. 그래서 이번 파티에서 타로점에 대한 기획이 나왔을 때도, 받고 싶다는 마음은 없었지. 게다가 수미쌤께서 모두를 봐주시긴 힘드시다고 하셨기에, '우리 문청U 멤버들 중의 누군가

받겠거니...했었어.

그러나, 행사 당일에 최종적으로 3명이 타로 점을 보았는데, 3명의 표정이 그 만족감을 온전히 다 드러내고 있었잖아. 특히 눈빛에서. 진정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정이 아닌 다른 감정들은 결코 만들어낼 수 없는 눈빛이었어. 때문에 12월 14일. 이 날 타로점에 대한 관심, 특히 김수미 선생님께서 해주시는 타로 점에 대한 관심이 '뽕!'하고 생겨났지.

언젠가.. 개인적으로라도 찾아뵈아겠어....

또 강의 이후에도 우리 청년U의 직원들에게 더 실무적인 이야기를 해주었던 양철모 문화기획자, 박도빈 대표에게도 감사를 표한다. 문화기획을 시작한지 얼마 시간이 않아 많은 것을 볼 수는 없었지만 이런 문화기획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드는 생각이 있다. 기획자란 정말 감성과 이성을 동시에 갖추어야 하는 복합적인 위치에 있다는 생각이다. 사람들의 감성과 내 감성을 합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다른 사람에게 이해시키고 홍보해야 하는 과정은 당연히 한쪽의 분야보다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나의 감성과 대중의 감성을 섞어 보여주는 예술가나 혹은 분석적으로 접근하여 사업을 완성시키는 사무와의 영역에 걸쳐있는 기획자들이기에 정말 본인의 감정 컨트롤이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다. 너무 분석적이 되지 않게, 너무 감성적이지 않게, 이러한 경계를 만드는 것이 지금 나에게도 너무 힘들다.

다행히도 문화청년U와 같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만남을 제공한다는 것이 나의 발전에도 참 좋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기에 더욱이 문화기획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나의 역량을 늘릴 수 있는 좋은 시기가 되고 있다.

문화기획자로서 계속 공부해 나가며 내 욕망을 파악하고 내 예술과 기획의 경계를 만드는 것이 앞으로의 목표이다. 언젠가는 문화기획자로서 자립하여, 오늘 훌륭한 강의해주신 대표님들과 함께 기획자 대 기획자의 동등한 자리로 만나, 그때 강의가 인상 깊었다며 전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한다.

윤동현 : 강의를 들으면서 다음에 오실 멘토 강사분들께 연락해야 한다는 사실에 시간을 체크하면서 듣다가 오실 시간 10~15분 전에 어디쯤 오고 계시는지 연락을 드렸어.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느라 강의를 듣고 있는 분들에게 방해가 된 것 같아 마음이 좀 쓰였어. 철모쌤 강의를 진행되는 중에 도빈쌤이 오셔서 대기를 좀 하셔야 했는데, 다과나 마실 것을 드리고 싶었지만, 강의 중에 왔다 갔다 하면 또 방해가 될까 그러지 못했어. 이후에 오시는 멘토님들의 대기 가능성과 그를 위한 사전 간식 준비를 생각하지 못했던 게 아쉬움으로 남아.

4. 반가워U - 기획부터 결말까지

결과보고서의 분담과정 중에 완벽한 실패록을 만들자는 이야기가 있었다. 행사는 실패했다. 청년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한 행사에서 청년 또한 오지 않았고 네트워크도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는 완벽한 실패가 맞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번 반가워U라는 행사를 통해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경험을 쌓았다고 생각한다. 어떤 행사도 성공을 바라고 많은 것을 해내기에 문화기획에서 실패의 경험을 쌓는 일은 드물다. 특히 참가자에서 그렇다. 보통의 행사였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모았을 참석자를 반가워U 행사에서는 모으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마음 놓고 실패를 분석할 수 있지 않았을까.

돌이켜서 기획부터 결말까지 생각해보면 청년U의 행사 기획에서 대부분의 의견이 나와는 맞지 않았던 것 같다. 어떻게 보면 청년U의 감수성을 파악하지 못한 감수성 없는 일원 이었던 것 같기도 하다.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들이 모여 이야기를 하니 여러 가지 의견이 안 맞을 수 있었는데 너무 고집을 부렸다는 생각도 든다.

처음 반가워 U 행사를 기획하기 이전 우리는 청년의 고민을 어떻게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를 했었다. 이제는 우리도 고민이 생겨야 할 지경이지만 이에 맞는 조사계획을 세우고, 청년단체를 인터뷰하였다. 청년단체를 인터뷰 하는 것이 그들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이후의 네트워크 행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꼭 거쳐야할 단계라는 생각에서였다. 다음번에 이러한 네트워크 행사를 위해서는 청년단체와 작은 일을 한 두 개 정도 해보는 것은 어떨까. 하루정도 작은 부스를 만들어 행사를 진행하고 이런 네트워크를 하나 씩 모아 경기도의 협업 가능한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작은 인연들이 서로에게 새로운 경험이 되었으면 좋겠다.

청년단체의 인터뷰가 큰 흥행을 하지 못했기에 설문지에서도 많은 표본을 얻지 못했다. 10명이 되지 못하는 표본에 청년들의 고민을 파악할 방법이 없었다. 청년단체라는 목표 표본이 너무 큰 의미를 둔 것은 아닐까 생각한다. 청년들의 고민을 위해서 일반인의 조사도 포함했으면 좋았을 것이라 생각한다. 혹은 청년단체원과 일반 청년들이 갖고 있는 고민의 다른 점은 무엇일지도 중요한 자료로 쓰일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러한 고민들에 대한 자료가 없었기에 기획과 홍보에서 그러한 장점을 살리지 못한 것도 아쉬웠다고 생각한다. 만약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을 저격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으면 매력 있는 행사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네트워크를 만들라고 강요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굳이 네트워크 파티라고 적지 않아도 네트워크가 생길 것 같은 행사가 있었고, 이를 홍보물에서 어필했다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앞선 언급했던 바와 같이 홍보물을 담당했기에 홍보물에서 더욱 아쉬움이 남는다. 먼저 홍보물 디자인에서 좋은 프로그램들을 돋보이게 하지 못했고 SNS, 홈페이지 배포를 염두에 두지 못하고 포스터 위주의 출력물을 예상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보지 못했다. 홍보물을 다양한 페이지로 제작하여 SNS 위주로 배포하였다면 더욱 좋은 효과가 나왔을 것이다. 또한 시기적으로도 10일정도의 홍보밖에 되지 못했기에 일반인, 청년단체 인원들이 연말 스케줄을 수정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고 파악된다.

또한 기념품 배포에서도 시간이 짧았기에 참가자를 예약제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참석자 인원을 반영하지 못해 다수의 재고가 남게 되었다. 문화청년 U의 정체성을 알릴 수 있는 청년작가와와의 콜라보레이션은 좋았지만 기간적인 제한이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키링이라는 아이템은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한다. 여타 직장이나 청년단체에서 연말이 되면 달력이나 다이어리를 배포하는데, 중복되지 않아서 독창성도 있었으며 전시만 하더라도 프린팅 되어있는 문화 청년 U의 아이콘이 더욱 접근성을 높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작가와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예술분야를 알게 되어 좋은 기회였다.

프로그램 면에서 문화청년U 내부 투표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청년강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생각한다. 청년 단체의 대표 혹은 강의 콘텐츠를 갖고 있는 인원들이 직접 강의를 꾸린다면 얼마나 재미있는 콘텐츠가 나올지 궁금했기 때문이다. 각자의 학력 혹은 환경, 전공 등이 달랐기에 그들의 정보량도 엄청날 것이다. 사실 청년 단지를 청년 대학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도 매력 있는 기획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기대감이 있었다. 또, 강의프로그램을 동시다발적으로 운영하여 어느 강의가 제일 청년들이 듣고 싶어

하는지, 강의자, 수강자에게도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또 참가자가 강사가 되는 것이기에 그들도 이 네트워크 파티에 주요한 역할 책임을 가짐으로써 더 애착을 가지기를 바랬다. 하지만 결국 청년 강의가 기획에서 빠졌기에 아쉬움만 남을 뿐이다.

대관과 운영파트에 있어서는 파주시라는 경기 북부지역이 접근성을 낮추었다. 대중교통으로는 쉬이 접근이 힘든 곳이기 때문에 자차를 보유하지 못한 청년층에게는 부담이 되는 장소였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예술가들이 집합되어있는 헤이리 마을이라는 곳은 장점이 될 수 있었다. 다음번에 기회가 있다면 경기도 중심부에 위치한 안산-수원 부근의 예술가마을 혹은 청년단지에서 행사를 기획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건물 자체를 대관할 수 있었기에 참가자가 많았다면 좋은 네트워크 공간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보인다. 운영에서도 현장 업무분장이 잘 되어 있었고 인력도 충분하였기에 짜임새가 있었다.

또한 강의파트에서 강사 선정이 탁월했고 강의 내용이 짜임새 있었기에 수강생들도 강의 시간뿐만 아니라 야간의 네트워크 파티에서도 많은 경험과 지식을 얻어갔다. 비록 강사의 시선에서 실패한 행사를 만든 기획자들 이라는 이미지가 새겨 질 수도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선배 기획자로서 문화청년U를 개성 있고 의욕이 넘치는 후발주자들과는 생각이 새겨지도록 문화청년U는 열의 있게 임했고 매력이 있었다. 그렇기에 강사도 야간시간을 할애하여 네트워크를 형성해 주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완벽한 실패라는 주제를 가지고 개인적인 소감을 작성해 보았다. 작성자뿐만 아니라 청년 네트워크 행사를 기획하는, 분석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실패 사례가 하나의 교과서처럼 만들어 졌으면 좋겠다는 바램이다. 작은 문화 행사를 치른 선배로써, 혹은

실패를 한 후배로써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다하고 책임감 있게
임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다.

김민기 : 청년들의 고민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움직였던 건 같은데, 그 방향에서 양우쌤이랑 생각이 좀 달라. 물론
청년들의 고민이 무엇인지에 집중해서 설문하고 통계를 가지고 저격
아이템을 만드는 것, 길거리에서 보다 라이브한 아이템을 만드는
것도 물론 방법이 되겠지만. 나는 이번 문청유가 다른 길을 생각했고
우리가 선택했던 그 길도 충분히 의미 있었다고 봐.
경기도에서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청년단체들과 네트워크를 만들어보고자 했던 시도! 실패했지만
모여서 함께 의논해보는 시도! 이 방법론도 좋았다고 생각해서
앞으로는 이 네트워크를 위해 부족했던 부분에 집중고민을 하면
다음번에 더 발전될 수 있을 것 같아. 잘 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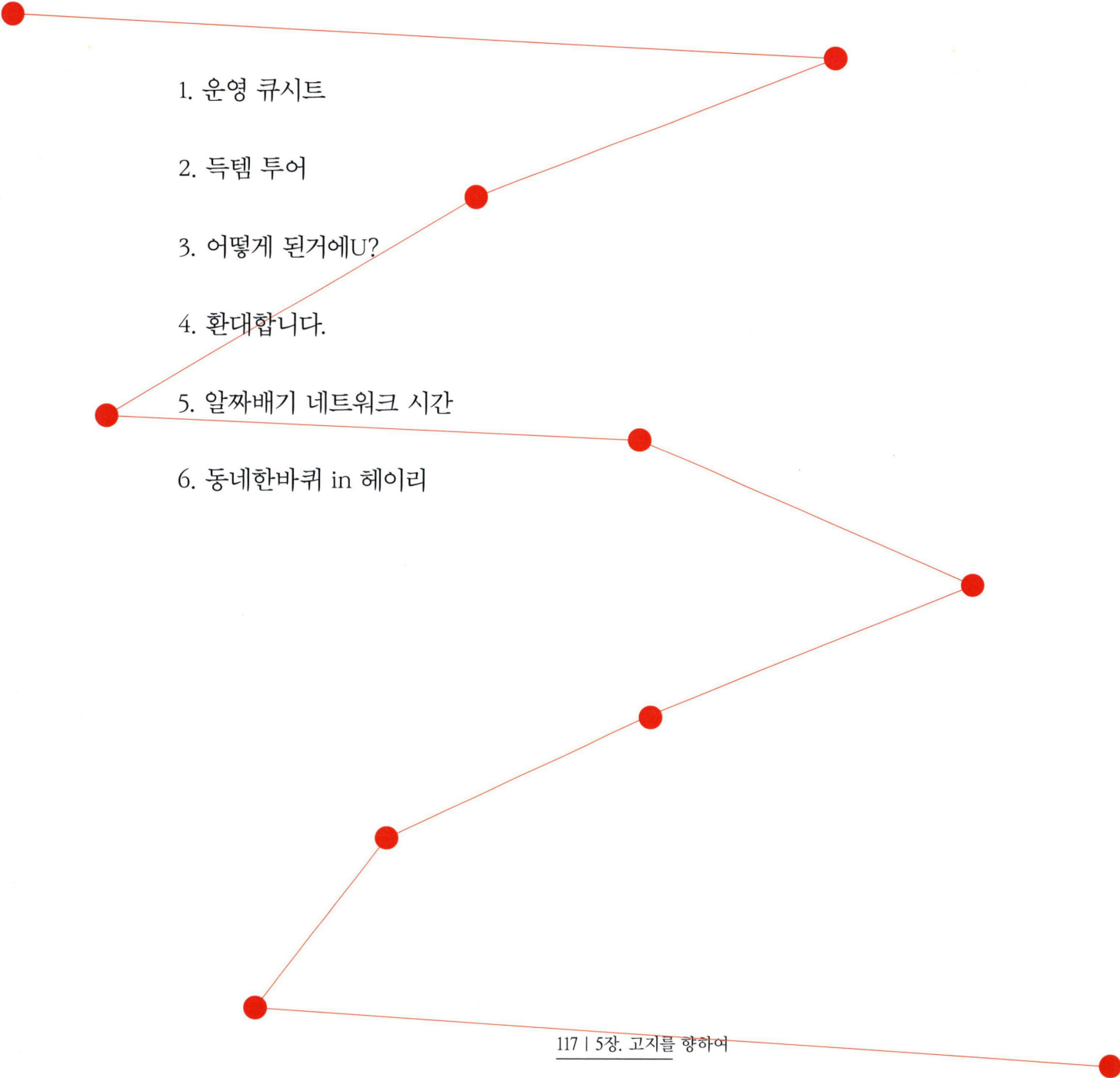


운영

U들의 속사정

문화청년U 김민기의 시선





1. 운영 큐시트

2. 득템 투어

3. 어떻게 된거에U?

4. 환대합니다.

5. 알짜배기 네트워크 시간

6. 동네한바퀴 in 헤이리

1. 운영 큐시트

지역특성화프로젝트<동네한바퀴> ‘문화청년, 반가워U PARTY’큐시트

12월 14일(금)							
구분	시간	소요 시간	내용			진행자	준비사항
동네 한바퀴	10:30~12:30	120	▸ 동네한바퀴 in 파주 - 파주출판단지 현장 사례 탐방				
	12:30~13:30	60	▸ 점심식사				
	13:30~14:30	60	▸ 파주출판단지 현장 사례 개별 탐구시간				
준비	14:30~15:50	80	▸ 이동, 휴식 및 준비				현수막, 포스터(양,김) 다과세팅(효) MR, 녹음기(양) 물, 홍보물품(김) 자료 및 필기구배부, 전구(배) 강사케어, 지급내역서 노트북연결(윤) 전체 확인 및 도움(소)
톡 투 U	15:50~17:00	70	▸ 주제 강의1 - 대대손손 지속발전 가능한 청년 네트워크 - ‘지역에 먼저 자리 잡은 선배의 이야기’			양철모	톡 다음 강사 확인(윤) MR(양) 다음 강의 준비(소)
	17:00~17:10	10	▸ 휴식시간			박도빈	
	17:10~18:30	70	▸ 주제강의2 1) 기획에 대한 고민 2) 지역과 연결한 사례 3) 2019 문화트렌드				
	18:30~19:30	60	▸ 석식 ▸ 네트워크 파티 준비				바비큐 파티 담당 : 최영주
우리 안의 U	19:30~21:00	-	▸ 네트워크 파티 - 사망토론	Fix U	힐링상담소(부스) -컨설턴트 -상담부스	김수미	힐링상담소 준비(윤) 주변정리(다같이)

12월 15일(토)					
구분	시간	소요 시간	내용	진행자	준비사항
준비	8:00~9:00	60	▶ 조 식		식사장소 안내(효) 최종확인(소)
	9:00~10:00	60	▶ 짐정리 & 체크아웃		
또만나U	10:00~10:30	30	▶ 해장 토크 - 마지막 속 풀이토크 (네트워크를 통한 향후 계획 및 짧은 소감 발표)		
동네 한바퀴	10:30~12:00	60	▶ 동네한바퀴 in 헤일리 - 파주 헤일리 예술마을 기획 사례 탐방		마을 버스투어(효)
▶ 폐회 및 정리					

업무 분담

업무분장			준비물품
역할(팀)	이름		
총괄	박소현	전체진행상황 확인 및 각 담당자 도움	
진행	이양우	네트워크진행, MR관리, 촬영, 녹음	
진행	배준영	네트워크진행, 자료집, 필기구 배부	
진행, 후생	김민기	홍보물, 물, 촬영	
후생	박효진	다과, 숙식 관리, 참가자안내 및 관리	
후생	윤동현	멘토케어, 지급내역서, 계약서관리	
관계자 연락처			
멘토1	양철모		
멘토2	김수미		
멘토3	박도빈		
숙소	하이드 하우스		
워크북제작	글그림		
현수막제작(프린트)	풍경종다		
홍보물제작	끼리앤코		

참석명단, 지급영수증, 홍보물품, 노트북
음원MR(시작 전, 휴식시간, 네트워크, 저녁식사시간)
현수막, 포스터, 단체복
강의자료, 필기도구, 큐시트받침, 문구류, 비상약,
다과, 물, 식사장소, 네트워크간식, 녹음기, 휴대난로,
카메라, 포스트잇전지, 블루투스마이크, 스피커,
행사PPT, 프린터기, 강의자료 등

2. 득템 투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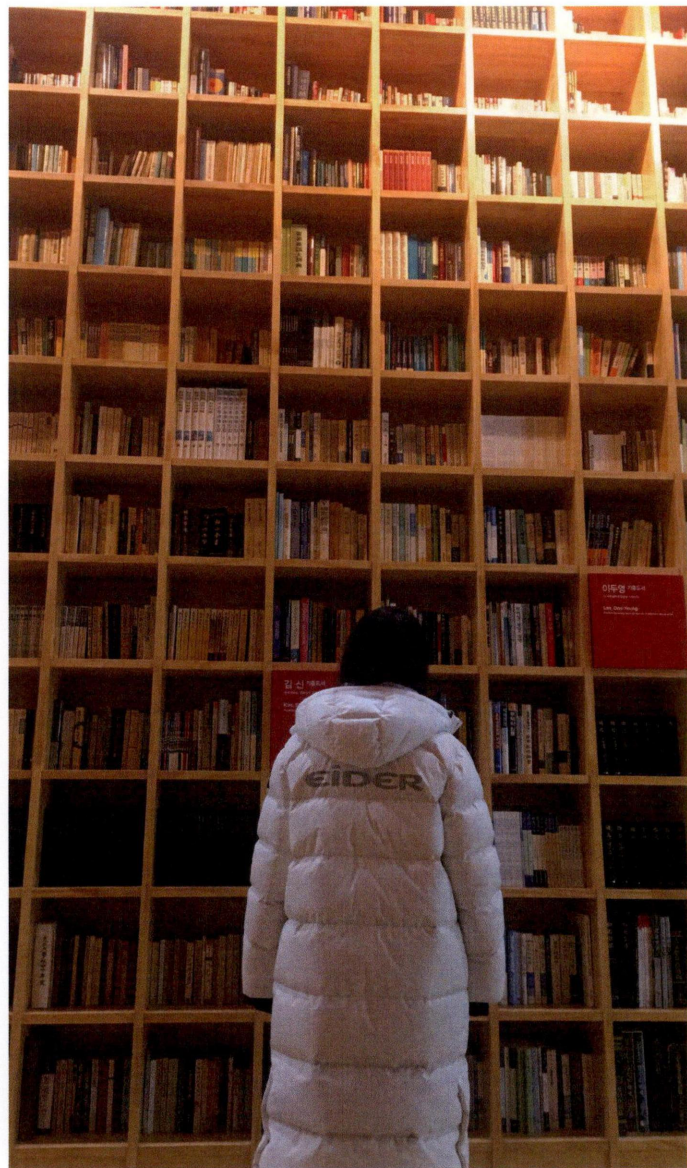
시간	소요 시간	내용	비고
10:30~12:30	120	동네한바퀴 in 파주 ▶ 파주출판단지 현장 사례 탐방	
12:30~13:30	60	▶ 점심식사	
13:30~14:30	60	▶ 파주출판단지 현장 사례 개별 탐구시간	

본 행사에 앞서 우리에게서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근처에 있는 파주출판단지를 들렀다. 파주출판단지에서 현장 사례를 개별적으로 탐구하기 위한 시간이었다. 때문에 우리는 각자 움직이기로 했고, 점심을 먹기 위해 만났을 때 각자에게 그리고 문화청년U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지혜의 숲 도서관에서 득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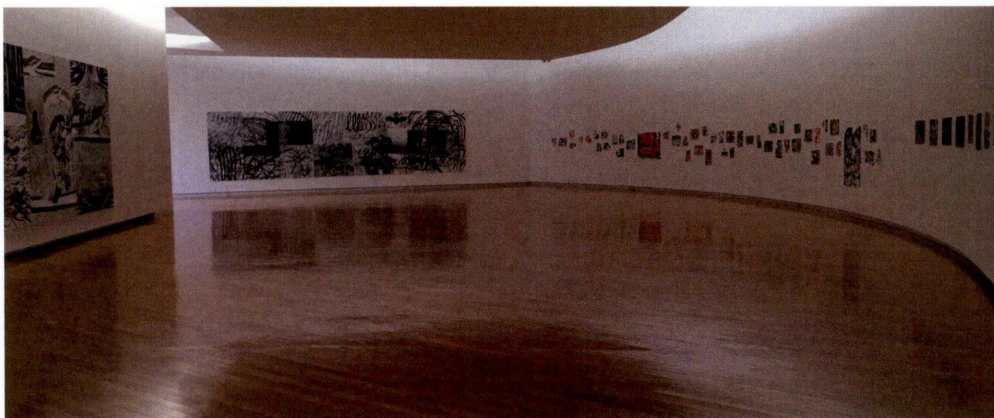
나는 지혜의 숲 도서관을 둘러보았다. 엄청난 규모의 공간에 감탄했다. 곳곳에는 예술작품들이 설치되어 있었다. 책방과 북 카페, 갤러리를 겸하고 있어 가족, 연인, 친구들끼리 놀러오기에도 참 좋은 구성이라고 생각했다. 책들은 정치, 문화, 인문, 과학 등 다양한 분야가 있었고 학자, 지식인, 연구소에서 기증한 도서들이 꽤나 있었다. 기증자가 평생 동안 읽었던 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공유서재로써의 의미가 있는 동시에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의 기증자의 평생 동안의 삶과 연구를 엿볼 수 있어 좋다고 생각했다. 이곳은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1층에 위치하며 가치 있는 책을 한데 모아 보존하고 관리하며 함께 보는 공동의 서재로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을 받아 복합문화공간으로써 활용하고 있으며 단체예약을 하면 가이드 해설과 함께 다양한 체험을 할 수도

있다고 했다. 건물에는 책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연수시설과 숙박시설, 문화공간을 갖추고 있는 대형 이벤트홀에서 대형 전시, 공연이 열리는 장소가 되기도 하는데 2014년 내부 벽면을 서가로 조성하여 책을 한데 모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만든 열린 독서 문화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한다. 평소 나는 생각과 생각이 만났을 때 새로움이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혜의숲과 같은 커뮤니티 공간이 인상 깊었다. 조형예술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지금의 감탄을 통해 예술가들이 지역 혹은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자는 구상으로 옮겨갔다. 아싸!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에서 득템

우리 중 일부는 네트워크 행사장으로 이동하기 직전 신희영 멘토의 추천으로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도 둘러보게 되었다. 말씀해주시지 않았다면 정말 아쉬웠을 뻔 했던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에서는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시선을 사로잡는 커다란 조형물들이 많이 있었는데, 주변 경관에서 여유로움이 느껴졌고 행사기간동안 바쁘게 달려왔던 우리는 뮤지엄에서 잠시나마 전시를 둘러보는 여유를 가졌다.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 아티스트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는데, 예술가의 사회적 역할을 고민하며 도발적인 작업 세계를 구축해 나가는 아티스트를 선정하여 소개하는 프로젝트라고 한다. 우리가 관람했던 전시기간에는 실재하지 않는 판타지를 통해 현실 세계를 말하는 세 명의 젊은 작가(이지영, 우정수, 박기일)의 전시를 관람했는데, 어둡고 부조리한 사회의 이슈들을 아름답게 혹은 가볍게 풀어낸다. 생각보다 큰 전시공간이라 오래 머물며 관람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지만, 그냥 지나쳤다면 후회했을 것 같다. 신희영 멘토님의 추천으로 전시를 관람하고! 커피도 득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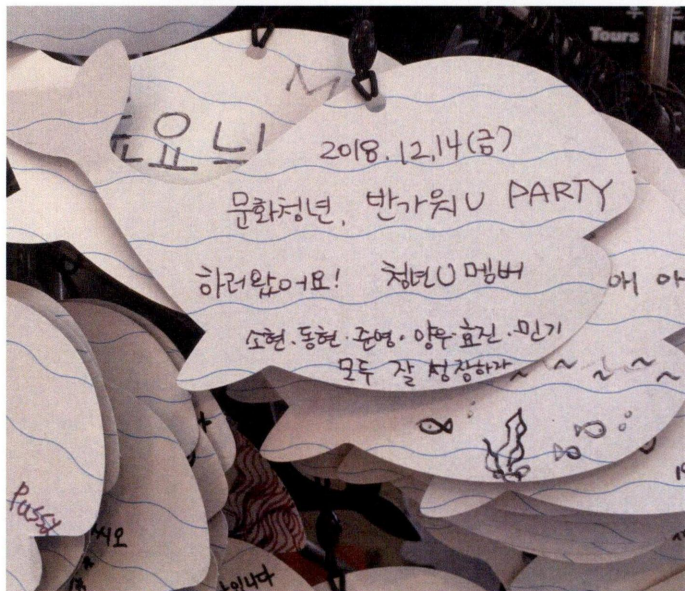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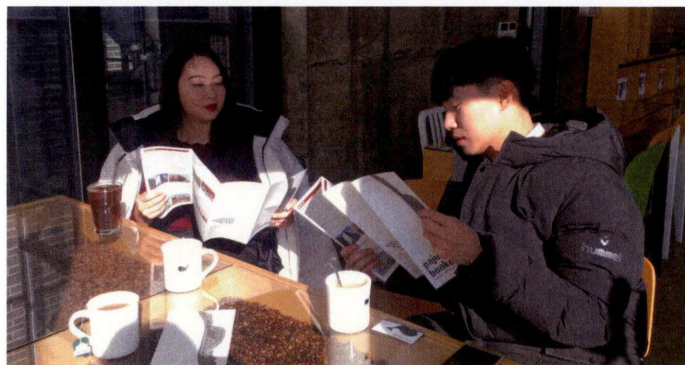


우연히 들린 카페에서 득템

소현, 동현, 효진, 준영은 도서관을 둘러본 뒤 근처 카페를 들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따뜻한 음료와 함께 그들의 토론은 시작이 되었는데, '파주 헤이리 마을이 예술가의 마을인 것처럼, 혹시 문화기획자의 마을은 없을까?'라는 소현의 질문으로부터 열띤 토론이 시작되었다고 했다. 과연 그런 곳이 있다면 어떤 곳일까? 기획자들이 모여 사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까? 등의 생각들을 주고받았다. 좋을 것 같다와, 아닐 것 같다는 두 가지 의견으로 갈렸는데, 첫 번째는 지역특성화프로젝트<동네한바퀴>사업을 하고 있는 문화청년U의 입장에서 봤을 때 좋지 않다는 입장이 있었다. 그 이유는 기획자들이 한 공간 혹은 지역에 모여 있게 된다면 시야가 좁아지게 될 것 같다는 이유에서다. 차라리 각각의 지역으로 흩어져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황을 파악하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그것을 실행으로 옮기는 편이 더 낫지는 않을까? 와 같은 이야기가 오고 갔다. 누군가는 조금 더 초점을 좁혀 청년과 지역의 관계는 어떻게 생각해볼 수 있으며, 청년들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그렇다면 우리의 다음 기획은 이 부분에 대해 고민해보고 발전시켜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로 마무리를 지었다.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문화청년U의 앞으로의 걸음에 대한 좋은 토론시간을 가졌다는 것은 뜻하지 않은 득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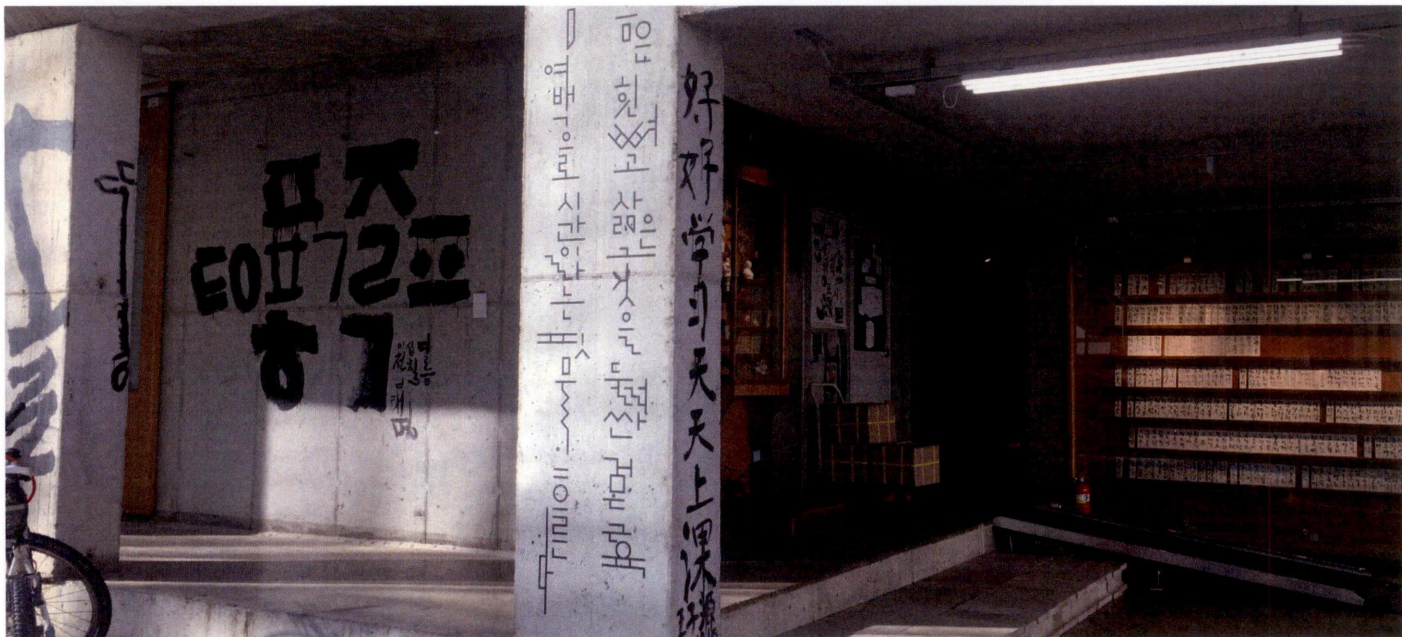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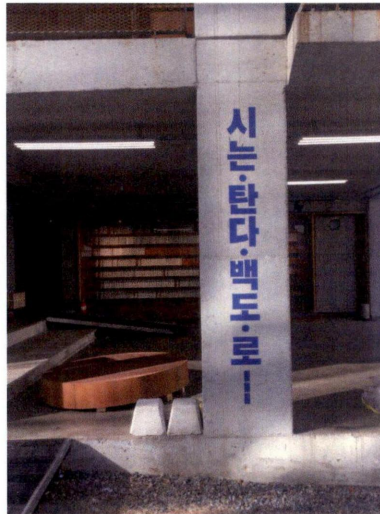
박효진

출판단지는 출판사와 인쇄소 등 마치 미국의 실리콘밸리나 판교 테크노밸리처럼 관련 산업군의 기업들이 있는데 문화단지가 있다면 어떨까? 라는 주제로 대화를 나눴어. '기획자와 기획사가 함께하는 단지가 있다면 협업이 쉽게 될 것이고 보다 활기찬 아이디어 공유의 장이 될 텐데'라는 상상을 해보기도 했지.



오픈된 매장 찾기 투어에서 득템

양우는 실내가 아닌 실외를 선택했다. 파주출판단지 주변 건물들을 돌아보며, 어떤 공간이 있을지 궁금해하며 주변을 거닐었다. 금요일 낮 시간이라 오픈한 매장이 별로 없어서 조금 아쉬웠지만, 여러 가지를 구경했다. 특히 건물, 책, 사람들을 중심으로 둘러보았는데 그 중에는 김소월 시의 '다리'가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막상 가봤더니, 고작 시 한편 적혀있어서 감동이 덜했다고 한다. 양우에게는 근처 서점만이 유일하게 오픈된 볼거리였다. 파주 출판단지 주변 가게를 들여다보고 싶다면 오전보다는 오후에 찾는 것이 방법일지도 모르겠다는 꿀팁을 득템!



3. 어떻게 된거에U?

본행사 시간이 임박했을 때까지 초대한 손님들은 오지 않았다. 문화청년U 멤버들과 촬영팀, 기념품 제작에 도움을 준 청년작가 한 명만이 이 아늑한 공간을 메운 전부였다. 어떻게 된 것일까? 설레임을 가득 품고 있었던 문화청년U의 멤버들에게 찬물을 끼얹은 이 분위기. 이쯤에서 멤버 각자의 의견을 들어보자.

김민기 ¶

너무 당황스러웠어. ‘우리가 잘못된 점이 있나?’라는 생각을 했어. 우리는 각자 단체 인터뷰를 진행했고 결과공유 회의를 위해 모였을 때 나름대로 각 단체들이 원하는 공통점을 찾아 행사를 기획했잖아. 그리고 가장 많은 팀이 참가할 수 있는 날짜를 정했기 때문에 가능한 많은 팀이 올 것이라는 단순한 생각을 했어. 돌이켜보면 연말에 바쁜 시기라는 점을 감안했어야 하고, 홍보팀을 담당했던 나로서는 홍보 방법에 대해 반성을 많이 했어. 설문지를 만들어 배포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가졌어야 했던 것 같아. 사실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진행되는 설문지도 높은 회수율을 기록하기 쉽지 않다던데, 신생 단체에서 행사 초대를 위해 설문지라는 방법을 사용한 것에 대해 선부른 판단이 아니었나 생각해. 문화청년U 만의 SNS 계정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는 방법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고, 나아가 문화청년U가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함으로써 네트워크를 구축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

기획을 하고 행사운영을 하는 것이 처음인 입장에서 몸으로 체득한 좋은 수업이었다고 생각해.

이양우 ¶

오래 준비한 만큼 많이 아쉽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겹쳐서 이렇게 된 것 같아 안타까워. 네트워크에 기대가 많았었거든.

박소현 ¶

하...¹⁾시망.....

첫 번째 로는 많이 속상했어. 행사일이 다가올수록 불길한 예상은 되었는데, 막상 닥치니 얼마나 속상했는지 우리 모두 조금 굳어있던 것 같아.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원인과 지금과 다른 선택지들이 떠올랐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신나게 놀자’와 내가 정말 신경 써야 할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더라. 문화청년U 멤버들이랑 손님으로 오신 몇 분, 그리고 선배 멘토들이었어. 우리는 행사 인원수에서는 완벽하게 실패를 경험했지. 그러나 아직 행사는 끝나지 않았기에 남은 시간 신나게 놀고 신나게 질문하고, 소수의 인원이지만 깊은 인연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리고 서로의 인생과 경험을 나눴다고 생각해. 얇고 넓은 관계보다 좁고 깊은 관계가 더 유의미한 것처럼 우리는 충분히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눴고, 실패의

1) ‘지원하게 망했다’ 또는 ‘시X 망했다’의 준말

원인에 대해 냉철하게 평가하게 된 것 같아. 많이 넘어져본 놈이 금방 일어날 수 있다고... 우리는 일어날 힘이 많잖아. 엎어져도 좋으니 기죽지 말고 우리의 의미 있는 도전들이 계속되기를 바란다!

윤동현 ¶

회의에서 우리는 참가 인원에 대해서 목표치를 잡았었지. 40~50명. 나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 속으로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품었거든. 우리가 직접 얼굴을 맞대고 인터뷰한 단체는 6개 밖에 안됐는데, 심지어 내가 인터뷰한 단체는 행사를 하기로 한 날짜엔 불가능할 확률이 높다고 응한 상태였어. 그럼 내가 인터뷰한 단체를 제외한 5개의 단체에서 많이 와서 5명씩만 온다고 해도 25명이잖아. 내 기준으로는 25명도 많다고 생각했으나, 목표 수치인 40~50명에는 부족한 숫자였어. '크고 복잡복잡한 행사를 원하시는구나', '참가자 모집을 할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진행해야 겠구나', '쉽지 않겠다'와 같은 여러 생각들이 함께 들더라. 결론적으로 참가인원은 사실 없다고 봐도 무방하게 되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문화청년U 우리들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는 점에서는 좋았지. 아니면 행사보다 오히려 훨씬 더 좋았어. 지극히 주관적인 느낌이지만.... '애초에 안 올 줄 알았다' 라거나 '그래, 우린 안돼' 라고 부정적인 판단으로 생각을 결론짓고 싶진 않아. 오히려 여기에서 배울 점이 많았다고 생각해. 이런 경험이 있기에 앞으로의 문화청년U 활동은 보다 단단해질 것이라고 믿어.

박효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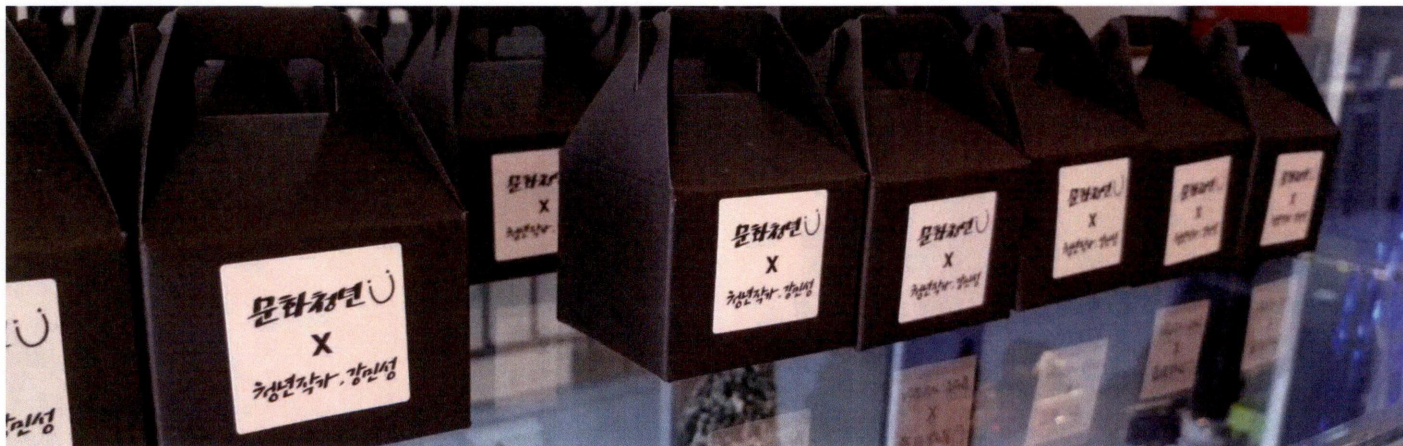
행사 참여여부에 대한 설문지를 만들고 약 일주일 간 응답이 없어서 그 때부터 마음이 조금해지기 시작했어. 인터뷰 다녀온 단체만큼은

참여 가능한 인원을 보내줄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이야. 긴 시간동안 응답이 없었고, 직접 연락해서 참여가능한지 물어보기도 했지. 그러나 이미 예정된 일정이 있는 팀이 많았어. 물론 다른 일정을 미루고 올 정도로 매력적인 행사가 아니라고 느꼈을 수도 있지. 그렇지만 많은 인원이 참여한 행사가 아니라 우리만의 행사라고 해서 실패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 청년인 나에게 유익한 강의들을 들을 수 있었고, 행사를 처음부터 운영해보는 것은 어디서도 할 수 없는 귀한 경험이기 때문이야.

배준영 ¶

대부분 인터뷰한 단체에게 네트워크행사에 대해 긍정적인 대답을 들었잖아. 그래서 인터뷰를 했던 단체들과 관계를 이어나가 앞으로도 함께할 수 있다면 어떨까라는 기대에 너무 부풀었던 걸까..? 홍보에 안일했던 우리는 결국 알음알음으로 섭외한 몇 명 이외에 한 팀도 섭외하지 못한 채 행사를 맞이하게 되었지. 그렇게 행사 전날까지도 꽤나 스트레스를 받았어. 어쩔 수 없이 우리끼리라도 좋으니 알찬 경험을 하자고 생각하고 행사를 시작하고 나니 비로소 느껴지는 것이 있었어. 각자의 위치에서 바빴던 탓에 우리끼리의 소통에 한동안 소홀했다는 사실. 어쩌면 행사를 진행하며 안고 가야 했던 그런 균열들이 모여 이런 결과를 낸 것이 아닐까. 문화청년U가 모여 진행한 이번 행사를 통해 새삼 한 팀으로서의 소통과 단합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어. 겉보기에 인원모집에 완벽히 실패한 행사였지만, 덕분에 지난여름 문청U가 시작할 수 있었던 우리 안의 시너지와 앞으로의 가능성을 보았던 것 같아.

4. 환대합니다.



우리는 손님이 없는 대신 우리가 초대한 선생님들, 그리고 촬영팀을 위해 더욱 신경 써서 환대해드려야겠다고 생각했다. 불편하신 것은 없는지, 또 필요하신 것은 없는지, 강의를 들을 때는 특별히 더 경청하는 자세로 임했다. 표정이나 리액션도 크게! 박수도 크게!

또한 본래 청년들을 위해 제작했던 우리의 환대 선물은 촬영팀, 그리고 강의해주시는 선생님들께만 전해 드릴 수밖에 없었다. 김민기와 청년작가 강민성이 강의해주신 선생님들께 선물을 전달했다. 선물의 의미에 대해 설명해드리며 감사함을 전했는데,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고 고마움을 표현해 주셔서 무척 다행이었다.

김민기

스스로가 초라함을 느낄 정도로 강연장이 썰렁했기 때문에 더 실속 있고 알차게 진행했어야만 했잖아. 때문에 기획자이자 청강자인 우리가 더욱 집중하고 꼼꼼했어야 했지. 무책임한 소리일지 모르겠지만 그 덕에 되려 우리는 더 배웠는지도 몰라. 기획준비에 대한 충분한 오답노트가 물론 필요하겠지만! 더불어서 청년U 각자가 가슴에 남긴 강연의 내용을 자신의 색에 맞게 잘 소화시킬 의무도 있을 것 같아.

박소현

사실 '환대'라는 표현이 뭔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던 것 같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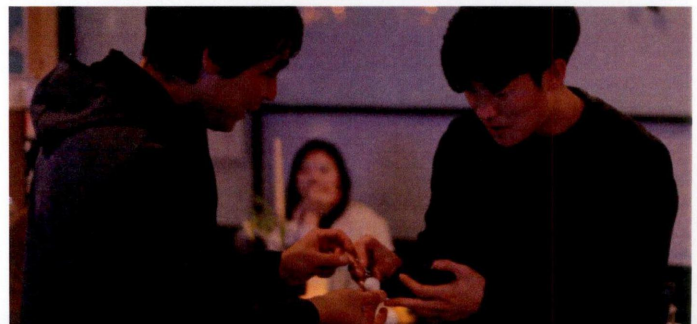
항상 공연장, 행사장의 많은 사람들을 대해왔고 큰 동선을 보며 실수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던 현장만 경험해봤거든. 사람이 없다보니 한 분 한 분 신경 써서 환대해야 했는데, 생각해보니 환대는 어떻게 하는 거지?(갑자기 멘붕) 눈에서 레이저 나오는 것처럼 선생님들을 예의주시했고 강의는 더 귀담아 듣기 위해 노력하긴 했는데,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챙길 때보다 더 어려웠던 경험이었어.

윤동현

섭외 팀으로서 '환대'를 잘 해야 했는데, 잘 했나 모르겠어. 문자나 연락은 잘 드린 것 같은데, 막상 오셨을 때는 잘 못 해드린 것 같아. 그 분들하고만 붙어있을 수 없었거든. 뭔가 다른 할 일들이 계속 있었어. 하지만 다른 멤버들이 쌤들과 계속 붙어있으면서 쌤들을 심심하지 않게(?) 잘 해주는 게 멀리서도 느껴졌기 때문에 '다행이다' 싶었고, 고마웠었음. 뭐랄까... 나는 '온라인 환대'는 잘 할 수 있지만, '오프라인 환대'는 잘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웃음)

배준영

환대하기로 했는데, 사실 나는 별로 신경 안썼던 것 같아... 반성할게...ㅋㅋ;;



5. 알짜배기 네트워크 시간

구분	시간	소요 시간	내용	진행자		준비사항
	18:30~19:30	60	▸ 석식			바비큐 파티
			▸ 네트워크 파티 준비			담당 : 최영주
우리 안의 U	19:30~21:00	-	▸ 네트워크 파티	Fix U	▸ 힐링상담소(부스) 컨설턴트, 상담부스	힐링상담소 준비(윤)
			사망토론			주변정리(다같이)

강연이 끝나고 저녁식사와 함께 자연스러운 네트워크 시간이 이어졌다. 사람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보다 심도 있는 소통의 기회가 생겼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었다. 문화에 관해, 기획에 관해 혹은 인생에 관해 뜨겁고 치열한 이야기가 오갔던 그 날 밤. 문화청년U 멤버들은 그 날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김민기

예술가로, 또 기획자로서도 활동하는 양철모 선생님에게 관심이 갔었어. 개인적으로 작업을 하면서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 많이 얘기했고 선생님의 의견이 궁금했어. 나는 작업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는 부분과 내가 가지고 가는 개념을 시각화(visualize)하는 과정에서 주관적 경험에 의한 느낌을 담은 오브제를 선택할 것인지와 대중적이고 보편적인 이미지를 선택할 지에 대한 고민이었는데, 이를 들은 선생님은 ‘나’족, ‘작가’의 입장을 강조하신 듯해. “작업에서 어떤 가치에 중점을 둘 것인가에 따라 그 작업은 때로는 보편적인 이미지를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며, 반대로 개인적으로 의미를 갖는 이미지를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이 말씀을 다른 말로 해석하면 그렇기 때문에 ‘다작(多作)’을 해봐야 할 것이고, 스스로 조절 하는

법을 터득할 것이라는 이야기 같아. 예술적 사고를 하고 작품이라는 아웃풋(output)을 만들어 내는 것이 한 명의 기획자로서 내가 가진 장점이라고 생각해. 물론 선생님의 피드백이 그냥 듣기에는 애매한 듯 모호했지만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곱씹을 여지가 남는지도 몰라.

박효진

강의를 듣는 동안 하지 못했던 개인적인 이야기들까지 들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어. 성공 사례들의 뒷이야기들과 강의 때 듣지 못했던 힘든 점, 어려웠던 점들을 들으면서 개인적인 고충들도 알 수 있었지. 1시간 남짓의 강연시간 이후에 네트워크 시간을 가짐으로써 기획자들을 좀 더 인간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어.

박소현 ¶

멘토들의 강의도 인상 깊었지만 소그룹 토크가 가장 기억에 남아. 나는 광역단위 기관에서 일하면서 기획자로서 지역의 현장과 실질적으로 마주할 일이 적었어. 이점에서 지역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선배 멘토들의 이야기에서 질문할 것들이 봇물 터지듯 많이 나왔지. 그동안 궁금한 것들이 너무 많았고, 선배 멘토들의 모든 경험들을 간접적으로 느끼며, 지역의 현장에서 일해보고 싶다는 나의 욕구와 호기심이 깊어짐과 동시에 '문화기획자라는 꿈을 계속 가지고 살아가도 괜찮을까?'라는 현실적 고민 역시 깊어졌어. 이런 지점에서 박도빈 선생님이 선배 멘토로서의 역할을 나에게 톡톡히 해주셨다고 생각해. 나의 호기심과 답답함이 많은 질문으로 이어졌는데, 영하의 추위 속 베란다에서 오들오들 떨면서 대화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아. 몸은 추워서 떨리는데 심장은 뜨거워서 탈것 같더라. 도빈쌤 감기는 안 걸리셨을지...ㅠ 감사함을 전하고 싶어.

윤동현 ¶

이 시간 동안 강의에서 미처 다 듣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더욱 많고 깊게 들을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 감명 받고 감사함이 큰 것은 사실이야. 모든 문화청년U 멤버들도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하지만 난 이 시간에 선생님들에게만 감명 받은 게 아니었어. 끊임없이 질문하고 선생님들과 소통하려는 우리 멤버들에게도 깊은 감명을 받았어. 같은 문화청년U 이지만 나보다 훨씬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확실했고, 그러한 모습은 나로 하여금 많은 생각들을 하게 했었기 때문에. 아직 눈망울이 탁해지지 않은 청년들을 알게 되어 기뻐.

배준영 ¶

기획할 때부터 과연 많은 호응을 얻을 것인가 의구심이 들었지만..ㅋㅋ정말 타로마스터를 모셔올 줄이야. 정말..하고 싶었지만 타로상담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양보했어..ㅠ 다들 굉장히 만족한 것 같아 보여. 다음에도 김수미 선생님을 모실 기회를 마련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우리 각자의 상황과 고민, 그리고 문화청년U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허심탄회하게 나눌 수 있었던 대화들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

이양우 ¶

공식적인 자리에서 하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던 게 큰 장점이지. 아무래도 강연자의 위치에서 할 수 없는 얘기들이 있잖아? 네트워크 시간에는 공식적인 이야기를 제외하고 개인적으로 바라보는 문화 기획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는 점이 굉장히 인상적인 경험이었어. 이 시간만큼은 선생님들이 일 같이하는 형 같은 모습으로 다가와 줬거든.

또한 네트워크 시간에는 힐링상담소도 함께 운영되었는데, 김수미 선생님과 함께하는 1:1 고민 상담과 스스로를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아쉽지만 시간적 한계로 모두가 힐링상담소를 경험해 볼 수는 없었다. 누구도 포기하고 싶지 않았기에 가위 바위 보로 정하였으나, 배준영은 양보를 하는 훈훈함도 있었고 김수미 선생님은 늦은 시간이지만 1명 더 상담을 진행해 주셨다. 은밀하고 신비로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상담부스는 성공적이었으며, 참여자 3인은 모두 감동을 진심으로 전했다.



박소현 ¶

김수미 선생님이 등장하시자마자 눈빛에 사로잡혔어. 가위바위보 할 때 난 꼭 이기고 싶었어... 다음 기회가 또 있겠지? 본사람들 너무 부럽다... 낯이 나가있던데~ 나는 은밀하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먼 발치 서서 지켜봤어.. 너네 울겠더라~ 다들 개인적인 일이라고 말을 해주지는 않는데, 아 정말 엄청 궁금하더라..

배준영 ¶

기획할 때부터 과연 많은 호응을 얻을 것인가 의구심이 들었지만..ㅋㅋ정말 타로마스터를 데려올줄이야 정말..하고 싶었지만 진심으로 상담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양보했어. 다들 굉장히 만족한 것 같아 보이더라. 다음에도 김수미 선생님을 모실 기회를 마련했으면 좋겠어!

박효진 ¶

전해 듣기로 마음을 읽으신다고 하셔서 오셨을 때 왠지 눈을 마주치면 생각을 읽힐까봐 무서웠어. 원래는 하루에 두 명 이상

하는 것이 힘들다고 하셨는데, 너무너무 하고 싶은 나머지 무리해서 부탁드렸는데도 흔쾌히 해주셨어. 개인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서 자세하게 쓸 수는 없지만 타로는 수단일 뿐 심리 상담을 깊게 해주셨어. 개인적으로 올 한 해 마음속에 쌓인 일이 있었는데, 낯선 선생님께 다 털어 놓을 수 있을 정도로 편하게 대해 주셨고 정말 깊은 위로를 받았어.(나도 몰랐던 내 마음을 너무 잘 알아 주셨고 나의 강점을 말로 설명해주셔서 감동받아서 눈물까지 흘렸어. 부끄럽다..ㅋㅋ) 잊지말자.. 김수미 선생님은 기획자다..! 하지만 내 인생에서 큰 기억을 차지할 한 시간을 만들어주신 멘토가 되셨어. 김수미 선생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씩씩하게 살겠습니다~!!

김민기 ¶

남들은 잘 모르는 나의 모습이 있잖아. 되게 특이한 점인데, 나를 보시자마자 꺼낸 카드에서 그 모습이 나왔었어. 온 몸에 소름이....

윤동현 ¶

힐링부스에서 진행된 타로점 프로그램은 관심이 생겼는데, 그 이유는 참여했던 분들의 표정과 눈빛이 너무 만족해 보였기 때문이야. 마음에서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만족감이 없다면 생길 수 없는 눈빛들이었어. 원래 타로점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나중에 개인적으로 김수미 선생님께 찾아가고 싶을 정도였어.

6. 동네한바퀴 in 헤이리

12월 15일(토)					
구분	시간	소요 시간	내용	진행자	준비사항
준비	8:00~9:00	60	▶ 조식		식사장소 안내(효)
	9:00~10:00	60	▶ 짐정리 & 체크아웃		최종확인(소)
또만나 U	10:00~10:30	30	▶ 해장 토크 마지막 속 풀이토크 (네트워크를 통한 향후 계획 및 짧은 소감 발표)		
동네 한바퀴	10:30~12:00	60	▶ 동네한바퀴 in 헤이리 파주 헤이리 예술마을 기획 사례 탐방		마을투어(효)
			▶ 폐회 및 정리		

전 날 사망토론과 힐링부스 운영으로 양철모, 박도빈, 김수미 선생님과 대화는 밤늦도록 이어졌으며, 매우 성공적이었다. 선생님들이 돌아가신 시간도 충분히 늦은 시간이었으나 청년U의 대화는 끊이지 않았고 밤늦도록 그동안의 회포를 풀며 술을 많이 마신 것이 아닌데도 흠뻑 취한 것 같은 즐거운 밤을 보냈다. 이들의 사망토론은 새벽 4시 반이 넘어서야 끝이 났다.

결국 다음날 아침 조식은 합의하에 포기, 해장토크도 다음 회의로 미룬 후 조식장소를 아점으로 변경하였으며, 2박 3일간 사용했던 장소를 모두 깨끗하게 정리하고 나왔다.

행사의 마지막 일정으로 박효진이 열심히 준비했던 파주 헤이리 예술마을 기획사례 탐방을 위해 장소를 이동했다. 사전에

가이드투어를 신청했기 때문에 보다 전문적이고 깊은 헤이리마을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다. 헤이리가 처음이 아닌 분들에게도 새로운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가이드님의 말씀과 이 시간을 통해 문화청년U의 멤버들은 어떤 점을 느꼈을지 알아보자.

가이드와 함께하는 동네한바퀴 in 헤이리

- 가이드: 이곳은 약 15만평이고 도넛 모양의 갈대광장, 사무국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모두 사유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헤이리 예술인 마을은 개인의 투자로 이루어진 곳이에요. 지금 이곳은 예술인들이 살 수 있게끔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곳의 길은 반듯반듯한 도시의 길과는 다르게 구불구불한 모양입니다. 이는 생태환경을 고려해 설계했기 때문에 길이 굉장히 복잡하죠. 가이드 선생님은 보통 세 가지의 길로 안내를 해주신다고 한다.

1. 보도 블록 형태로 이루어진 사람과 차가 더불어서 다니는 길
2. 원형 구조에서 지름길로 이루어진 산책로. 이 곳에는 차는 다닐 수가 없다. 이 산책로 안에는 작품들이 놓여있기 때문에 작품을 자유롭게 곁핍으며 산책을 할 수 있다.
3. 물이 흘러가는 길. 이름은 아직까지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무명천이라고 한다. 가이드님의 생각에는 영원히 이름이 지어질 것 같지 않다고 하셨다. 왜냐하면 예술이라는 것은 자신 마음대로 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혹여나 누군가 이름을 짓게 되면 그 생각 안에 갇혀버릴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무명천 위로는 5개의 다리가 있다.

- 가이드 : '헤이리'라는 이름의 유래를 알고 계신가요?

이 지역에서 전해 내려오는 농요의 후렴구(헤이~)를 따서 지었다고 합니다.

- 가이드 : 보통 그냥 둘러보고 가시면 지나쳐 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선생님께서서는 헤이리에서 가이드를 5년 넘게 해오셨다고 하신다. 헤이리 동네한바퀴를 돌아보면서 가이드선생님의 헤이리 마을에 대한 애정을 느낄 수 있었다. 헤이리 마을은 1998년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15만평에 미술인, 음악가, 작가, 건축가 등 380여명의 예술인들이 회원으로 참여해 집과 작업실, 미술관, 박물관, 갤러리, 공연장 등 문화예술공간을 짓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길을 따라 걸으며 가이드 선생님이 소개해주시는 몇 점의 작품설명을 들으며 작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도 가졌다.

또한 헤이리 마을을 돌아보는 동안 전시장도 들어가보고 다양한 건물들에 대한 설명도 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투어 중에는 다양한 휴식공간도 둘러볼 수 있었다.

- 가이드: 이 건물에는 중국 동양의 차를 만들던 카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른 곳이 입점 준비 중이네요. 헤이리 마을에 다양한 종류의 찻집이나 커피집이 원래는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부분이 커피집이기도 하고, 많은 곳들이 유명 브랜드들로 채워지고 있어요. 이런 점이 조금 아쉽네요.

헤이리를 돌아 본 후에..

- 가이드: 제가 몸을 써서 돌아다녀야 헤이리 마을의 진가를 제대로 즐길 수 있다고 했지요? 이 곳 파주 헤이리마을이 생긴지 20년이 채 안되었어요. 마을이 정체성을 갖기 위해선 100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지금은 예술가마을이지만 그 이후가 어떻게 될지 몇 년 후엔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얘기해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문화기획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시니 한 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박소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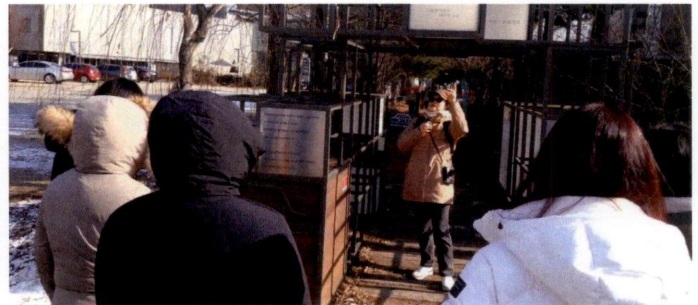
나는 몇 년 전 여름 헤이리에 왔던 적이 있어. 그런데 지금 겨울이기 때문일까? 내가 경험했던 헤이리보다 많이 삭막해진 느낌을 받았어. 예술 마을에 VR 게임장들과 프렌차이즈 커피전문점, 그리고 유명 브랜드 의류까지.. 여기가 예술마을인지 카페거리인건지? 이젠 개성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 예술인 마을에서 예술인들이 내몰린 건 아닐까? 예술인들을 실제로 만나볼 수 없던 점도 아쉬웠어. 예술인들이 모여 사는 이 마을은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예술인들의 입장에서 이 곳에 사는 것이 어떤 장, 단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했거든. 겉으로 봤던 건축물과 주변 환경들은 관리가 소홀하다는 느낌도 받기도 했어.(예를 들면 예술가의 작품 옆에 커다란 쓰레기통이 있었는데, 작품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관리가 안 된 것 처럼 보였어.) 안타까움이 가이드 선생님의 설명에서도 느껴져서 나도 함께 마음이 아팠어. 파주에 있는 청년들이 네트워크 파티에 왔더라면 이런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눠 봐도 좋았을 것 같아.

박효진

나는 헤이리 방문이 처음이었는데, 선생님이 열심히 설명해주신 덕에 그냥 지나칠 수도 있던 공간들을 새롭게 볼 수 있던 점이 좋았어. 평소에도 내가 그냥 지나쳤던 길들에도 '어쩌면 누군가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사전에 준비하면서 가이드선생님과 소통을 했었는데, 정말 잘 선택했다는 생각이 들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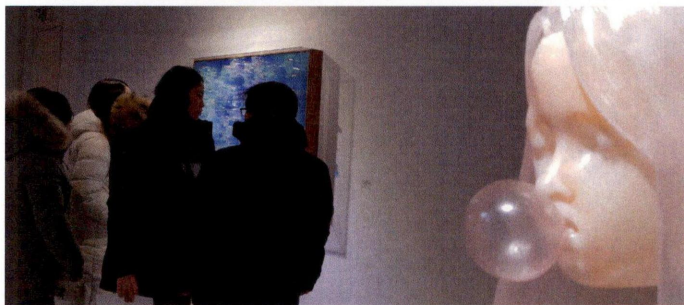
윤동현

섭외팀이 헤이리 마을 투어 계획도 짰었는데, 특히 효진쌤이 힘을 써주셨지. 여러 코스도 알아봐주시고, 버스투어가 좋을지, 걸으면서 하는 투어가 좋을지에 대해서도 알아봐주셔서 결국 따뜻한 날씨는 아니었지만, 두 발로 걸으면서 헤이리 마을을 둘러보았는데,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 손은 시려왔지만, 역시 '마을'은 구석구석 직접 돌아보면서 느껴야 하는 듯. 모두 동감할 거라 생각해, 그렇지?? 가이드 분의 말씀을 녹음하기 위해서 최대한 가이드 분 근처에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설명을 집중해서 듣게 되었는데, 멘트 하나 하나에 헤이리 마을에 대한 애정을 느낄 수 있었어.

특히, 차(茶)를 판매하는 곳이 좋고, 점점 커피를 판매하는 곳만 늘어난다고 아쉬워 하며 말씀하신 것도 기억에 남네. 가이드 없이 둘러보았다면 몰랐을 건축물의 용도와 의미 등도 알 수 있었고, 심지어 들어가 볼 생각도 못 해보았을 공간들도 들어가서 구경도 하고... 좋은 경험이었어.

배준영

예술마을답게 건물이 인상적이더라. 그리고 가이드분이 정말 열심히 설명해주셔서 딴 짓도 할 수 없었어ㅋㅋ 헤이리 동네한바퀴 정말 열심히 돌아봤던 기억이있네. 가이드님이 말씀하시길 끝나면 보약한첩 먹은 느낌일거라고 하셨는데, 정말 영양가 있는 설명들로 제대로 약 한사발 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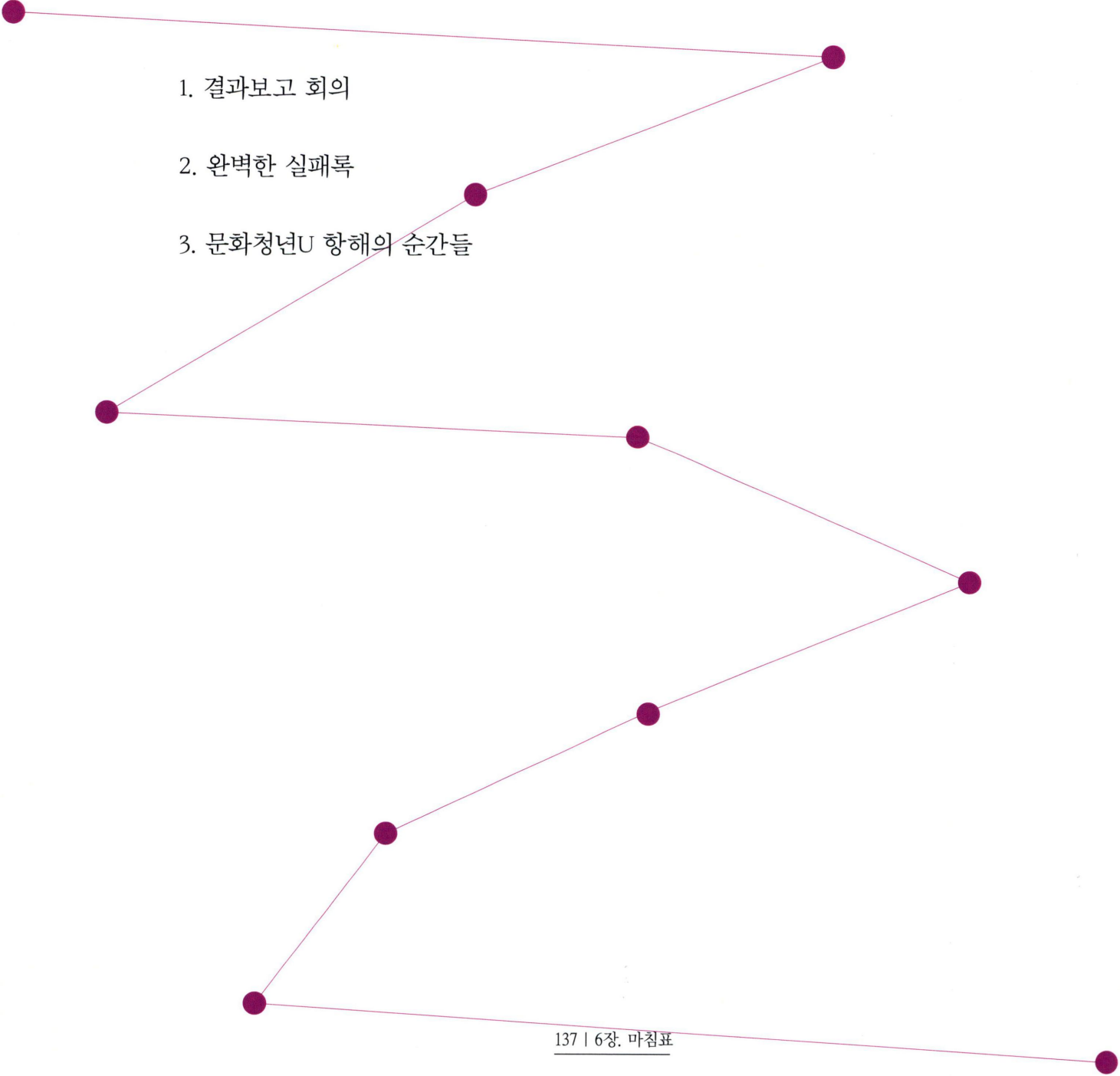
6장. 마침표

결과보고

미래를 위한 불시착

문화청년U 박소현의 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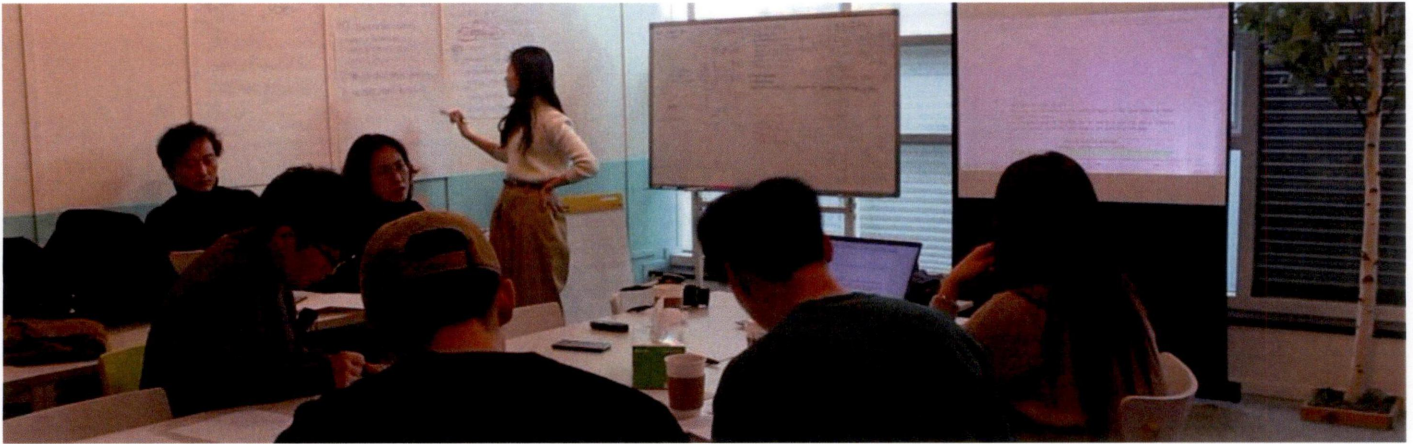


1. 결과보고 회의

2. 완벽한 실패록

3. 문화청년U 향해의 순간들

1. 결과보고 회의



1차 피드백 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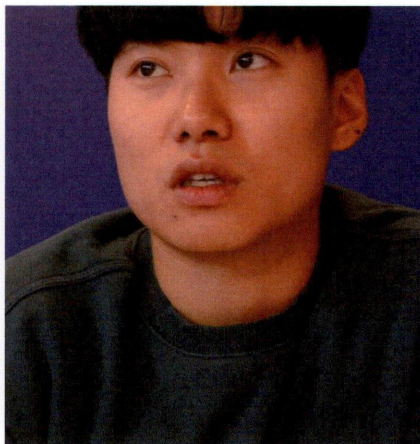
일시 : 2018년 12월 22일 14:00 ~ 18:00

장소 : 수원 스페이스오라차

참석자 :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사무처장, 멘토 신희영, 문화청년U 5명
(박효진, 윤동현, 배준영, 박소현, 김민기)

올해의 최종 성과였던 네트워크 행사를 마친 후, 결과보고서 1차 피드백 회의를 위해 다시 모였다. 앞서 정했던 자신의 주제에 대해서 작성한 원고가 방향이 맞는지 등 내용을 공유하고 피드백을 받았다. 더불어 미처 다 하지 못했던 말, 행사 후기,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 등을 이야기하는 '해장토크'시간을 가졌다.

'준비'파트(박효진)에 대해서는 그 안에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들이 들어가는 지 확인해보고 싶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따라 '행사 준비'파트로 그 의미를 다시 구체화했다. 그리고 홍보에 대한 사항도 준비 파트에서 다루기로 합의했다. 또한 '과정'파트(윤동현)에 대해서 객관적 정리 이후에 코멘트를 모아 적는 방법도 좋지만, 회의마다 코멘트를 모아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저마다 기억에 남는 회의가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강의'파트(이양우)에



대해서 강사가 한 강의 내용은 객관적으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피드백이 나왔다. 객관적인 정리를 하지 않으면, 자칫 강의자의 의도를 왜곡시킬 수 있고 강의자에 대한 예의를 지키지 못하는 게 될 수도 있다는 위험 요소가 재확인 되었다. '운영'파트(김민기)에 대해서는 제목을 조금 더 발칙하고 재미있게, 말랑말랑하게 잡아보는 방법이 추천되었다. 특히 '운영'파트의 경우, '모두 전달한다.'는 느낌보다는 '골라서 세부적으로 써본'느낌으로 진행해도 괜찮다는 의견에 모두가 동의했다. '인터뷰·설문'파트(배준영)에 대해서는 구성원들 각자에게 인터뷰를 정리한 파일을 취합할 예정임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각자 정리할 방식의 차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양식을 만들어 내부적으로 공유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인터뷰 결과를 단순히 취합·정리하는 것을 넘어서, 인터뷰 과정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이나, 정리한 결과를 새롭고 재밌게

재가공하는 것에 대한 의견도 등장했다.

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적용되는 사항으로, 결과보고서 디자인에 대한 사항이 이야기 되었다. 멘토는 보고서 작성에 관한 팁을 알려주면서 궁금한 사항은 구성원들에게 적극적으로 물어보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환기시켰다.

다음은 해장토크로 넘어가 문화청년U 멤버들이 하고 싶었던 말을 하는 시간을 가졌고, 이어 신희영 멘토는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고쳐야 할 점, 앞으로 문화청년U가 나아갔으면 하는 방향 등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박효진 : 타임테이블을 정확히 지키기 못한 아쉬움이 있었어요. 다른 단체들을 네트워크 시키는 게 아니라, 우선 우리를 위해서 네트워크를 더 쌓았어야 했던 것 같아요.

김민기 : 9~10월이 증발해버린 것 같아요. 정해진 것이 있었다면 시간을 더 아낄 수 있었을 것 같아 아쉬움이 남습니다. 또한 서로 자주 만날 수 없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한 번 만났을 때 좋은 결과들이 나왔었다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행사 홍보를 더욱 적극적으로 했어야 했다고 반성했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실행하다보면, 우리를 잘 알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배준영 : 우리는 왜 늦어졌을까요? 늦어졌기 때문에 안전한 계획을 해야 했고, 새로운 기획이 나올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단지 몇 번의 회의로 행사가 진행된 점이 아쉽습니다. 시간을 투자하면 할수록 좋은 행사가 나올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급하게 진행하다 보니 놓치게 되어버린 부분들에 대해 아쉬움을 느꼈어요. 관계를 먼저 쌓고 행사를 했으면 훨씬 좋았을 것 같아요. 우리의 매력 어필이 부족했죠.

윤동현 : 지역문화전문인력양성과정을 통해 만난 문화리더 2기들이 거의 그대로 문화청년U가 되었잖아요. 문화리더는 상대적으로 수동적이었다면, 문화청년U는 보다 능동적으로 참여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런 노력들이 모두가 부족하진 않았나 싶어요. 담당자이자 문화청년U 멤버인 박소현 선생님의 부담이 컸을 거예요. 그리고 초반 고민의 기간은 길었지만, 올해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처음이었기 때문에 고민이 길었다는 게 문제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른 단체들과 관계를 쌓아 이름을 알리는 활동에 더 비중을 두었다면 좋았을 것 같아요. 문화청년U와 어색하다면, 문화청년U를 통해 만나게 될 다른 단체들끼리는 더욱 어색할

거예요. 또한 이번 행사를 통해,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알았고 그 만큼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에 많은 공을 들여야 한다는 것을 배운 것 같습니다.

멘토 : 사실 실패를 해도 괜찮아요. 깨달음이 있다는 전제하에. 그러나 이번 사업 준비 기간과 행사를 통해 문화청년U 멤버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깨닫고 반성했는지가 잘 느껴지지 않아 아쉽기도 해요. 준비 과정에서 전체적인 공유가 미흡했어요. 맥락을 파악하기 어려워 오해의 소지를 갖게 하는, 공개되지 않은 개별 토론은 좋지 않아요. 또한 진행이 원활하게 되기 위하여 담당을 맡아서 일을 진행했었는데, '담당자'의 개념과 역할에 대해 잘 숙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담당'의 의미는 혼자 해결하고 진행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책임감 있게 관련 부분에 대하여 모두의 의견을 구하고 합의를 이끌고 공유하며 결과를 이루어 내는 거예요. 그러나 공유가 미흡했고, 합의가 덜 이루어진 채 혼자 해결한 부분들이 있어서 아쉬웠어요.

우리는 '문화청년U의 미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다.

멘토 : 앞으로 계속 문화청년U 활동을 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논의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2019년에도 그대로 갈 것인지, 확장을 할 것인지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추가적으로 멤버를 선발하게 된다면, 내부적으로 일종의 면접의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더불어 실행해야 할 활동과 내부적으로 해야 할 것들에 대한 약속이 합의되어야 할 것이며, '관계 쌓기'와 관련하여 올해 결과가 나오면, 인터뷰했으나 오지 못한 단체와 멘토 선생님들께 감사 연락과 다음 만남에 대한 교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동현 : 우선 올해의 경험을 통해, 내년에는 내재적으로 네트워크와 교류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습해야 할 것 같아요. 19년 초~중반까지는 조금해 하지 않고, 문화청년U의 내공을 키우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김민기 : 문화판 인력 도우미 콘셉트로 활동해도 좋을 것 같아요. 문화관련 행사가 있는 곳을 다니면서 도와주면, 자연스럽게 우리도 알고 다른 단체와의 관계도 형성할 수 있잖아요. 이를 인터넷으로 연결해서 온라인 네트워크 구축도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배준영 : 문화원연합회의 네트워크를 동시에 활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각지의 청년들과 우리들의 욕망이 담긴 사업을 같이 해보는 건 어떨까요? 내년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멘토 : 우리가 공부가 필요하다면 공부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홍보를 위해서는 직접 찾아가 얼굴을 비추는 게 필요한 일일 거예요. 그러나 '언제부터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와 같이 구체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관련된 규칙도 정하고, 내부적으로 재정비가 우선적으로 필요할 거예요.

서로 맡은 부분에 대한 피드백과 '해장토크'를 마친 우리는 마지막 모임을 잡고 회의를 마쳤다.

김민기 : 올 해 문화청년U는 동현쌤 말처럼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자세로 시작했잖아. 기획이 처음이었고 원지 잘 몰랐어. 그래서 배운다는 마음으로 임했기 때문인 것 같아. 결과적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했으면 보다 책임감 있게 실수를 줄였을 것 같네.



2차 피드백 회의

일시 : 2018년 12월 29일 10:00 ~ 13:00

장소 : 수원 스페이스으라차

참석자 : 멘토 신희영, 문화청년U 5명

(박효진, 윤동현, 배준영, 박소현, 김민기)

결과보고서를 위한 오프라인 최종 회의를 위해 모였다. 진행되어온 과정을 정리함에 있어, 누락된 부분들에 대한 피드백을 받았다. 빠진 내용이나 멤버들의 의견을 정리한 문장에서 본인이 의도한 바와 뉘앙스가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 논의 했다.

윤동현은 결과보고서 앞부분에 쓰일 수 있는, 문화청년U의 개괄적인 흐름을 읽을 수 있기에 적합한 형태로 '회의과정'부분을 작성해왔다. 그는 다른 멤버들에게 인상 깊었던 회의에 대해 물으며 코멘트를 요청했다.

박효진은 '행사준비'의 내용을 작성했다. 본격적인 행사를 위한 기획 회의, 섭외와 대관 문제, 홍보 과정을 중점으로 글을 작성했다. 전체적으로 행사 준비 과정에 대해 잘 정리가 되었으나, 전체를 개괄하여 정리했던 윤동현의 부분과 겹치는 내용들이 있다는 문제가 발견되었다.

이에, 결과를 정리하는 방식보다는 과정을 잘 보여줄 수 있는 방식으로 내용을 보완해보는 것이 좋다는 피드백을 받았다. 그렇게 하면 윤동현이 작성한 부분과의 차별성도 도모할 수 있음과 동시에 글쓴이 자신의 의견도 자연스럽게 녹아낼 수 있었다. 준비 속에

있었던 여러 공방들에 초점을 맞춰보자는 의견이 오갔다. 투어나 식당 등과 같이 주제를 잡기에 좋을 만한 키워드들이 추천되었다. 과정을 쪼개서 제목을 달아보는 방식도 추천되었다. '과정 속에서 우리가 했던 말들, 우리가 느꼈던 것들'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다.

김민기는 '행사운영'부분의 내용을 작성해왔다. 인상 깊었던 사건들을 중심으로 재미있게 제목과 소제목 붙였다. 15일 헤이리 마을 투어를 중심으로 잡고, 이 시간을 각자 어디서 어떻게 어떤 감정을 느끼면서 보냈는지에 대해 정리했다. 또한 행사 전날, 장소를 꾸미는 작업, 행사 인원이 많이 모자랐던 점, 초청 멘토들과의 네트워크 시간을 중심으로 내용 정리와 문화청년U 멤버들의 코멘트를 실어 내용을 구성했다. 김민기는 '청년들의 결과보고서'다운, 기존의 결과보고서와는 다른 그런 레이아웃을 원했고 이를 자신의 '운영'파트에 충실히 반영했다.

장보기, 힐링 상담소 관련 내용을 추가해달라는 피드백을 받았다. 동시에 김민기는 다른 멤버들에게 코멘트와 사진 공유를 부탁했다.

배준영은 '인터뷰·설문'관련하여 목차를 통해 설명을 했다. 우선 앞부분은 인터뷰와 설문의 시행 결정 배경과 문항의 준비 과정, 인터뷰 질문지와 해설, 인터뷰 결과 정리 순으로 정리를 했다. 특히 인터뷰 결과 정리 부분에서는 단체에 대한 개요와 한 문장 정리, 단체의 고민을 정리 하고자 했고, 인터뷰에 대해 기억에 남았던 개인적 소감들에 대한 코멘트를 요청했다.

또한 인터뷰 단체 선정이유에 대한 내용을 정리함과 동시에 지역 간 분포 편차에 대해서도 다루고자 했다. 이어서 설문지와 설문지에 대한 해설, 설문 응답이 많이 건히지 않았던 결과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했다. 더불어 인터뷰와 설문으로부터 배운 것, 인터뷰와 설문을 통해 행사를 기획한 과정뿐만 아니라 문화청년U와 지역 청년문화

단체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고민해보는 부분을 넣었다. 우리들은 인터뷰·설문 전반에 대한 2~3줄의 코멘트를 주기로 했다.

결과보고서 내에 실릴 '인터뷰·설문'부분의 내용에 대한 피드백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과정상에 있었던 인터뷰와 설문 준비, 작성, 시행, 정리에 대한 피드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인터뷰 단체가 적었기 때문에, 설문조사에 더욱 신경 써야 하는 것은 아닌지?', '설문문항 배포와 수집에 대한 업무에 모두가 무관심했었던 것은 아닌지', '많이 배포했으나 응답이 적었던 것인지 혹은 많이 배포하는 데도 실패한 것인지'에 대한 따끔한 반성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 문화청년U는 이러한 경험과 반성으로 '가이드라인 설정', '담당의 개념과 역할 확립'등의 개선방향을 찾아야 함에 모두 동의했다.

이양우는 '강의'부분의 내용을 작성했다. 우선 초청 멘토들의 강의 내용을 정리를 하고, 강의 후기에 대해 작성했다. 특히, 강의를 정리함에 있어서 제목과 소제목을 만들어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하고자 했다. 시간 관계상 '강의'부분에 대한 피드백은 이후에 진행하기로 했고, 멤버들은 코멘트를 보내주기로 하였다.

또한 이야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코멘트에 또 코멘트 달기', '덧글 코너'등의 아이디어가 나왔다. 우리들 내부에서도 코멘트는 상대적으로 격식을 차리지 말고 보다 편안한 말투로 재미있고 발칙하게 써보는 것에도 의견을 모았다.

회의를 함과 동시에 우리들은 올해의 마지막 모임과 한 해 동안 수고한 우리들을 기념하기 위해, 단체티를 함께 입고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서툴지만 열심히 노력한 2018년.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각자 혹은 모두가 얻은 반성과 교훈으로

내년에는 더욱 돈독해지고 강해질 문화청년U를 약속하며 셔터를 눌렀다.



2. 완벽한 실패록

실은 행사 이틀 전 사전조사에서 내가 억지로 초대한 여섯 명 말고는 아무도 신청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어이가 없어서 나온 말이었다. '완벽히 실패했다.' 부끄러운 마음을 애써 숨기고(한 층 업 된 톤으로) 신희영 대표님께 이실직고 했다. "대표님!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결과보고서는 '완벽한 실패록'이라는 컨셉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멤버들에게 제안했다. "우리 완벽한 실패록을 써보는 건 어떨까?" 멤버들의 반응은 좋았다. 신선하다는 반응이었다.

여러 가지 사정들로 촉박하게 진행되었던 지역특성화프로젝트<동네한바퀴>는 2018 지역문화전문인력양성사업을 함께했던 20대 교육생들과 진행했다. 기획의 전 과정을 경험해 본 적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일련의 과정을 대부분 함께했다. 문화청년U를 조직할 때부터 이들을 모아놓고 '청년들이 해보고 싶은 걸 해도 된다'는 달콤한 유혹과 더불어 많은 자율성을 열어두고 '이 곳이 바로 프리덤'인 것 마냥 시작했다. 그러나 그 자율성은 오히려 독이 되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진행과정 중 혼선이 많았다.

나는 경기도문화원연합회의 사업담당자이자 청년U 멤버로서 활동했다. 무지 힘들었다. 실은 힘들 걸 예상하면서도 욕심에 두 가지 다 선택했다. 대신 문화청년U의 리더라는 이름으로.

나는 리더를 진행자로 이해했다. 리더라는 이름으로 더 깊게 개입하면 내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런데 내 역할이 애매했을까? 프로젝트 내에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크다. 청년U가 모호해하고 답답해하는 지점을 잘 캐치해서 원활히 진행되도록 준비했어야 했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제대로 해내지 못해서 미안함이 크다. 그리고 나 역시 답답함이 있었는데, 모든 결정과 회의의 정리, 사소한 것까지도 내가 준비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다. 솔직히 힘에 부쳤다. 혼자 끙끙 앓고 밤을 새는 일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오히려 숨기지 말고 '나 이렇게 고민이 많은데, 같이 이야기 좀 해요!', '이거 업무분담해서 나눠서 합시다!' 진작 이렇게 했더라면 일이 더 빠르게 진행 될 수 있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물론 내 경험이 부족해서가 가장 큰 이유였으리라.

또한 올해 첫 시행된 사업이기에 앞으로의 사업을 위한 발판으로 연구모임을 진행하고자 했는데, 멤버들은 행사를 직접 해봤으면 했고, '어떠한 행사를 할 것이냐'에서 결과가 예상되지 않는 탓에 불안함을 많이 느끼기도 했다. 솔직히 말하면, 내 또래 젊은이들이 모이면 뭔가 달라도 다른 것이 나올 것이라 예상했으나, 나 역시 결과가 보이지 않는 탓에 자꾸만 안전한 방향으로 길을 제시했는지도 모르겠다.

자꾸 눈물의 반성문이 되다보니.. 한 가지 의문점이 든다.

우리만 실패한 걸까?

우리가 조사했던 것처럼 많은 청년단체가 활동 중에 있다. 그 중 사라진 많은 단체들은 사업의 결과로만 남았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우리만 실패했을까? 물론 우리도 잊을 수 없는 좋았던 순간과 우리가 이만큼 시도 해봤다는 점에서 배울 것도 많았다. 그러나 아쉬움이 더 크다.

그동안 경기도문화원연합회라는 조직 안에서 주변 직원들의 도움 덕분에 어쩌면 마음 놓고 시도했더라도 실패는 면했다. 그러나 이번사업을 하면서 처음 실패를 맛 본 나는 꽤 쓰라렸고 자존심이 상했다. 그러다보니 문득 의문을 갖게 되었다. 다른 결과보고서들을 보면서 '재들은 정말 성공한 게 맞나?' 혹은 '성공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만든 조작된 성과물 아닐까?'라고 못된 상상을 했다. 그러나 내가 수집한 결과자료집 어떤 책에도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실거나 아주 전쟁처럼 격한!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수록해 놓은 책은 찾아볼 수 없었다.(내가 못 찾은 걸지도 모르겠지만..)

혹 누군가 참담한 실패의 과정을 보고 싶다면, 이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봐도 좋을 것 같다. 또한 멤버들이 좀 더 격하게 써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아직 패배의 맛을 덜 본 걸까? 아니면 덜 들키고 싶은 걸까? 아니면 이게 정말 진심이라면 다행이기도 하고..

어쨌든 2018년 문화청년U의 첫 프로젝트는 끝이 났다.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며, 그리고 행사 이후 몇 번의 회의를 거치며, 우리는 실패의 원인들을 찾아내 보았다. 참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기본적인 것들이었지만 우리가 간과했던 것들이었다. 하지만 대책 없이 시작했던 우리들의 이야기는 성공을

거두진 못하였으나, 과정을 함께하던 중 우리들만의 세렌디피티를 발견하게 되었고 분명 즐겁고 흥미로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었다. 올해는 뜻밖의 발견들로 아쉬움을 달래지만, 내년에는 우리의 경험을 토대로 한 층 발전된 문화청년U를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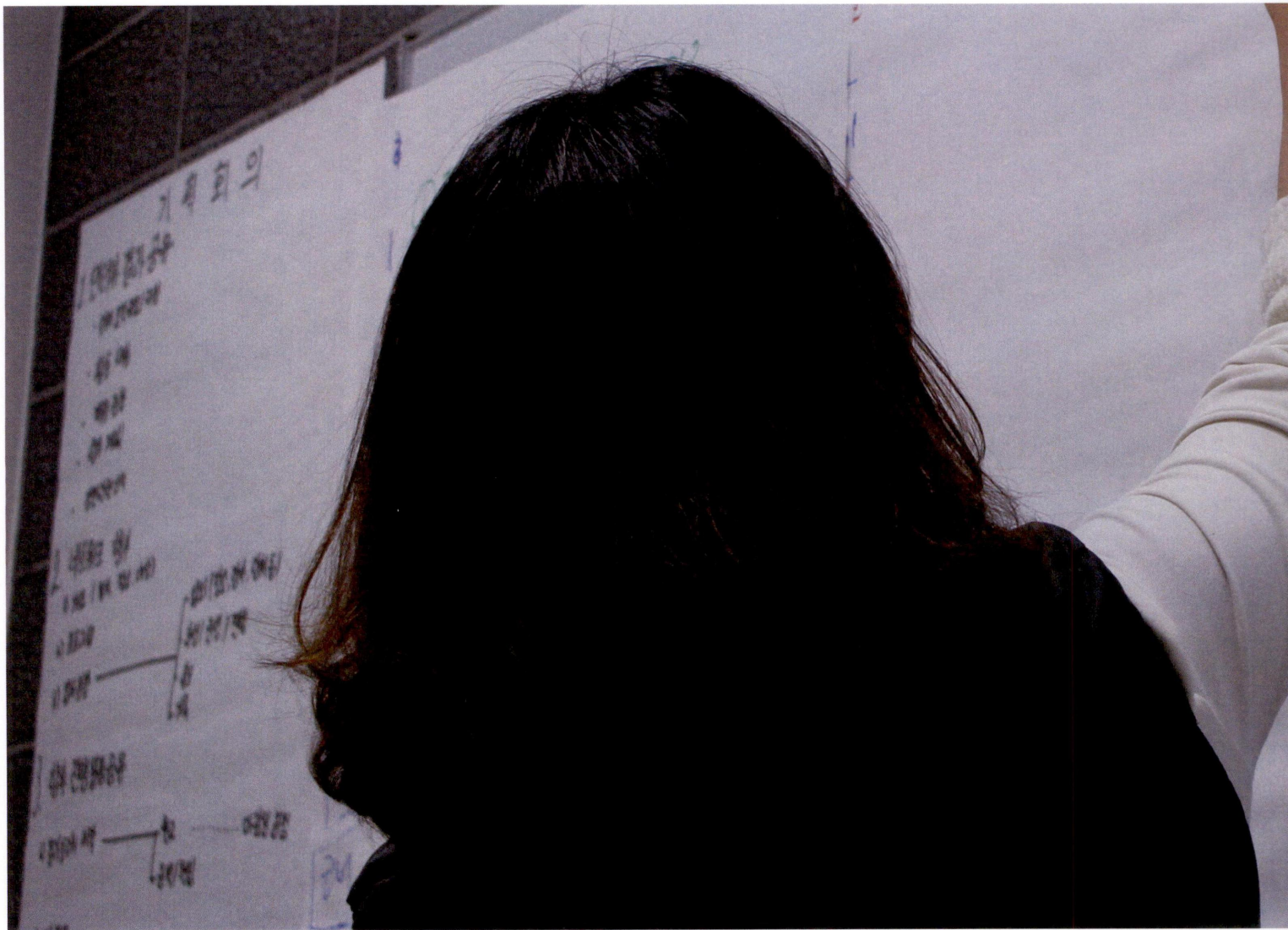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모든 과정을 함께 해준 문화청년U 멤버(동현, 효진, 준영, 양우, 민기)와 우리를 이끌어주신 최영주 사무처장님, 신희영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네트워크에 함께해주신 소중한 인연 양철모, 박도빈, 김수미 선생님께도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3. 문화청년U 향해의 순간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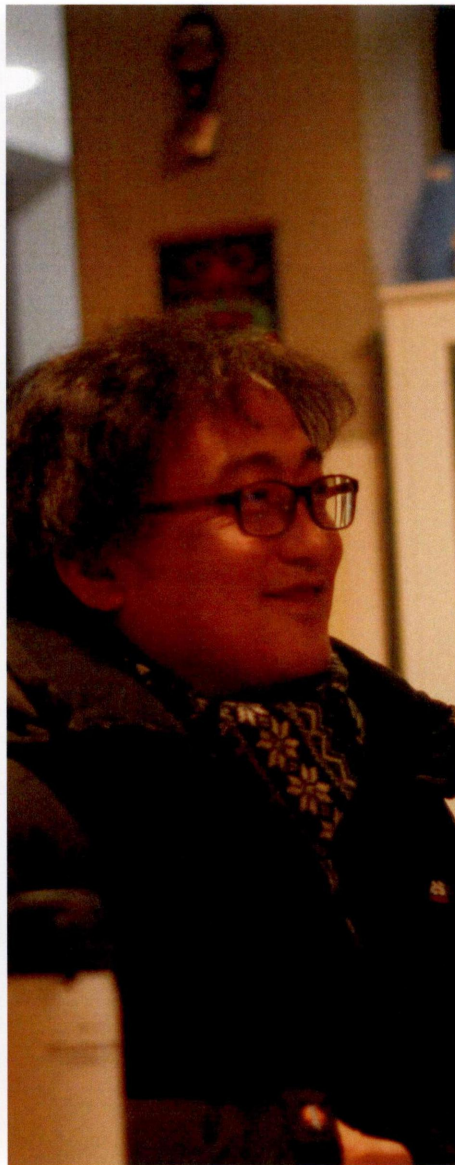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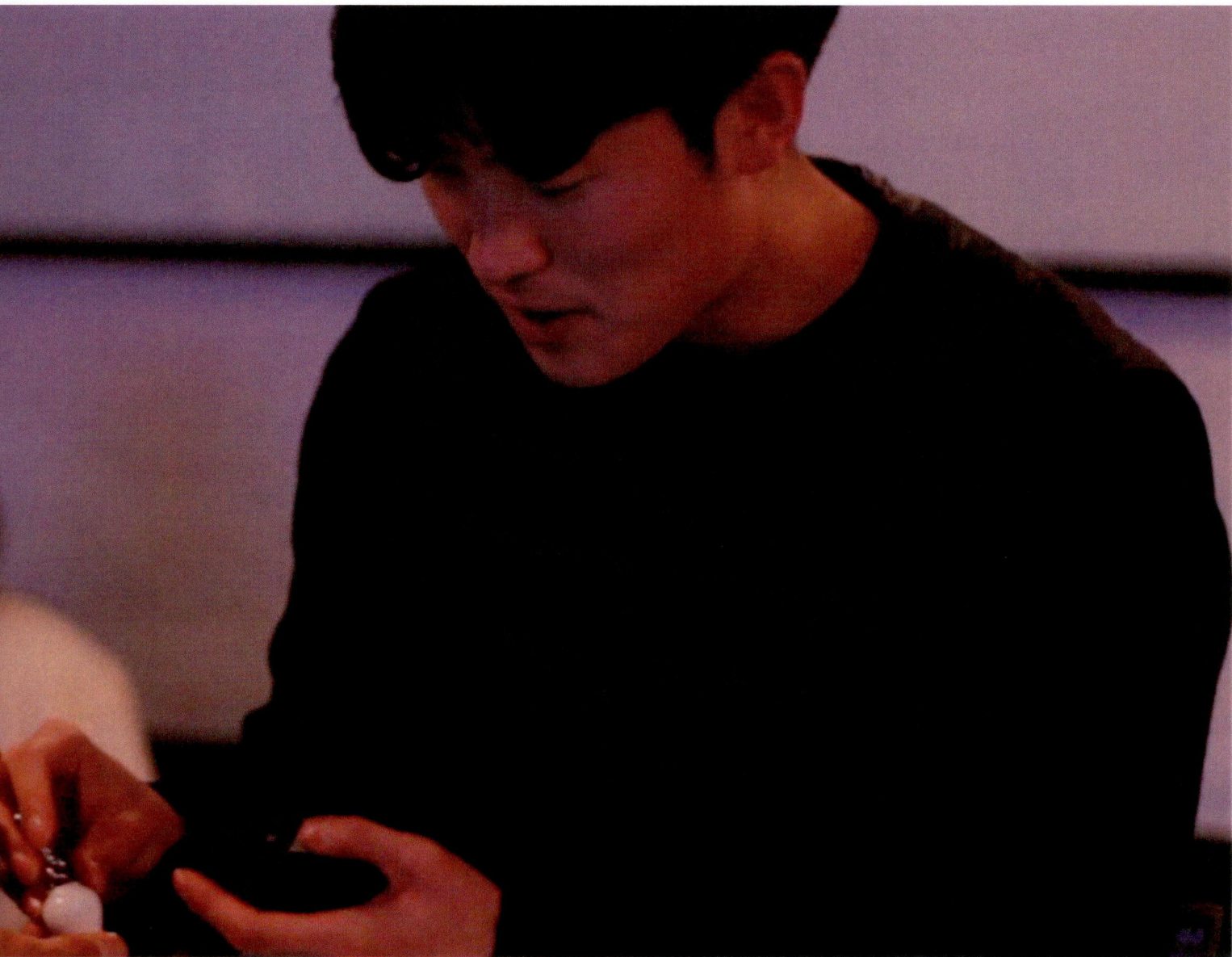






















2018년 우리들의 이야기, 세렌디피티(serendipity)

함께한 사람들

발행처	경기도문화원연합회
발행인	염상덕
총괄	최영주
진행	박소현
기획, 멘토	신희영
문화청년U	김민기
	박소현
	박효진
	배준영
	이양우
	윤동현
특별출연	양철모
	박도빈
	김수미
일러스트레이션	박소현
디자인, 인쇄	글그림
발행일	2018. 12.
주최, 주관	경기도문화원연합회
후원	경기도, 경기도의회
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 6층
전화	031-239-1020
홈페이지	http://www.kccfagg.org

본 권은 2018년 경기도 보조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비매품>

본권에 실린 글과 도판은 경기도문화원연합회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글과 도판을 사용하시려면 미리 저작권자의 사용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최 주관/  경기도문화원연합회

후 원/  Global Inspiration
세계 속의 경기도  경기도의회